

제16호
2020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미술	최인영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	1
역사	전병무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연구 : 인적 구성과 민사·형사소송사건 추이를 중심으로	51
관광	문준호 지역향토음식 관련 요인들의 지불의도에 대한 영향 : 수원왕갈비 사례를 중심으로	91
경제	김건휘 수원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가치를 조절효과로	115
교통	김숙희·심태일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수원시민 인지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55
복지	김제선·한연주 질병·의료획득이 수원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	191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

최인영**

1. 머리말
2. 《화성행행도》의 산수 표현
3. 의궤도의 산수 표현
4. 수원화성전경도 산수 표현
5. 맺음말

1. 머리말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발전은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궁중기록화의 산수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궁중기록화는 《화성행행도》,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경내의궤』 도설, 《화성춘추팔경도》, 《화성전도》가 있다. 차비대령화원들은 정조의 수원행행을 《화성행행도》와 『원행을묘정리의궤』로 제작하였고, 수원화성 축성은 『화성성역의궤』와 『경내의궤』로 제작하였다. 수원화성의 전경도는 1796년 성 완공 후 다수 제작되었고, 그 중 김홍도의 《화성춘추팔경도》 중 〈서성우렵〉·〈한정품국〉과 《화성전도》 중 6폭·12폭 병풍이 현재 남아 있다. 현존하는 《화성전도》는 19세기 전도로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영향이 19세기 말

* 본 논문은 최인영, 2020,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수원화성박물관 연구원(Researcher, Suwon Hwaseong Museum), E-mail : inyoungamore@hanmail.net, Tel : 010-8788-4189

까지 이어졌다.¹

《화성행행도》²는 행사주제에 따라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 방방도(洛南軒放榜圖)>,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로 구성되었다. 이 중 <화성성묘전배도>와 <서장대성조도>,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에는 정조의 친림 행사장 주변으로 산수가 표현되었고, 판화로 새긴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 도설과 한글 채색본 『경의의궤』 도설, <한정품곡>·<서성우림>, 《화성전도》 6쪽·12쪽에서도 수원화성 배경으로 산수가 등장한다.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을 연구하기 위해 궁중기록화에 표현된 산수와 수원화성, 원행로 실경을 비교해 보고, 화원들의 화풍을 연구해 본다. 《화성행행도》의 산과, 들, 마을 표현은 김홍도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畵)으로 궁중기록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그리고 김홍도의 일파라 할 차비대령화원인 이인문과 김득신의 진경산수화풍도 나타난다.

- 1 이 논문에서는 1795년 정조의 수원화성행차를 ‘수원행행’이라 사용하겠다. 수원이라는 지명은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다 정조가 수원화성 축성 준비를 시작하면서 1793년 ‘화성’이라는 새 명칭을 특별히 내려주었다. 하지만 당대에도 수원과 화성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현재 행정구역상 수원시이기 때문에 행행을 수원행행이라 사용한다. 그리고 행행은 한자로 ‘行幸’을 의미한다(『正祖實錄』二十四卷 十一年八月 十日. 駐駕之地, 必有恩澤, 行幸之稱, 亦出此意). 정조는 1795년 왕의 행차를 ‘행행(行幸)’이라 하였다(『日省錄』正祖 十九年 二月 二十五日. 陪奉慈候康寧日氣又如是清朗可卜八日行幸之太平萬安予欣喜何可容諭整理使). 다른 논문에서는 왕의 거동을 원행, 행차, 행행이라 사용하였지만 이 논문에서는 을묘년 정조의 수원화성행차를 ‘수원행행’이라 하겠다.
- 2 《화성행행도》는 소장처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연구자들도 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입수 당시 등록될 때 ‘水原幸行圖’라 명명되었는데, 1963년 전시될 때 ‘水原陸幸圖’로 소개되면서 이후 이 명칭으로 사용하다 현재 ‘華城園幸圖’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리움미술관의 소장본은 ‘화성행행도팔첩병’으로 불리다가 현재 소장목록에는 ‘화성능행도 8곡병’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우학문화재단은 ‘화성능행도병’의 명칭을 쓰고 있고, 교토대학박물관은 명칭이 여러 가지다. 연구자에 따라 사용한 명칭이 달랐다.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일지사, 2000)에서 ‘화성능행도병’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고, 오주석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제시하였다. 김인걸 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의 『정조와 정조시대』(201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는 ‘화성행행도병풍’이라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 궁중행사도를 정리 간행하면서 본 작품을 ‘화성원행도병’으로 재명명하였다. 그림과 기록에 정확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소장처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소장처의 계보를 총칭할 명칭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각 계부의 명칭에 공통으로 들어간 ‘화성행행도’, ‘화성원행도’ 중 ‘화성행행도’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 을묘년 수원화성행차에 참여한 홍윤환의 ‘화성행행일기’와 ‘정리의궤’의 도설을 지칭한 ‘화성행행도’와 관련한 사료가 있기 때문이다.
- 3 이태호, 2019, 『이야기 한국미술사』, 마르니에북스, 408쪽.

수원행행과 수원화성 축성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 『덩니의궤』, 『화성성역의궤』 도설의 산수는 판화와 채색본에 따라 다르다. 판화는 목각의 필선이 특징이고, 채색본은 밝고 화려한 산수화풍이 특징이다. 의궤의 총감독은 김홍도가 맡았으며 의궤 외에도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 정조대 궁중판화의 대부분을 제작하여 김홍도의 화법이 의궤 도설의 산수 표현에 나타났다.

수원화성 실경을 바탕으로 그린 수원화성 전경도류의 《춘추팔경도》와 《화성전도》에서 김홍도의 《춘추팔경도》는 수원화성의 8경을 그린 병풍으로, 그림과 실경을 비교하였을 때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법에서 수원화성의 실감(實感)이 느껴진다. 현존하는 《화성전도》의 제작 시기는 6폭 병풍은 18세기 말~19세기 초, 12폭 병풍은 19세기 말로 추측된다. 당시 제작된 다른 궁중기록화의 산수 표현을 통해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정조대 수원화성 의궤도의 산수 표현은 이전 16~18세기 궁중기록화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산수화 변화는 궁중기록화의 산수 표현에 영향을 주었다. 수원화성 의궤도 이전 산수가 표현된 사례는 <중묘조서연관사연도(中廟朝書筵官賜宴圖)>, <명묘조서총대시에도(明廟朝瑞蔥臺試藝圖)>, <서총대친립사연도(瑞蔥臺親臨賜宴圖)>,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 《준천계첩(濬川契帖)》이 있다.

2. 《화성행행도》의 산수 표현

차비대령화원⁴들은 1795년(정조 19) 정조의 수원행행이 끝난 후 《화성행행도》와

4 규장각에 소속된 차비대령화원들은 을묘년 정조의 수원행행에 참여하여 의궤도와 원행도병을 제작하였다. 또한 수원화성 완공 후 건축물과 수원화성 전경을 『화성성역의궤』 도설로 제작하였다. 정조는 정리소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수원행행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정리소의 체제는 지휘부에서부터 책임 소재가 명확하였다. 총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대신 체제공 아래에 호조판서, 사복시 제조, 장용사, 경기관찰사, 장악원 제조, 비변사 부제조 6명이 정리사를 맡았다. 그리고 행사에 화원이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논상」 항목에 3건 등장한다. 화원은 최득현, 김득신, 이명규, 장한중, 윤석근, 허식, 이인문으로서 모두 차비대령화원이었다. 이들이 그린 진찬도 병풍을 진상한 후에는 당상관 윤행임과 서리 4명과 함께 화원 7명과 병풍장 1명이 상을 받았다. 진찬도 병풍의 시상에서 정례당상이자 비변사 부제조 윤행임이 이름을 올린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윤행임은 정례당상으로서 주된 역할이 행차 준비였다. 정례당상이 지휘한 것으로 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제작하였다. 정조의 을묘년 수원행행은 현릉원 참배와 어머니의 진찬연(進饌宴)을 위해 준비되었다. 또한 수원유수부에 건설되고 있는 새로운 성 화성에서의 행사를 위해 거행되었다. 수원화성에서 행사는 봉수당 진찬연과 낙남헌 방방의, 서장대 성조, 낙남헌 양로연, 득중정어사가 열렸고, 원행로에서는 어가행렬과 주교행렬이 이어지면서 왕과 백성들 간의 대민행사가 이루어졌다. 차비대령화원들은 수원행행에 참여하여 정조의 친림행사와 어가행렬을 8폭 병풍으로 제작하여 1796년에 완성하였다. 현재 《화성행행도》로 전해지고 있는 그림은 도병이 4좌, 날폭이 8장이 남아 있다.

정조는 수원행행을 도병과 의궤도로 제작해 을묘년 수원행행을 기념하고, 수원화성에 대한 이상과 장엄함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의궤도와 도병에는 수원행행 장면과 함께 수원화성의 전경인 건축물, 산수가 함께 표현되었다. 차비대령화원들은 행사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수원화성과 원행로 실경산수를 배경으로 그렸다. 도병 중 수원 실경산수가 묘사된 〈화성성묘전배도〉의 산수는 수원향교가 위치한 팔달산이며 〈서장대성조도〉는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과 수원화성의 산수이다.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는 을묘년 수원행행을 위해 새롭게 건설된 신작로인 수원-시흥행궁 원행로 주변 산수이다. 실경과 그림의 산수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화성성묘전배도〉의 수원향교는 실제 팔달산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처럼 향교 주변으로 산이 감싸고 있다. 〈서장대성조도〉의 전경은 실제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에 오르면 그림처럼 수원화성 성곽과 산수가 펼쳐진다. 〈환어행렬도〉의 원행로는 현재 1번 국도로, 실제 수원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시흥행궁은 주변에 능선, 안양천, 경작지가 위치한다. 〈한강주교도〉는 용양봉저정과 주교가 설치된 한강을 그린 것으로 실제 용양봉저정의 앞에는 한강이 있다.

루어 볼 때 이 화원들의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정확한 행렬의 기록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기록과 정리에 관한 업무는 정리소에서 사실상 의궤청으로 이전되었다. 진찬도 병도 넓은 의미에서는 의궤청이 관할하고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차비대령화원들은 규장각 소속으로 원행이 기록과 관련한 어부, 병풍, 의궤 등 작업에 공통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림에 표현된 산수와 실경의 비교를 통해 차비대령화원이 실경을 어떻게 궁중 기록화에 표현하였는지 알 수 있고, 실경 산수를 궁중기록화에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화풍을 찾아볼 수 있다.

1)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화성성묘전배도>에서는 산 능선이 향교를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림의 산수는 주산으로, 향교 대성전 뒤 중앙에 배치한 후 높게 그려졌다. 향교를 둘러싼 주산 표현은 왼쪽에는 부드러운 토산이 오른쪽에는 무게감 있는 암산이 지그재그로 여백을 살려 그려졌다.

기록화의 구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건물들이 정면을 위치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표현하는 정면부감구도(正面俯瞰構圖)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들을 위에서 옆으로 빗겨 보고 평행사선을 이루도록 표현한 평행사선구도(平行斜線構圖)이다. 그중에서 정면부감구도로 그려진 그림은 주 건물이 사방을 둘러싼 담장의 4각형 틀 안에 위치한다. <화성성묘전배도>가 이러한 구도이다. 향교는 정면부감으로 화면의 중간에 배치되었고, 팔달산은 향교를 중심선과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균형을 맞춰 그려졌다. 다른 정면 부감도인 <봉수당진찬도>나 <낙남헌방방도>는 건물을 크게 과장한 것에 비해 <화성성묘전배도>는 주산이 건물을 감싸고 있다.

산수 표현은 상단과 하단에 그려졌다. 향교를 경계로 향교 상단에는 향교와 주산을, 하단에는 낮고 평평한 언덕, 구렁이 있다. 능선 여백에 그린 가옥들은 산의 중간 중간 한두 채씩 그려졌고, 버드나무,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뭇잎들은 세필로 자세히 묘사되었다. 나무 표현을 자세히 보면 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듯 가늘고 일정한 굵기의 수지법(樹枝法)으로 처리되어 회화적으로 표현되었다.

대성전 뒤 주산(主山)의 준법은 짧고 가는 세필로 부드럽게 주름이 표현되었고, 밋밋한 부분에는 둥근 태점(苔點)이 찍혀 장식되었다. 산줄기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주산의 맨 뒤쪽 부분은 크고 내려올수록 차례대로 작게 그려졌다. 마치 산줄기가 사람의 척추를 형상화한 듯 힘이 있고, 생동감 있어 보인다. 암산과 나무는 채색으로 명암을 주었다.

1789년(정조 13)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부 화산으로 이장하고 수원향교를 비롯한 구읍치 전체를 수원 팔달산 기슭으로 이전하게 하였다. 9월 13일 수원 신읍치에 51칸의 규모로 향교 이건을 마치고 정조가 친히 고유문을 지었다. 고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로소 선침의 터를 정하니 화산의 언덕일세. 민사를 다시 이루니 향교도 옮기게 되었네. 팔달산 아래에 지으니 공사를 마치고 길일을 택하였네. 희생과 예주를 갖추어 봉안하니 두 기둥 사이에 모습이 의연하네. 우리 사문을 열어서 길이 만년토록 의뢰하게 하소서.⁵

고유문의 내용처럼 향교가 위치한 팔달산은 수원읍치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수원화성 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팔달산 주변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고, 팔달산 정상에 오르면 수원읍치가 한눈에 보일 뿐 아니라 현릉원까지는 높은 산이 없어 시야가 현릉원이 있는 화산까지 이를 수 있다.

팔달산 기슭에 옮겨진 수원향교는 팔달산을 배산하고, 방향은 현릉원을 향해 있다. <화성성묘전배도>(〈그림 1〉)와 수원향교 실경을 비교해 보면 그림의 향교 뒤 주산은 실제 팔달산과 위치가 같다.

하지만 <그림 1>의 향교 뒤 주산은 실제 팔달산보다 산봉우리가 과장되었다. 능선의 굴곡과 향교 옆 토산과 암산은 실제보다 높으며 다양하다. 산의 크기는 16~18세기 궁중기록화 <중묘조서연관사연도>, <명묘조서총대시예도>, <모화관친림시제도>보다 크며 참배 장소인 향교 건축물보다도 크게 그려졌다. 똑같은 팔달산을 그린 <서장대성조도>와 비교했을 때 <화성성묘전배도>의 산이 높이 솟아 있고 각이 졌다.

<그림 1>의 향교는 건축물이 정면부감 축소구도로, 건축물을 그림 전체에 다 채워 그리지 않고 향교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그려졌다. <봉수당진찬연도>, <낙남헌방방도>의 봉수당과 낙남헌처럼 건물을 확대하고 주된 건물 주변으로 담을 화면 경계에 맞춰 그리는 대신 암산과 토산을 화면 경계에 맞춰 그려 주산의 비중을 크

5 『홍제전서』 제21권, 祭文3. 수원 신읍의 향교에 위패(位牌)를 봉안할 때의 고유문.



〈그림 1〉〈화성성묘전배도〉 산수 〈사진 1〉 수원향교 사진

게 두었다. 〈화성성묘전배도〉의 산이 실제 팔달산보다 과장되어 다른 그림의 산보다 비중 있게 그려진 이유는 팔달산의 상징적 의미와 팔달산과 향교의 정보전달 때문이다. 화원들은 〈화성성묘전배도〉에서 주산을 단지 배경으로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닌 향교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팔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중 있게 그렸다.

2)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燥圖)>

〈서장대성조도〉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서장대에서 정조가 실시한 군사훈련인 성조(城燥) 행사를 기록한 그림이다. 그림에는 성조 행사가 열린 서장대를 중심으로 성곽을 따라 화성행궁, 수원화성의 4대문인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등 성곽의 건축물이 그려졌고, 성곽 주변으로 산수가 표현되었다. 건축물은 그림 위쪽 서장대부터 서장대 왼쪽 방향으로 화서문, 북포루, 장안문, 화홍문, 동북각루, 창룡문, 동포루, 남수문, 팔달문, 남포루가 위치해 있다. 산수는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 동북각루의 바위와 연못, 화홍문의 물줄기, 성곽의 언덕 등이 표현되었다.

그림의 건축물과 산수는 수원화성의 실경을 바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실경과 비교했을 때 닮은 부분들이 많았다. 실제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의 서장대 역시 산 위에 서장대를 보고 그렸다. 그리고 화홍문에 흐르는 수원

천, 동북각루의 암석과 연못은 실제 지형과 같은 모습이다. 수원화성이 완공된 지 224년이 지나 수원화성의 건축물과 성곽은 훼손과 복원으로 을묘년 수원행행 때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형은 그림과 비교하였을 때 1796년 모습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서장대성조도〉와 수원화성 실경과의 비교를 통해 화원들이 궁중기록화에 어떻게 실경을 표현하였는지 알 수 있다.

〈서장대성조도〉와 수원화성 실경을 비교해 보면 주 건물인 서장대는 자세히 묘사된 반면에 팔달산은 낮고 평평하게 표현되었다. 실경에서 서장대 크기는 화성행궁의 건물보다 작지만 그림에서는 화성행궁 전체 모습만큼 크고,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팔달산은 〈화성성묘전배도〉의 산보다 완만한 언덕처럼 보인다. 화원들은 정조의 군사훈련 장면을 서장대와 함께 그려야 했기에 서장대의 비율을 화성행궁이나 수원화성 사대문에 비해 크게 그렸고, 산은 산의 주름이나 나무들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대신 군사들의 훈련 모습과 쉬는 모습 등 다양한 동작들에 집중하였다.

〈서장대성조도〉와 〈화성성묘전배도〉의 산은 같은 팔달산이었지만 그림의 주제나 주변 건축물에 따라 산의 형태가 달라졌다. 팔달산과 언덕의 화법은 세필로 산의 주름을 세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화법이고, 청록담채로 산의 명암 차이를 주어 표현하였다. 토산인 팔달산을 그림에 담기 위해 붓 자국이나 채색을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성 안의 버드나무부터 매화나무까지 여러 나무들이 세필로 나뭇잎 모양과 나뭇가지가 묘사되었다. 팔달산 아래 화성행궁 표현은 신평루, 봉수당, 득중정 등 중요 건물들이 자세히 그려졌으며 민가는 소략하게 지붕만 그려 넣고 이인문의 수풀 표현처럼 주변 여백이 수풀로 채워졌다.

〈사진 2〉는 팔달산, 서장대, 화성행궁을 부감하여 촬영한 것으로 〈서장대성조도〉와 비교해 보면 시점이 같다. 〈그림 2〉의 시점은 하늘에서 새가 바라본 것처럼 부감법이 사용되었다. 〈서장대성조도〉는 실경을 생략하고 변형한 부분들이 보인다. 〈그림 2〉 속 서장대와 화성행궁의 위치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실제 행궁과 서장대는 대각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팔달산과 서장대는 수원화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해 이곳에서는 수원화성 전체뿐만 아니라 성 밖까지 멀리 내다보인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서장대는 팔달산의 산마루에 있으며, 유좌묘향(酉坐卯向)이다.



〈그림 2〉〈서장대성조도〉 팔달산



〈사진 2〉항공에서 촬영한 팔달산

석성산의 봉화와 황교의 물이 한눈에 들어오고, 성의 완급과 사벽의 허실을 마치 손바닥 위를 가리키는 듯하다.”라 하였다.⁶

수원화성은 1922년 대홍수로 화홍문과 남수문이 유실되었고, 1924년 수원 지역 민들의 노력으로 유실된 화홍문이 개축(改築)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많은 성곽 시설물이 부서지게 되었는데, 특히 장안문과 창룡문은 문루가 소실되었다. 소실된 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조금씩 수리되기 시작하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호국문화 유적의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축물과 성곽이 복원되었다.⁷ 복원은 『화성성역의 궤』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성곽의 성벽은 돌을 쌓은 축대와 산, 주변 지형과 연못, 내천이 축성 때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 있어 수원화성을 그린 도병과 의 궤를 현재 실경과 비교할 수 있었다.

〈사진 3〉은 항공에서 부감하여 찍은 동북각루와 동북포루, 동북공심돈의 모습이다. 실제 지형을 표현한 부분은 화홍문, 방화수류정, 창룡문, 서장대-팔달문, 서장대-화서문-장안문 등이 있다. 하지만 성곽을 한 화면에 담아야 했기에 화면 시점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정해 너른 사물의 시각을 축소하여 건물들을 한 화면에 그렸다.

〈사진 4〉는 수원천이 흐르는 화홍문의 모습이다. 이 사진 역시 높은 곳에서 부

6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662쪽.

7 조성우, 2013, 「『水原城郭復元淨化事業』研究」,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34쪽.



〈그림 3〉〈서장대성조도〉 성곽 주변 산수



〈사진 3〉 동북각루-연무대 사진



〈그림 4〉〈서장대성조도〉 화홍문



〈사진 4〉 화홍문

감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4〉와 비교해 보면 화홍문을 그린 시점과 사진을 부감해서 찍은 화홍문의 위치가 같다. 화홍문은 수원화성의 북수문으로 위치는 수원천에 위치해 있는데, 수원천변을 따라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그림에도 실경과 같이 수문 7칸으로 흐르는 수원천 물줄기와 주변으로 버드나무가 그려졌다. 천변의 버드나무는 『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에도 그려져 축성 때 천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을 화원들이 실경을 바탕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도성이나 읍성은 성 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소하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천이 성벽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수문을 마련하여 하천을 수원(水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수원천 옆 버드나무와 수원천의 표현은 가는 필선과 곡선을 부드럽게 처리한 수



〈그림 5〉〈서장대성조도〉 동북각루



〈사진 5〉 동북각루

파묘이다. 성 안 가옥의 수풀에도 수원천 버드나무와 같은 필선으로 여백을 채워 통일감을 주었다.

〈그림 5〉는 화홍문 옆 동북각루 모습이다. 각루는 산성 등 자연지세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형상 돌출되어 관측과 지휘에 용이한 곳에 설치되었다. 동북각루는 수원 화성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로 1795년 정조의 수원행행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언덕과 바위, 강 등 주변 산수를 활용해 건물을 지대가 높은 절벽 위에 건설하였다. 절벽은 용두암으로 광고산 줄기에서 뻗어 내려왔다.⁸ 그리고 용두암 아래 광고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머무는 곳에 연못을 파고, 가운데 작은 섬을 두었다.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만든 용연의 형태가 그림에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서장대성조도〉에는 용두암과 용연의 자연지형이 묘사되어, 방화수류정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었다. 〈그림 5〉와 〈사진 5〉를 비교해 보면 암석과 용연, 용연의 작은 섬이 잘 표현되어 화원들이 실경을 바탕으로 사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장대성조도〉에서 실제 모습과 제일 닮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진 5〉는 맞은편 동북포루에서 바라본 동북각루의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구도와 건축물의 구도는 다르다. 〈그림 5〉의 동북각루 각도는 동북각루와 용연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지만 그림의 동북각루 구도를 자세히 보면 건물의 누각과 성벽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을 그렸지만 건물의 위치와 용연의 위치는 동북포루 쪽에서 바라본 옆

8 노재현 외, 2010, 「수원화성 용연과 화홍문 일곽의 원형경과 탐색」, 『한국조경학회지』 제38권 2호, 조경학회, 96쪽.



〈그림 6〉〈서장대성조도〉 동쪽 성곽 〈사진 6〉 창룡문 항공사진

모습이다. 건물의 옆모습과 그림의 동북각루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림 6〉과 〈사진 6〉은 창룡문과 동남쪽 포루의 성곽 부분이다. 사진은 항공에서 찍은 것으로 창룡문에서 포루까지의 전경을 담았다. 그림과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림을 그린 시점은 항공에서 찍은 시점과 같아 그림을 부감하여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창룡문과 포루 사이의 거리가 멀고, 그림에서는 거리가 가깝다. 화원들이 넓은 거리의 건축물과 산수를 축경하여 그렸기 때문이다.

수원화성에서 지대가 높은 곳은 서장대 외에도 동북공심돈에서 창룡문, 남수문까지의 성곽이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 그림에서도 채색을 통해 높은 지형을 잘 표현하였다. 화원들이 〈서장대성조도〉에 수원화성의 지형까지도 담았다. 비록 성곽의 형태는 병풍으로 제작하여야 했기에 세로로 길게 변형되었지만 세부적인 건축물과 주변 산수는 실경을 토대로 그렸다.

3)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환어행렬도〉는 수원에서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창덕궁으로 돌아오는 환궁 행렬을 그렸다. 행렬은 수원의 지지대고개를 거쳐 시흥행궁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문 후 한강 주교를 이용하여 환궁하였다.

정조의 원행을 위해 조성된 원행로는 현재까지도 관심이 높다. 1번 국도의 시초였던 원행로는 기존의 과천로가 아닌 용산-노량진-시흥으로 이어지는 새로 건설

된 도로였다. 오늘날 1번 국도의 일부 구간인 시흥로(始興路)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남태령을 넘어 과천으로 돌아 수원에 도착하는 여정보다 단축되었다. 시흥로처럼 국왕이 행행을 위해 도성 인근에 새로운 도로를 조성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정조의 의지로 시흥 인근의 도로가 원행을 위해 정비되었고, 원행 도중의 숙식과 휴식을 위해 행궁이 설치되었다.

왕의 원행로는 행궁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반 도로보다 중요도가 높았으며, 시흥행궁은 도성과 수원화성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정조가 시흥로를 개발하기 전에 도성에서 수원으로 행행하는 동선은 한강을 도강하여 과천을 거쳐 가는 도로가 유일하였다. 과천을 거쳐 가는 도로는 고갯길이 험준하고 교량이 많아서 왕족과 관원, 군병 등 원행 참가 인원이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정조는 이런 과천 원행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흥을 거쳐 수원에 이르는 도로를 만들었다. 과천을 경유하여 수원으로 가는 원행로가 평탄하지 않아 혜경궁을 모시고 현릉원으로 행행하는 것에 무리가 될 것을 염려하여 대규모 행차가 가능한 평평한 시흥로를 개설한 것이었다. 시흥로는 노량진에서 시흥까지 이어지는 과천로에 비해 주변이 평지이며 시흥 이후의 도로는 안양교 등의 교량만 통과하면 되는 평탄한 도로였다. 안양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로 1795년 만안교(萬安橋)가 완공되었다.⁹ 시흥로가 조성되면서 왕이 행차 때 유숙할 수 있는 행궁이 시흥에 함께 만들어졌다. 그 결과 정조가 조성한 시흥로는 조선 후기 국왕의 행행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라는 것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 준다.¹⁰

정조 이전의 국왕들은 능행차를 단순히 행차(行次)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의 행차를 단순히 행차가 아닌 행행(行幸)으로 규정하였다. 국왕의 행차가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성들로서는 국

9 이양무, 2017, 「정조대 시흥 원행로 조성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321쪽.

10 원행 구간은 동화문-نون영부 앞길-파자전 다리-통운교-종루 앞길-대광통교-소광통교-구리개교개 병문 앞길-송현-수각교-송례문-도저동 앞길-청파교-석우-율원현-나업산 앞길-만천-노량주교-용양봉저정-정안현-장생현-도화참 발소 앞길-번대방천교-번대방 들판-마장천교-문성동 앞길-수천잠 발소 앞길-부장천교-시흥행궁-대박산 앞들-염불교-만안교-안양참 발소 앞길-장산 모퉁이-군포천교-서원천교-청천평-서면천교-원동천-사근평-사근참 발소 앞길-사근참 행궁-지지현-지지대-괴목정교-용두 앞길-목욕동교-여의교-만석거-여의동-영화정-대유평-관길야-장안문-종가-화성참 발소 앞길-좌우군영 앞길-신평루-화성부행궁. 도로는 모두 83리이고, 교량은 24개소이다. 시흥로의 개설과 시흥행궁의 건설은 경기감사 서용보에게 맡겨졌다(정해득, 2013, 「정조의 수원 園幸路와 그 성격」, 『서울학연구』, 133쪽).

왕의 행차가 귀찮고 힘든 일이었다. 국왕의 행차를 위해 세금을 내야 했고 길을 닦아야 했지만 정작 국왕의 장엄한 행차는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다. 정조는 자신의 행차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백성들이 국왕의 행차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차 한 달 전부터 전국에 방을 붙여 국왕의 행차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 와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백성들은 정조의 원행 관람을 바로 ‘관광(觀光)’이라 하였다.¹¹ 그래서 <환어행렬도>에는 환어행렬과 주변 산수 속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그려졌다. 수원행행은 백성과의 화합과 군신이 화합하는 유교적 이상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어 사람들은 오고 가기에 편리해지면서 주변 생활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활성화된 모습들은 그림에도 나타났다. 원행로 주변에 그려진 많은 사람들과 상업부터 농업까지, 풍요로운 경작지는 당대의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6,400여 명에 달하는 인원과 1,400여 필의 말이 동원된 대규모의 행렬이었는데 행렬과 주변 산수, 주민들의 풍속을 한눈에 보이도록 역동적인 구도로 그려졌다. 화원들은 왕과 백성들의 화합을 그림에 담고자 환어행렬을 수원 지지대고개부터 시작하여 시흥행궁을 끝으로 설정하였고, 원행로 주변 산수 역시 지지대고개부터 시흥행궁까지를 그렸다. <환어행렬도>에서 산수는 지지대고개부터 시흥행궁까지 행렬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수 표현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 표현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상단부분 지지대고개의 산 능선 부분, 중간의 암벽과 강 부분, 아래쪽 시흥행궁의 주변 산 능선 부분으로 나뉜다. 중간의 암벽은 다른 산에 비해 자세히 묘사되었다. 시각적으로 원경이 작고 근경으로 올수록 인물이나 주변 사물이 커지지만 <환어행렬도>에서는 중간부분의 행렬을 강조하기 위해 산수 역시 강조해 그렸다. 그래서 행렬의 의미와 상징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그림 7> 속 행렬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수원 지지대고개에서 시흥행궁까지의 장소였기 때문에 행렬과 산수의 배치가 중요하였다. 차비대령화원들

11 김준혁, 2017,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이루어진 대동의 도시』, 더봄, 283쪽.

은 행렬에 동행하며 넓은 원행로 주변 실경을 스케치한 후에 다시 재구성하여 그렸다. 그래서 <서장대성조도>처럼 실경을 그대로 사생한 것이 아닌 행차 때 그렸던 원행로의 주변 밑그림들을 행렬의 배치에 따라 서로 합성하고, 화보를 참고해 추가하여 그렸다. 하지만 그림에 표현된 진경(眞景)은 실경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실경장소는 지지대고개와 사근행궁, 시흥행궁으로 주변 산과 하천, 평야들을 실제 원행로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산수의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씩 눈과 마음으로 느껴진다. <서장대성조도>의 동북각루, 화홍문처럼 정확한 곳을 찾기 어렵지만, 산과 강의 실경을 찾을 수 있다. 그림의 행렬 주변 산수와 원행로 주변 실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현재 시흥행궁은 남아 있지는 않아 시흥행궁 옛터와 수원 지지대에서 시흥행궁까지의 주변 산수를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 7>은 <환어행렬도> 중 윗부분으로 지지대고개에서 사근행궁까지의 행렬이다. 지지대는 시흥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길목으로 지지대에 오르면 수원을 볼 수 있다. 현재 지지대고개는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1번 국도로 바뀌었다. 사진은 시흥에서 수원으로 오는 방향에서 찍었다. 정조대 건설된 원행로가 현재 1번 국도로 변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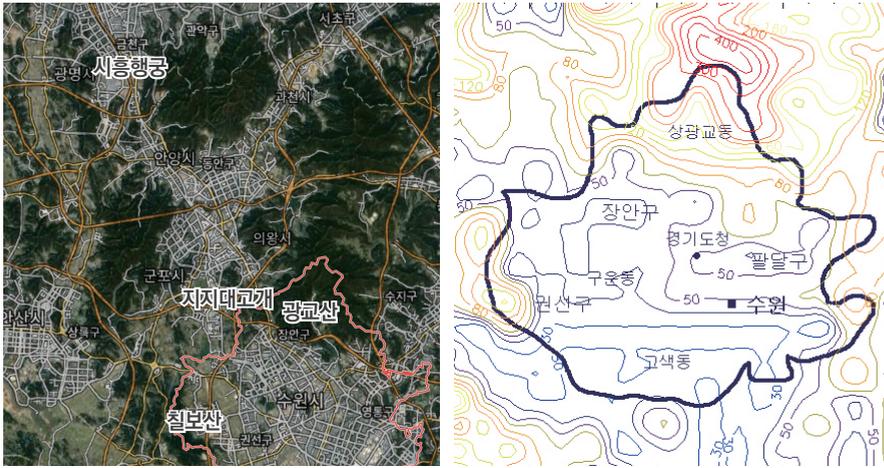
<그림 7>과 실경을 비교해 보면 그림의 맨 위쪽 행렬의 시작인 지지대고개 주변으로 능선들이 그려져 있고, 실제 지지대고개 주변으로도 광고산 능선과 관악산 능선이 자리해 있다. 수원은 동쪽으로 광고산이 자리하고 서쪽은 칠보산이 있다. 지지대고개는 광고산과 칠보산 부분에 있다. <사진 7> 왼쪽 부분이 광고산 능선이고 오른쪽 부분이 칠보산 능선이다. 실경처럼 그림에도 행렬 주변으로 능선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 7> <환어행렬도> 지지대고개-사근행궁 산수



<사진 7> 안양-수원 방향에서 촬영한 지지대고개



〈그림 8〉 수원 지형도와 등고선

〈그림 8〉 수원 지형도와 등고선을 보면 지지대고개는 광교산과 철보산 능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형도를 통해 〈환어행렬도〉 상단 지지대고개 주변의 산이 철보산과 광교산 주변 실경을 바탕으로 묘사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환어행렬은 지지대고개를 지나 사근행궁에서 잠시 휴식 후 다시 시흥행궁으로 떠났다. 사근행궁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사근행궁 터인 의왕시 고천동주민센터 자리에서 주변 산수를 촬영하였다. 사근행궁 주변으로 관악산 줄기가 펼쳐져 있는 것을 〈사진 8〉을 통해 볼 수 있다.

사근행궁을 지난 행렬은 안양천에 있는 만안교를 건너 시흥행궁으로 향하였다. 정조는 수원과 서울로 원행하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안양천에 만안교를 건설하게 했다. 〈그림 10〉의 행렬 방향 왼편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실제 안양천 위치와 방향을 확인해 보면 위치가 같다. 행렬 방향의 오른편은 능선과 큰 절벽바위가 그려져 있고 왼쪽으로는 강과 넓은 경작지가 나타난다. 현재 안양천 옆으로는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이전에는 경작지였다.

안양천의 만안교는 현재 복원되었고, 복원된 만안교는 1980년 국도가 확장되면서 이전해 재현해 놓은 것이다. 정조대 옛 만안교는 찾을 수 없지만 만안교 터를 표시한 비석을 찾을 수 있어 옛 만안교가 있었던 자리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비석이 있는 곳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지 않았다. 이유는 예전 큰 홍수로 인해 천이 범



〈사진 8〉 사근행궁 터 주변 풍경



〈그림 9〉 〈환어행렬도〉의 사근행궁 주변 산수



〈사진 9〉 옛 만안교 주변 안양천



〈그림 10〉 〈환어행렬도〉의 강과 경작지

람하면서 안양천의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안양천의 물줄기 위치를 정확하게는 찾기 어려워 그 주변 정조대 만안교 자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수원 방향을 향해 촬영하였다. 만안교 주변에서 바라본 안양천 모습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안양천 옆 옛 경작지와 안양천 주변 관악산이 <그림 10>에 남아 있다. 관악산은 한양의 외사산(外四山)으로 경기 5악 가운데 하나인 산이다.

<그림 11>은 시흥행궁 옆 행렬 부분이다. 정조의 마지막 환어행렬은 시흥행궁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하루 묵은 뒤 창덕궁으로 출발하였다. <그림 11>의 시흥행궁은 주변으로 산이 위치해 있는데 <사진 10>에서 보이듯이 실제 시흥행궁 터 주변으로도 관악산의 능선들이 시흥행궁 터를 감싸고 있다.

<환어행렬도>와 원행 주변 실경을 비교해 보면 장소는 수원 지지대고개, 사근행궁, 시흥행궁이며, <화성성묘전배도>와 <서장대성조도>의 팔달산처럼 특정한 산수를 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수원 지지대고개에서 사근행궁까지의 광교산 능선, 만안교를 놓은 안양천과 그 주변 경작지, 그리고 사근행궁에서 시흥행궁까지의 관악산 능선 등의 산수는 실경을 토대로 재현되었다.



<그림 11> <환어행렬도> 시흥행궁 주변 산수 <사진 10> 시흥행궁 터 관악산

차비대령화원들은 실경산수를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 진경산수화풍을 궁중기록화에 담아냈다. 산수화풍은 김홍도, 이인문, 김득신의 진경산수화풍이 함께 나타난다. 김홍도의 진경산수화는 산과 들의 표현에서, 이인문의 화풍은 소나무의 표현, 색채에서 볼 수 있다. 이인문은 그의 아호대로 소나무를 좋아하여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를 즐겨 그렸다. <환어행렬도> 중 절벽에 흐르는 폭포는 소나무의 표현이 마

치 이인문의 송계합담도와 같다.¹² 암벽 위 소나무 잎과 등치 표현은 이인문의 〈유객상방〉 속 소나무 묘사와 닮았다. 또한 수목(樹木)과 산봉우리는 먹빛과 녹색 사이 사이에 홍갈색으로 담채한 방식들이 이인문의 산수 표현이다. 초목 표현 특징은 짧은 선으로 등치와 가지를 세세하게 그리고 나뭇잎과 풀들은 작은 점들을 무수히 찍어대는 준법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공간묘사 역시 이인문 특유의 방법이 눈에 띄는데 떨어지면서 나무 크기와 먹의 농담을 변화시켜 원근감을 주고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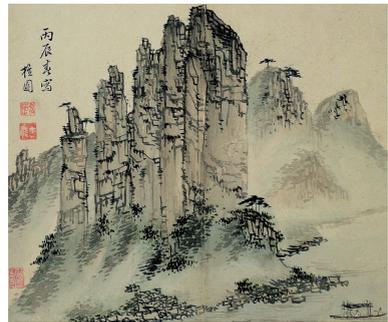
〈그림 12〉 행렬 옆 암벽은 김홍도의 암벽 준법과 비슷하다. 짙은 농담과 옅은 농담의 필선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언덕과 산의 부드러움과 거친 표면을 처리하였다. 필묵의 구사에서는 이인문은 아주 섬세하고 해맑은 담채를 가한다. 이에 비해 김홍도는 붓 맛과 번지기 효과에 더 치중하였다. 행렬 주변 산수는 김홍도의 《해산첩》 중 〈대관령〉처럼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산을 표현하였다. 산의 주름과 길을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피마준과 미점으로 세밀하게 처리하였다.



〈그림 12〉
〈환어행렬도〉 암벽



〈그림 13〉
〈유객상방〉, 이인문
18세기, 지본 담채, 31×41.2cm,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14〉
〈옥순봉도〉, 《병진년화첩》, 김홍도
1796년, 종이 담채, 26.7×31.6cm,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12 유홍준, 2013,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3』, 놀와, 284쪽.

13 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12, 『眞景時代繪畫大展 潤松』 繪畫 五十三, 逝去50週忌 記念, 188쪽.



〈그림 15〉
〈환어행렬도〉 평야



〈그림 16〉
〈대관령〉, 〈해산첩〉, 김홍도



〈그림 17〉
〈행락도〉, 김득신

1788년, 비단에 수묵담채, 30.4×3.7cm, 개인 소장 《풍속도 8폭 병풍》 중

〈환어행렬도〉에 묘사된 청록산수화법을 자세히 보면 밑그림을 수묵으로 그리고 청록으로 설채 후, 다시 진한 먹으로 덧그림으로써 강한 필력을 부각시켰다.¹⁴ 이전의 산수화에는 산에 부분적으로 설채를 가하고 대지는 남겨 놓았던 데 비해 〈환어행렬도〉의 경우는 밭과 언덕을 청록과 갈색으로 담채하여 지세(地勢)를 드러내었다. 바위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먹 선으로 암벽의 갈라진 부분들을 직각으로 그렸다. 선은 먹의 농도를 변화시켜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을 구분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암벽의 표현과 필선은 18세기 김홍도의 암벽 표현에서 나타난다.

김홍도와 이인문 외 《화성행행도》 제작에 참여한 화원은 김득신(金得臣, 1754~1822)이다. 김득신은 김홍도를 가장 충실히 계승한 화원으로 알려져 있듯이 일찍부터 김홍도를 충실히 공부하여 풍속화와 인물화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특히 풍속화에 능하였으며 서민들의 생활 풍속을 그린 《풍속도 8폭 병풍》이 있다. 《풍속도 8폭 병풍》은 김득신의 모든 회화표현이 집약된 그림으로 《화성행행도》의 산수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 그중 제8폭 〈행락도〉(〈그림 17〉)는 〈환어행렬도〉와 구도가 비슷하다. 산행을 떠나는 지주와 그 일행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는 농민을 주제로 한 것인데 산길의 구도가 〈환어행렬도〉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그재그 모양의 ‘之’ 형태이고 길 주변으로 산수를 그렸다. 원행로 주변으로 한적한 풍경이

14 유재빈, 2016, 『정조대 궁중회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0쪽.

김득신 산수에 나타난다. 혜경궁 가마 오른쪽 풍경이 평야지대로 화려한 어가행렬과는 반대로 한적하면서 소박한 농가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김득신의 <주막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득신의 <주막거리>는 주막거리 주변 농가의 평범한 풍경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어가행렬 옆 평화로운 풍경과 비슷하다.

<환어행렬도>의 산수화풍은 차비대령화원들의 진경산수화풍으로 이전 궁중기록화보다 더 다양해진 산수화풍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홍도를 비롯하여 이인문, 김득신 등 차비대령화원들은 진경산수화와 남종문인화를 통해 필선과 채색 등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고,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에 접목시켰다.

4)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

<화성행행도>의 마지막 폭인 <한강주교환어도>는 정조가 시흥행궁에서 출발하여 과천현의 용양봉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노량진에 설치된 주교로 한강을 건너가는 환궁행렬을 묘사한 그림이다. 화면 상단에 용양봉저정의 모습이 보이므로 용산 측에서 바라본 모습임을 알 수 있다.¹⁵

한강에 설치된 주교는 투시원근법을 이용하여 그려졌다. 주교는 화면의 중앙에 대각선으로 길게 배치되었는데, 다리의 폭이 원경으로 멀어질수록 좁아지며 인물의 크기나 인물 사이의 간격도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촘촘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교도가 설치된 한강은 한양의 중심에 있는 강으로 식수 공급, 교통수단, 물자 운반처럼 생계수단을 책임졌다. 또한 주변 경치가 뛰어나 유람지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조선시대 한강을 그린 대표적 작품으로는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과 정수영 <한임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卷)> 등이 있다. 겸재 정선과 지우재 정수영이 그린 한강 그림에 비해 <한강주교환어도>의 한강은 먹의 농담 차이나 색의 차이가 적어 정형화된 느낌이지만, 대신 세필로 물결무늬가 그려져 한강의 잔잔한 물결 파장이 묘사되었다. 암벽과 능선의 준법과 원경과 근경 산의 크기와 채색 차이는 근대적 원근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5 수원화성박물관, 2017, 『정조대왕의 수원행차도』, 274쪽.



〈그림 18〉〈한강주교환어도〉 산수



〈사진 11〉용양봉저정과 한강

주교는 어가행렬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설치되었고, 잠시 쉬어가기 위해 한강이 잘 보이는 남쪽 언덕에 용양봉저정이 건설되었다. 〈그림 18〉의 위쪽 정자가 용양봉저정이고, 용양봉저정 앞으로 어가행렬이 주교를 건너며 한강 반대쪽은 사람들이 나와 어가행렬을 구경하는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주교도가 놓인 장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주교사 터라는 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현재 한강대교가 있는 위치로 추정된다.

〈사진 11〉은 용양봉저정과 한강을 찍은 것으로, 〈사진 11〉 속 용양봉저정은 〈그림 18〉처럼 언덕 위에 위치하며 그 앞으로 한강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한강까지 뻗어온 관악산 능선이 보인다. 사람들이 올라 구경한 주교 옆 큰 언덕은 정확히 어느 곳인지 실경에서 찾을 수 없었다. 구경꾼들이 앉아 있는 언덕 옆면은 침식작용으로 깎인 총석이 김홍도식 바위준법이다.

〈한강주교환어도〉의 산수 표현은 한강을 그린 정선의 《경교명승첩》 중 〈송파진(松坡津)〉과 비교하였을 때 정선화풍의 청록산수화를 엿볼 수 있다. 화원들은 정선의 청록산수화처럼 석록을 주조로 한 선염으로 언덕과 산을 그린 다음 산등성이 위에만 석청으로 문지르듯 표현하여 전체적으로는 밝은 색조를 띠게 하였다. 진경산수화에서 드러낸 정선의 청록산수 양식은 남종문인화가뿐만 아니라 전통의 청록산수화를 구사한 화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 그려진 궁중회화에서의 산수는 평면적이고 장식미에 치중할 듯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정선을 비롯한 조선 후기 남종문인화의 양식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정선의 화풍은 김홍도로 이어져 김홍도만의 풍속화와 진경산수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김홍도를 비롯한 차비대령 화원들은 이전 화가들의 진경산수화풍에 대한 습득과 사물에 대한 관찰력, 표현력으로 자신만의 진경산수화풍을 만들어 궁중기록화에 녹아냈다. 또한 정조(正祖)의

지원으로 그들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정조는 형사와 신운을 추구하는 왕이었다. 회원들의 그림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그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각 회원들의 장단점을 일일이 품평할 만큼 세심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1791년 규장각의 검교직각(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가 남긴 기록에서 정조의 회화관을 엿볼 수 있다.

회원들의 기예(技藝)를 시험 보았는데, 농묵(濃墨)을 휘갈기고 바림하여 사의화(寫意畵)와 비슷하게 한 자가 있었다. 주상께서 지시하시기를 “회원 그림에서 말하는 남종(南宗)이라는 것은 귀한 점이 치밀하고 세세한 것인데, 이와 같이 제멋대로 그리다니 이것이 비록 자잘한 일이지만,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 하시며 그를 내쫓도록 분부하셨다. 정조는 약간의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남종화풍을 두고 세밀하고 섬세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는 대상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그림에 표현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조가 지닌 회화관의 핵심을 시사하는 부분이다.¹⁶ 정조의 회화관, 차비대령화원제의 설립, 회원들의 진경산수화풍은 정조대 궁중기록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덕분에 궁중기록화의 산수 표현이 발전될 수 있었다.

3. 의궤도의 산수 표현

정조대 궁중판화는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그리고 수원행행과 수원화성 관련 의궤도 판화가 대표적이다. 왕의 명으로 간행된 이 시기 의궤의 판화는 규장각 소속의 차비대령화원이 제작에 참여하였기에 당시 가장 기량이 뛰어난 회원들의 작품이다.¹⁷ 회원들의 회화 기량은 의궤도의 산수 표현에서 잘 나타났다. 수원화성 관련 산수 표현은 《화성행행도》 외에 『원행음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덩니의궤』 삽화에 나타난다. 삽화에는 수원화성 건축물과 을묘년 수원행행에 수원화성의 산수가 부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 또한 《화성행행도》와 더불어 산수 연구에 중요하다. 의궤의 삽화를 한 곳에 모은 체제는 당시로서

16 박정혜·윤진영 외, 2011,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199쪽.

17 이해경, 2008, 「정조시대 관판본 판화연구」, 『미술사연구』 20, 미술사연구회, 237쪽.

새로운 방식으로 편찬되었는데 이러한 삽화 작업은 단원 김홍도가 주관하였다.¹⁸

세 의계의 삽화에는 김홍도의 인물표현과 산수 표현이 잘 나타난다. 기록화의 배경으로 주변 나뭇가지의 준법인 수지법과 짧으면서 붓놀림이 살아있는 바위, 풀들에 표현된 짧은 선 등 실감을 살린 기법들이 김홍도의 진경산수화풍이다. 산수 표현에 있어서 김홍도의 자유분방한 강한 필선과 세밀한 나무 묘사, 산과 바위를 표현한 먹 선의 농도 변화가 나타났다.

1) 『원행을묘정리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에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여 수원과 현릉원에 행차하여, 16일에 환궁할 때까지 8일간의 행행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10권 8책의 의궤로 1797년 간행되었다. 의궤제작은 전 현감 김홍도를 병조(兵曹)에서 군직(軍職)에 붙이게 하여 상근(常勤)하면서 삽화의 제작을 맡게 했다.

도식은 목판화 중 산수가 표현된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 <알성도(謁聖圖)>,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화성행궁도>

도식의 순서상 가장 앞에 <화성행궁도>를 두었다. 이는 ‘화성행궁’을 원행의 목적이자 행사가 일어난 장소로서 제일 첫 장에 넣고 있다. 그림에는 화성행궁의 건물인 봉수당, 득중정, 낙남헌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행궁 뒤편으로 팔달산에 미로한정을 그려 넣었다. 미로한정이 위치한 팔달산은 일정한 굽기의 곡선으로 산의 주름이 표현되었고, 주변으로 소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행궁 정문인 신평루와 홍살문 사이의 물길과 그 주변으로 버드나무가 그려졌다.

18 『일성록』 정조 19년 閏陪 2월 28일. 춘당대에서 의궤청의 당상 심이지, 민중현, 이시수, 이가환, 서용보, 윤행임을 소진하였다. 윤행임이 아뢰기를, “도설이 있으니 김홍도를 대령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정조는 “그러겠다.” 하였다.

(2) <알성도>

<알성도>는 《화성행행도》의 <화성성묘전배도>를 축소한 모습이다. 팔달산과 향교의 구도, 그리고 능선의 위치, 형태가 비슷하다. 하지만 세세한 묘사에서는 목판화와 채색화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목판화의 경우 나무, 돌, 산의 주름 선이 일정하고 간결하며 목각의 맛이 살아있다. <화성성묘전배도>는 나무의 필선이 부드러운 반면 목판화는 강하게 구사되었다.

(3) <서장대성조도>

<서장대성조도> 역시 《화성행행도》의 <서장대성조도>를 축소한 모습이다. 화성의 지형묘사도 도병처럼 화면을 꽉 채우지 않고 성 밖에 여백을 남겼다. 창룡문 성곽 주변에는 낮은 구릉을, 하단 쪽에는 산을 새겨 넣어 성곽 밖의 지형을 묘사하고 배경으로 처리하였다.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과 《화성행행도》의 양식을 비교해 보면 밑그림의 구도와 형태는 같으나 의궤 도식이 도병보다 크기가 작기에 생략과 축소가 많으며 먹과 채색의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필선은 목판의 새김에 따라 필선의 굵기가 정해지며, 판화를 탁본하는 것이므로 먹의 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 하지만 목각선의 힘은 먹의 필선보다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2) 『화성성역의궤』

『화성성역의궤』의 체제와 구성은 전적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수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96년(정조 20) 9월 10일 성역의 완료가 보고되었고, 새로 구성된 의궤청의 책임자들이 16일 수원부에서 모임으로써 의궤 편찬업무가 시작되었다.¹⁹ 완성은 정조대 완성되었으나 인쇄된 의

19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9일. 《화성성역의궤》 成. 上謂華城留守趙心泰曰 “城役所費, 幾近

계가 내입된 것은 정조 사후 1801년(순조 1) 9월 18일이었다.²⁰

『화성성역의궤』의 도설은 <화성전도> 등 수원화성 주변 산수 외에 만석거, 영화역 등 수원유수부의 다양한 산수가 표현되었다.

(1) <영화정도(迎華亭圖)>

<영화정도>는 만석거의 남안(南岸)에 세워진 정자인 영화정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만석거는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장안문의 북쪽 들판을 개간한 대유평 근처에 만들어진 저수지이며 1795년 대유평의 너른 들과 만석거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 세워진 정자가 영화정이다. 그림에는 영화정만 그린 것이 아닌 영화정의 배경인 만석거를 함께 그림으로 만석거와 영화정의 아름다움을 산수에 담았다. 만석거의 긴 제방과 새로 식목한 나무들, 호수는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2) <영화역도(迎華驛圖)>

<영화역도>는 1796년 8월 경기 양재역(良才驛)을 옮겨 세운 역관(驛館)인 영화역을 그린 것이다.²¹ 영화역은 장안문 밖 길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그림에는 역관 주변 집들이 개울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고, 화면 중앙에 배치된 역관의 북쪽으로는 말을 먹이기 위한 목야(牧野)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평화롭게 뛰노는 말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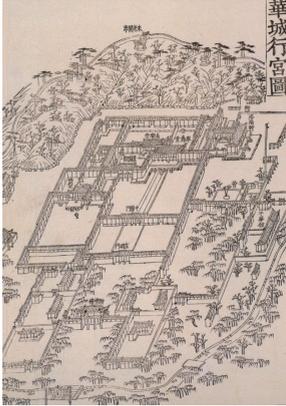
『화성성역의궤』의 산수 표현은 목관화의 특징대로 짧은 선으로 언덕과 나무의 주름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동북각루외도> 등에서는 각진 바위 묘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각진 바위의 묘법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주교도>에 보이는 바위와 <화성행행도>의 <한강주교환어도>의 바위 준법과 비슷하다. 『화성성역의궤』와 『원

八十萬。爲所重，不欲有一毫苟簡者，卽予本意也。此書刊行，使學世人，曉然知城役本末，可也。”

20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9월 18일, 頒《華城城役儀軌》先朝嘗命整理諸臣，撰次華城始末制度儀式，纖悉備載，彙成《儀軌》，凡九編。至是印頒焉，監印閣臣以下施賞，纂輯郎洪元燮，加通。

21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8월 29일, 改良才驛爲迎華驛，移設郵治於華城北門之外。

『원행요정리의계』의 산수 표현의 공통점은 바위 준법, 수지법, 필선 등에서 김홍도 화풍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화성행궁도〉



〈알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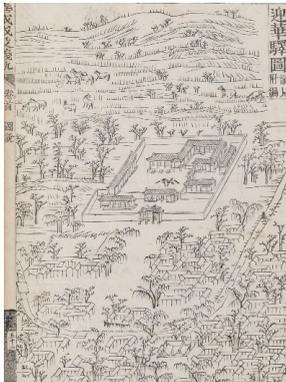
〈서장대성조도〉

〈그림 19〉 『원행을묘정리의계』

1797년, 목판인쇄, 35.1×22.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영화정도〉



〈영화역도〉



〈동북각루외도〉

〈그림 20〉 『화성성역의계』 도설

1801년, 목판인쇄, 34.2×21.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는 긴 버들잎 모양의 성곽을 따라 지형과 시설물이 그 명칭과 함께 표시되어 있고 성 내에는 화성행궁과 주요 공해가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다. 건물과 시설물 외에도 길과 하천, 땅의 형세, 조정 상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의궤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수원화성의 산수는 『화성성역의궤』에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화성의 전체적인 모습은 동쪽을 향하여 열렸는데, 팔달산이 높이 솟아 후진(後鎭)이 되어 있다. 일자사(一字砂)는 변천하여 가까이 안산이 되었는데, 가운데로 대천(大川)이 남북으로 꿰뚫어 흐르고 있다. 사각(四角)은 모두 높고, 여덟 문(八門)은 서로 어긋맞게 서 있으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만년의 금탕지지(金湯之地)로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가 산등성이와 산기슭을 타고 쌓는다. 이런 까닭에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인공으로 쌓는 비용이 들지 않고서도 자연히 안팎 성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성은 있는데 못을 파지 않는 것을 군사상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 자체가 이미 산을 의지하고 있는데, 못을 어떻게 팔 수 있으며, 또 파서 무엇에 쓰겠는가? 화성을 처음 쌓으려고 할 때에 정조께서 세우신 주락을 보니, 먼저 성 둘레에 못을 파고, 그 흙은 성 쌓는 데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쪽 성 밖과 북문 옆에는 자연적으로 깊은 도랑이 있으므로 다시 못을 팔 필요가 없게 되었고, 서산의 뒤와 동성의 아래에도 도랑이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성 둘레에 다시 도랑을 파지 않더라도 저절로 견고한 성 구실을 하게 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기록한 수원화성의 지형과 산수를 『화성성역의궤』의 〈서장대성조도〉와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성 자체가 이미 산을 의지하고 있는데”에서 산은 팔달산을 말하며 “남쪽 성 밖과 북문 옆에는 자연적으로 깊은 도랑이 있으므로 다시 못을 팔 필요가 없게 되었다.”에서 이 도랑은 북문 옆 화홍문으로 통하는 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장대성조도〉, 〈화성전도〉에서도 화홍문 아래 도랑을 준천한 대천(大川)을 그려 놓았다. 그리고 동쪽에서 남쪽의 지형의 의궤도 산수 표현과 기록도 일치한다. 기록에는 “수문의 동쪽으로 평지를 지나, 30보쯤 되는 거리에서부터는 다시 산성의 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형세가 자못 험준하다. 또 30보쯤 나아가면 동남각루를 지은 터에 이르게 되는데, 산정은 높고 편평하다. 여기에서 북으로 거슬러서 길게 뻗어나간 곳에 동일치 터가 있다. 여기에서 666보쯤 되는 거리에 일자문성(一字文星)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을 그 뒤로 둘러

쌓았다.”고 기록한 내용대로 그림에도 산수지형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3) 『덩니의궤』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정리한 한글본 의궤인 『덩니의궤』는 현재 13책이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다.²² 현존하는 13권 13책 가운데 권30, 40, 46, 47, 48의 5책이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에 해당한다.

한글본 『덩니의궤』는 조선 정조대의 역점 사업인 ‘을묘년 수원행행(水原行幸)’, 을묘년 화성행궁에서의 진찬, ‘화성성역(華城城役)’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게 수록된 한글본 자료이다. 모두 48책으로 제작된 책 중에 프랑스국립도서관에 1책, 프랑스 국립동양언어학원에 12책이 전해지고 있다. 수원화성 성역과 관련한 삽화를 채색화로 그렸으며 이는 『화성성역의궤』의 도설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일부 도설은 처음 소개되는 것도 있다. 제39권에 실린 성역도는 총 82건으로 2건의 전도(全圖), 43곳의 화성 및 주변 시설도, 10종류의 공역 기기도(器機圖), 4건의 행사도로 이루어져 있다.

『덩니의궤』의 산수 표현은 〈행궁전도〉, 〈미로한정도〉, 〈성신사도〉, 〈사직단도〉, 〈문성왕묘도〉, 〈방화수류정도〉, 〈남지도〉, 〈영화정도〉, 〈영화역도〉, 〈남포사도〉가 있다. 〈화성전도〉는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과 성 외곽의 경작지, 그리고 수원천이 묘사되었다. 산수 밑그림은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와 같지만 산수의 필선은 채색본의 필선이 훨씬 자유롭고 회화적이다. 산의 주름과 경작지의 필선이 판화보다 굵기와 농도가 다양하다. 채색의 경우 청록산수 채색본인 《화성행행도》보다 밝고 채도가 높으며 분홍, 파랑, 흰색 등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

〈미로한정도〉(〈그림 21〉)는 나무의 채색이 인상적인데, 나뭇잎을 흰색, 연분홍, 녹색, 먹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꽃과 나뭇잎을 채색하였고, 점염법

22 『덩니의궤』는 프랑스 국립동양언어학원과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성역도’를 수록한 권 39권 1책을 바탕으로 연구해 본다. 선행연구는 옥영정, 2008, 「한글본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 연구』, 한국서지학회; 정정남, 2016,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 『정리의궤(整理儀軌)』의 건축사료적 가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이화숙, 2018, 「화성성역의궤의 ‘한문본-한글본-국역본’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등이 있다.

(點葉法)과 세필을 사용하여 나뭇잎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였다. 언덕은 피마준법과 미점을 밝은 색채로 사용하여 팔달산의 따뜻한 봄날을 형상화한 듯하다. 김홍도의 〈한정품국〉이 늦가을 미로한정의 모습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이다. 하지만 미점과 나무의 잔가지 표현은 〈한정품국〉의 나무처럼 짧고 자유로운 필치이다. 『덩니의궤』에서 산수의 준법이 가장 잘 나타난 그림은 〈방화수류정도〉(〈그림 22〉)이다. 방화수류정은 지대가 높은 암석 위에 위치하는데 암석에는 굵고, 가는 세필로 ‘ㄱ’ 직각을 겹쳐 암석 표면의 질감이 처리되었다. 채색은 밝고 어두운 부분을 회색과 먹색으로 채색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소나무는 〈환어행렬도〉의 소나무처럼 정교하게 그려졌는데 곡선을 이용한 나뭇결 표현, 나무의 밑동이 갈라진 듯한 표현이 〈환어행렬도〉의 소나무와 비슷하다. 연못에는 연꽃과 연잎이 연분홍과 녹색의 점을 찍어 회화적으로 표현되었다. 〈남지도〉(〈그림 23〉)에서 표현된 남지(남은구)는 현재 복원되지 못한 시설물이지만 그림을 통해 예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수원화성에는 북쪽 북은구와 남쪽 남은구 등 두 개의 은구가 있었다. 북은구에는 성 밖의 물을 끌어들이어 연못 복지를 만들었고 남은구에는 상남지와 하남지 두 개의 연못을 만들고 안에는 섬을 조성하고서 홍련과 백련 등 각종 나무로 조경하였다. 은구는 도시 조경적 효과와 아울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었다.²³ 그림 속 버드나무의 나뭇가지 필선은 《화성행행도》 중 〈서장대성조도〉의 버드나무 필선과 같다. 인공 연못에 그린 홍련과 백련은 실제 연꽃이 그림에 핀 것처럼 연꽃 색감을 그대로 재현해 채색하였다. 주변으로는 버드나무와 언덕의 풀을 밝은 석청과 녹청으로 칠하여 그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덩니의궤』의 산수 표현은 관화보다 필선의 강약과 흐름이 자유로우며 채색은 《화성행행도》의 산수 채색에는 없는 밝은 연분홍색 등이 사용되어 장식적이다. 그래서 『덩니의궤』는 의궤의 정보전달 효과뿐만 아니라 기분 좋게 전경을 즐길 수 있는 미적 시각의 효과를 제공하였다.

〈남포사도〉(〈그림 25〉)의 미점 표현은 먹색과 녹청색 등으로 농도를 다르게 하여 돌과 언덕에 입체감을 주었고, 〈영화역도〉(〈그림 24〉)는 말과 풀에 다양한 색이 사용되어 자유로운 필선이 생동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채색본의 산수 표현은 마

23 이달호, 2003, 『수원화성 건설』,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3쪽.



〈그림 21〉
〈미로한정도〉 산 표현



〈그림 22〉
〈방화수류정도〉 소나무



〈그림 23〉
〈남지도〉 연못 표현



〈그림 24〉 〈영화역도〉 중 들판 표현



〈그림 25〉 〈남포사도〉 중 미점 표현

치 한 폭의 산수화와도 같다. 봄 풍경을 형상화한 밝은 산수 표현은 김홍도의 〈옥순봉도(玉筍峯圖)〉와 비슷하다. 나무와 잡풀에 부분적으로 담홍색을 가미하고 담묵과 담채를 깔아 놓고 그 위에 툰이 다른 열은 녹색과 묵으로 태점을 쌓아 올려 경물이 표현되었고, 묵선이 집중해서 모이거나 흩어지고 강하고 약한 효과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 빈틈없이 구사된 부분이 김홍도식 표현이다.²⁴

『덩니의궤』 채색본은 김홍도가 주관한 『화성성역의궤』의 판화본과 밑그림이 같고, 산수 표현에 김홍도의 준법과 진경산수화풍이 나타나 김홍도가 함께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덩니의궤』 산수 표현의 필선과 채색은 정형화된 궁중채색화풍에서 벗어난 진경산수화풍이다.

수원화성의 실경은 궁중기록화의 배경산수로 재현되면서 수원화성이 가지는 지형적 이점, 축성배경을 함께 담고 있다. 이처럼 의궤에 표현된 산수는 팔달산, 수원

24 이태호, 2010, 『옛 화가들은 우리말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414쪽.

천, 만석거, 광고산 등 수원화성의 실경이다. 수원화성 관련 의궤도에는 수원화성 축성, 을묘년 정조의 수원행행 모습뿐만 아니라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지형적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4. 수원화성전경도 산수 표현

수원화성의 풍경을 그린 병풍은 김홍도의 《화성추팔경도》 중 〈한정품국〉, 〈서성우렵〉과 작가미상의 《화성전도》 6폭 병풍과 12폭 병풍이 있다. 1796년 수원화성이 완공되고 정조는 김홍도에게 이를 기념하여 화성의 절경을 봄, 가을로 나누어 각각 팔경도병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 중 현재 〈한정품국〉과 〈서성우렵〉만이 남아 있다.

수원화성과 수원유수부의 전경을 담은 《화성전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6폭과 12폭으로 소장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6폭 병풍은 18세기 말~19세기 초, 12폭 병풍은 19세기로 전해진다.²⁵ 수원화성이 완공된 후에 수원화성과 수원유수부의 전경을 그린 그림이 다수 제작되었다. 이 중 《화성전도》는 성곽 내·외부에 민가와 농경지, 주변 산천을 함께 그려 수원화성의 시각 자료로 의미가 있었다. 건축물과 수원화성의 자연지형, 성곽의 시설물, 성곽 주변의 농지와 민가 등 주변 산수를 함께 그림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수원화성과 수원유수부의 정보를 전달하였다.

1) 《화성춘추팔경도(華城秋八景圖)》

김홍도는 정조대 차비대령화원은 아니었지만, 그가 많은 궁중 그림을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를테면 바로 국왕 직속의 ‘대조화원(待詔畫員)’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자신의 문집에 김홍도를 실을 만큼 각별히 생각하며 “화원 김홍도를 잘 알고 있으며 삼십 년간 나라의 중요한 그림을 도맡아 그리게 하였다.”고 회

25 국립중앙박물관, 2016, 『미술속 도시, 도시 속 미술』, 319-320쪽.

고하였다.²⁶ 정조의 명으로 제작된 춘추팔경도는 수원화성이 완공된 후 화성행궁에 배설(排設)하기 위해 김홍도가 증병으로 제작하였던 것이다.

수원화성의 추팔경도 중 서쪽 성곽에서의 새 사냥 광경을 그린 <서성우렵도>와 행궁의 후원에 있는 미로한정(未老閒亭)에서 국화꽃 감상하는 모습을 그린 <한정품국도>는 근경, 중경, 원경의 원근감 표현과 더불어 김홍도의 진경산수화풍 중 하나인 세밀한 묘사와 능숙한 농담 표현이 잘 나타났다.

(1) <한정품국(閒亭品菊)>

조선 초기 북송의 《소상팔경도》가 유행하면서 조선 중기에는 우리나라의 실경을 팔경 또는 십경으로 명명하여 시를 짓고 그림으로 그리는 풍조가 정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의 명승지가 팔경도 또는 그와 유사한 형식과 구성으로 그려질 정도로 팔경도 형식이 보편화되었다. 이 시대에는 화원들뿐만 아니라 문인화가들도 팔경도를 활발하게 제작하였다.²⁷ 수원화성 팔경도의 경우 수원화성 축성 이후 정조가 신료들과 더불어 춘팔경(春八景)·추팔경(秋八景), 즉 ‘화성 16경’을 지정하였다. 이는 여타의 지역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수원화성에 대한 정조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엿볼 수 있다.²⁸

<한정품국>은 늦가을 화성행궁 뒤 미로한정에서 사람들이 모여 국화를 품평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미로한정은 행궁의 후원에 세워진 정자로 득중정 서쪽 팔달산 능선의 중턱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미로한정은 봉수당·장락당·복내당과 연결되는 득한문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미로한정이란 ‘장차 늙어서 한가하게 쉴 정자’라는 뜻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에 내려와 노후를 보내고자 했던 정조의 마음을 보여 준다. 정조의 관심이 나타난 공간으로 미로한정의 풍치는 <한정품국도>를 통해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그림 26>은 실경을 바탕으로 화성행궁의 봉수당과 미로한정, 서장대를 한 화면에 넣었으며 구도는 현재 화령전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26 『홍재전서』 7권. “金弘道工於畫者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真 自是凡屬繪事 皆使弘道主之.”

27 박해운, 2017, 『한국의 팔경도』, 소명출판, 14쪽.

28 한동민, 2014, 「수원팔경의 확정과 전개-이원규의 ‘수원팔경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팔경문화 수원팔경』, 수원박물관, 272쪽.



〈사진 12〉
화령전에서 촬영한 팔달산의 서장대, 화성행궁의 봉수당 건물



〈그림 26〉
〈한정몽곡〉, 김홍도
1796년, 종이에 수묵담채,
97.7×41.3cm, 서울대박물관 소장

사선구도이다. 김홍도는 진채보다 수묵을 사용하여 미로한정과 그 주변 팔달산의 소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짧고 간결한 필선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12〉는 화령전 위치에서 찍은 화성행궁 봉수당, 미로한정, 서장대의 모습이다. 현재는 팔달산에 우거진 나무 때문에 미로한정이 보이지 않지만, 미로한정의 위치는 봉수당 뒤에 있다. 〈사진 12〉에서처럼 김홍도는 한 화폭에 건물과 산수를 단일시점으로 그렸다. 하지만 병풍의 규격상 세로로 길게 그려야 했기에 건물의 거리를 축경하였다.

(2) <서성우렵(西城羽獵)>

서성(西城)이란 화서문(華西門) 주변 성곽을 말한다. 화서문에서 서장대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으로 서장대에서 광고산까지의 넓은 들판과 들판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서성우렵>이다. 부감과 원근법을 써서 주위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거리감과 공간감이 잘 전해진다.

〈서성우렵도〉는 김홍도의 《해산첩》처럼 공간감과 원근감이 잘 나타났으며 서장대의 암석 표현은 김홍도 화법의 특징인 절대준이 잘 드러난다. 산수의 필선은 김홍도가 사경(寫景)을 통해 익힌 필선으로, 자유롭고 실경감이 묻어난다.

〈한정품국〉과 〈서성우렵〉은 금강산을 비롯해 통천과 고성, 삼릉과 강릉의 해변 기암승경을 포함한 관동팔경, 그리고 명주의 오대산 등 영동 지방 일대 명승유적을 담은 《금강사군첩》처럼 김홍도의 특징적인 필력이 또렷하다. 비단 위에 수묵담채로 그린 승경도들은 부감법으로 구현한 전경도식 구도이며, 경물을 그린 필치는 치밀하고 사생적이다.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사선, 대각선식 경물배치, 나무 표현, 각이 진 바위 묘법이 김홍도의 특징이 잘 나타났다.²⁹



〈사진 13〉
서장대에서 촬영한 화성 전경



〈그림 27〉
〈서성우렵〉, 김홍도
1796년, 종이에 수묵담채,
97.7×41.3cm, 서울대박물관 소장

29 이태호, 2010,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408쪽.

2) <화성전도(華城全圖)>

<화성전도>는 조선 후기 성시풍속도와 관계가 깊다. 건국 초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도성 안팎의 여러 장소들이 승경으로 인식되었고, 새로운 도읍지에 대한 정당성의 피력과 조선왕조의 상징적 중심체로 형상화한다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성시도>가 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화성전도>도 수원화성을 상징적 중심체로 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병풍은 화성행궁에 배설하고자 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6폭 병풍과 12폭 병풍은 수원화성을 포함한 성 밖 수원의 전경이 부감되어 그려졌다. 《화성행행도》 중 <서장대성조도>는 병풍 1폭에 맞춰 세로로 길게 성곽과 주변 산수가 그려진 반면 《화성전도》는 6폭과 12폭 전체에 수원의 건축물과 산수가 그려졌다. 병풍의 성곽은 『화성성역의궤』와 『덩니의궤』에 삽입된 <화성전도> 형태와 같지만, 주변으로 축만제, 만석거, 광고산, 칠보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의궤의 <화성전도> 경우 판화로 제작되어 준법과, 채색 화법에 한계가 있지만, 《화성전도》는 수원화성을 비롯해 칠보산 등 수원의 다양한 전경이 붓으로 표현되어 수원화성 지형의 입체적 정보전달과 회화의 미감(美感)을 전달한다.

《화성전도》의 산수는 정조의 농업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정조는 수원화성이 개혁의 시범도시가 되도록 실학자들의 선진적 구상과 연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으로 입안하여 여러 개혁적 시책을 시행하였다. 실학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영시범농장을 설치하고 선진적 영농기법을 적용하는 실험도 행해졌다. 1795년 수원화성 북쪽에 관개 시설을 갖춘 만석거(萬石渠) 저수지를 축조하고 인근에 드넓은 대유평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협동 농업을 운영하는 등의 선구적인 농업진흥책을 실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고무되어 1798년 만년제(萬年堤)와 1799년 축만제(祝萬堤) 저수지 축조 및 인근의 둔전 경영으로 확대되었다.³⁰ 《화성전도》에는 만석거 등 새로운 개혁도시 건설과 농업정책이 실현된 수원화성의 전경이 담겨졌다.

30 이만식, 2014, 『개혁을 위한 승부수, 화성』, 『조선 근본의 땅, 경기』, 경기도박물관, 71쪽.

(1) 6폭 병풍

6폭 병풍은 수원화성 축성 이후에 제작된 병풍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8세기 말~19세기 초로 추측된다. 수원화성은 2~4폭에 그려졌고, 1폭·5폭·6폭은 성곽 주변 넓은 산수가 그려졌다. 1폭에는 현릉원이 위치한 화산 능선과, 황구지천이 그려졌으며 5폭과 6폭은 성 밖 수원유수부의 산수가 묘사되었다.



〈사진 14〉 수원화성 항공사진



〈그림 28〉 《화성전도》 6폭 병풍

《화성전도》(〈그림 28〉)와 항공에서 찍은 수원화성(〈사진 14〉) 전경을 비교해 보면 화원들이 실경을 묘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폭과 6폭의 위쪽 부분은 수원화성에서 만석거, 지지대까지의 길을 그렸고, 아래쪽 부분은 장안문에서 광교산까지의 길을 그렸다. 산수는 서울에서 장안문으로 통하는 원행로 곧 지금의 1번 국도를 중심선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걸쳐 전체적으로 그려졌다. 6폭에는 지지대고개에서 서쪽의 칠보산과 동쪽의 광교산이 만나는 지점이 있고, 아래쪽은 장안문에서 광교산까지의 모습이다. 화홍문으로 흐르는 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2~4폭은 성곽 건축물과 함께 팔달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고, 팔달산 뒤편에는 숙지산이 그려져 있다. 성곽과 건물의 세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주변의 산세와 지형도 잘 표현되어 있다.

《화성전도》는 의궤의 〈화성전도〉보다는 남북으로 훨씬 확장된 광역의 공간을 담고 있으면서 산수의 회화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화성행행도〉처럼 특정 건물이 부각된 것이 아닌 수원화성 주변 산과 건축물들이 확장되어 그려졌다. 그래서 《화성전도》의 산수 표현으로 수원화성의 지리적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다.

(2) 12폭 병풍

12폭 병풍은 수원 행행과 함께 수원화성 전경이 표현되었다. 6폭 병풍에는 없지만 12폭 병풍에는 지지대고개부터 화성행궁까지의 행렬과 화서문 앞 군사훈련, 연무대 사연도 장면이 있다. 또한 성곽 내외부의 주요 건축물과 성곽 시설물에 상세하게 명칭을 적었다. 《화성전도》는 화폭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상단에 팔달산 위의 서장대를 과장되게 크게 부각시켜 주제를 드러냈으며 중, 하단에는 도시의 내부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³¹ 그림 속 행사장면은 3곳으로 구별되는데 장안문과 화서문 사이의 성벽 바깥쪽 지역, 지지대고개부터 장안문까지 지역, 그리고 동장대 지역이다. 이것은 이 도시 그림의 제작 목적이 단순히 도시의 풍광과 구조를 전해 주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 왕권의 강화와 통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6폭 병풍은 수원화성 전

31 한동수, 2017, 「세계유산 수원화성-〈화성도〉를 통해 본 도시 공간의 인식과 표현」, 수원화성박물관.

경이 그려진 회화식 지도이지만 12폭 병풍은 군사훈련을 비롯한 행사장면과 인물들이 함께 전경과 그려져 기록화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

산수의 표현에서 6폭 병풍과 12폭 병풍이 다른 부분은 화폭에 그린 산수 비율과 표현화법의 차이이다. 12폭 병풍의 산수는 6폭 병풍의 산과 비교하였을 때 수묵담채풍이며, 6폭 병풍의 청록채색보다 연하고 맑게 채색되었다. 한 가지 채색으로 먹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였고, 색은 청록 산수보다 노노톤에 가깝다. 하지만 산에 미점을 찍고, 세필로 산의 주름을 그려 회화적 표현이 더해졌다. 두 병풍의 크기는 6폭 병풍에 비해 12폭 병풍이 6폭이 더 많지만, 12폭 병풍의 한 폭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6폭 병풍보다 좁고 작아 산봉우리 간격이 더 좁게 표현되었다. 산수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6폭 병풍은 먹의 농도를 이용해 산의 윗부분은 가는 필선으로 아랫부분은 농묵을 사용해 마무리되었고, 일정한 선으로 윗부분은 연하게 아랫부분은 진하게 묘사되었다. 반면 12폭 병풍은 19세기 후반 <경기감영도>(<그림 30>)처럼 미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2폭 병풍의 제작연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수 표현이 19세기 제작된 궁중기록화인 <경기감영도>와 비교할 때 영향관계가 나타난다.

<경기감영도>는 조선시대 회화에서 그 사례가 없을 만큼 새로운 형식으로, 폭 4m가 넘는 대형 12폭의 병풍 그림이다. 화면의 갈색조 변색과 굵힌 소산으로 미루어볼 때, 이음새 없는 중국 화선지에 그린 듯하며 19세기 후반 고종 시절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대문 북쪽으로 펼쳐진 도성 자락 산세를 배경 삼아 감영의 건물들과 그 주변을 실재감 있게 담은 점은 19세기 중엽 1828~1830년경의 <동궐도>를 떠올리게 한다. 산수풍경과 어울려 대작이 주는 울림이 큰 그림이다. 특히 미점과 진한 먹 터치로 표현한 인왕산 산세의 주름과 깊이감이 좋다.³² 모두 산과 언덕을 진채가 아닌 담채로 처리하였고, 미점이 능선을 따라 모여 있어 명암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경기감영도>의 산수 표현은 <화성전도> 12폭 병풍의 표현과 비슷하다.(<그림 29>, <그림 30>)

32 이태호, 2017, 『서울산수』, 월간미술, 257~258쪽.



〈그림 29〉 《화성전도》 12폭 병풍 산수 부분



〈그림 30〉 《경기감영도》 산수 부분



〈그림 31〉 《화성전도》 6폭 병풍 산수 부분



〈그림 32〉 《화성전도》 12폭 병풍, 산수 부분

6폭 병풍과 12폭 병풍을 비교해 보면 구도, 배치, 화성성곽, 산수 형태는 같지만 표현하는 화법이 다르다. 6폭 병풍은 산과 언덕에 담목과 농목으로 표현되었고, 12폭 병풍은 능선을 따라 미점을 더해 입체감을 주었다.

《화성전도》의 6폭과 12폭의 산수 표현은 준법, 채색 등이 다르지만 김홍도 진경산수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김홍도 진경산수화법의 특징인 나뭇가지의 표현, 사선으로 흐르는 산의 능선, 실경감을 살린 산과 언덕의 필선, 암벽의 각이 진 주름 표현, 정형화된 산수에서 벗어난 사생표현 등이 《화성행행도》, 의궤도, 〈한정품국〉, 〈서성우렵〉에서 나타나며 이후 〈화성전도〉 병풍까지 계승되었다. 김홍도의 진경표현은 동료인 이인문, 이명기를 비롯해 신윤복, 김득신, 김석신, 이유신, 임득명, 이의양, 김양기, 이재관, 이수민, 조정규, 김하중, 유운홍, 엄치옥, 이한철, 백인배, 유숙 등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도화서 출신 화가들에게까지 그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김홍도의 진경을 해석하는 의도나 사상보다 표현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쳤으므로 말기 화단에 부상한 김정희 화파나 김수철 그리고 장승업에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일반화되어 유지해 온 김홍도의 화맥은 근대 회화에서 실경산수가 부여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19세기 말에도 화원들은 궁중기록화의 산수 표현에 김홍도의 진경산수를 계승하였고, 이러한 계승은 20세기까지 이어졌다.³³

5. 맺음말

지금까지 정조대 궁중기록화 중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산수의 기법과 사실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산수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으로는 《화성행행도》,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한글채색본 『덩니의궤』 도설, 《화성춘추팔경도》, 《화성전도》 등의 궁중기록화가 남아 있다.

궁중기록화의 사실성과 다양한 회화기법은 수원화성 관련 산수 표현에서 잘 나타났다. 차비대령화원들은 실경을 바탕으로 검재 정선과 심사정, 강세황, 조영석 등의 진경산수화풍을 계승하여 다양한 진경산수화를 궁중기록화에 표현하였다. 《화성행행도》와 의궤 그림에 표현된 수지법, 바위준법, 먹의 농도 변화, 담채, 소나무 표현들이 김홍도와 이인문, 김득신의 진경산수화법이다. 궁중기록화의 산수는 실경을 바탕으로 묘사되었는데, 그림의 산수와 실경을 비교해 보면 산수와 실경이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실경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은 실경의 실감을 최대한 살려 재현되었다.

《화성행행도》는 을묘년(정조 19) 정조의 수원행행을 그린 도병으로, 산수는 행사가 열린 수원화성과 지지대고개-시흥행궁 원행로의 실경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화성행행도》에서 산수가 표현된 그림은 〈화성성묘전배도〉, 〈서장대성도조〉,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이다. 〈화성성묘전배도〉는 향교가 위치한 팔달산, 〈서장대성도조〉는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과 성곽 주변 산수, 〈환어행렬도〉는 수원 지지

33 이태호, 2017, 『서울산수』, 월간미술, 431쪽.

대고개-시흥행궁까지의 산, 들, 강, 〈환어행렬도〉는 한강과 용양봉저정의 주변 산들이 진경산수화로 표현되었다.

수원행행과 수원화성축성을 판화로 새긴 정조대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도설, 한글본 『덩니의궤』 채색삼화는 이전 의궤 그림에 비해 산수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의궤의 산수 표현에 리듬감 있게 사생된 묵선묘, 판화에 새긴 강한 부벽준, 풀과 주름을 묘사한 피마준, 미점 등 다양한 김홍도의 진경산수법이 의궤에 발휘되었다. 을묘년 수원행행과 수원화성축성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삼입된 그림에는 시설물과 함께 수원화성 실경산수가 도식화되었다.

《화성춘추팔경도》는 정조의 지시로 수원화성의 춘추 절경을 담고자 김홍도가 제작하였다. 현재 〈서성우렵〉, 〈한정품국〉이 남아 있으며 실경과 비교해 보면 한 시점으로 수원화성 주변 절경들을 그림에 배치하였고, 김홍도의 대표적 화법인 암벽의 절대준, 먹의 농도 변화, 암벽의 원근감 등이 잘 나타난다.

《화성전도》는 수원화성과 성 밖의 넓은 경작지와 저수지, 그리고 수원 산천 등 수원유수부의 전경이 6폭과 12폭 병풍에 부감법으로 그려져 수원화성의 지형정보 전달 역할뿐만 아니라 회화의 미감(美感)을 제공한다.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은 공통적으로 김홍도 진경산수화풍과 이인문, 김득신의 진경산수화풍이 함께 나타났다. 김홍도는 수원화성 관련 궁중기록화를 총 감독하면서 병풍, 의궤 등 궁중기록화의 절정을 만들어냈다. 차비대령화원들의 진경산수화풍은 궁중기록화 산수에 접목되면서 궁중기록화는 더욱 회화적으로 발전되었고, 다양해졌다. 그리고 수원화성 실경산수를 통해 차비대령화원들은 진경산수화뿐만 아니라 정조의 이상도 함께 궁중기록화에 구현하였다. 정조의 정치적 이상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 수원유수부 백성들과 화합이 수원화성 실경에 담겨졌다.

이처럼 궁중기록화에 표현된 수원화성 산수는 실경의 사실성 전달에 뿌리를 두고 진경산수화법을 통해 기록화에 재현되었고, 수원화성이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궁중기록화의 진경(眞景)을 통해 이뤄졌다.

투고일 2020년 4월 30일 심사일 2020년 5월 21일 ~ 6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2일

참고문헌

1. 원본

『正祖實錄』, 『日省錄』, 『弘齋全書』, 『華城城役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純祖實錄』.

2. 단행본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이태호, 2010, 『옛 화가들은 우리땅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박정혜 · 윤진영 등, 2011,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유홍준, 2013,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3』, 놀와.

김준혁, 2017,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이루어진 대동의 도시』, 더봄.

박해운, 2017, 『한국의 팔경도』, 소명출판.

이태호, 2017, 『서울산수』, 월간미술.

이태호, 2019, 『이야기 한국미술사』, 마르니에북스.

3. 논문

이달호, 2003, 「수원화성 건설」,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경, 2008, 「정조시대 관관본 관화연구」, 『미술사연구』 20, 미술사연구회.

노재현 외, 2010, 「수원화성 용연과 화홍문 일곽의 원형경과 탐색」, 『한국조경학회지』 제38권 2호, 조경학회.

정해득, 2013, 「정조의 수원 園幸路와 그 성격」, 『서울학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조성우, 2013, 「'水原城郭復元淨化事業' 研究」,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동민, 2014, 「수원팔경의 확정과 전개-이원규의 '수원팔경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팔경 문화 수원팔경』, 수원박물관.

이민식, 2014, 「개혁을 위한 승부수, 화성」, 『조선 근본의 땅, 경기』, 경기도박물관.

유재민, 2016, 「정조대 궁중회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왕무, 2017, 「정조대 시흥 원행로 조성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동수, 2017, 「세계유산 수원화성-〈화성도〉를 통해 본 도시 공간의 인식과 표현」, 수원화성 박물관.

4. 도록

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12, 『眞景時代繪畫大展 潤松』, 繪畫 五十三, 逝去50週忌 記念.

국립중앙박물관, 2016,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수원화성박물관, 2017, 『정조대왕의 수원행차도』.

요 약

정조대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궁중기록화는 《화성행행도》, 『원행을묘정리의궤』·『화성성역의궤』·『덩니의궤』 도설, 《화성춘추팔경도》, 《화성전도》가 있다.

《화성행행도》는 1795년(정조 19) 정조의 수원행행을 행사주제에 따라 8폭으로 제작한 병풍이다. 이 중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와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에서 수원향교와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 수원화성 성곽, 원행로의 주변 산과 들, 바위, 나무 표현이 차비대령화원인 김홍도와, 이인문, 김득신의 진경산수화풍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 『덩니의궤』는 을묘년 정조의 수원행행과 수원화성 축성현장 배경 산수가 도설에 표현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산수는 〈알성도〉, 〈서장대성조도〉, 〈한강주교환어도〉를 판화로 새겨 《화성행행도》와 밑그림이 같지만, 간략한 산수 표현에 목각 선이 굵으며 강하다. 『화성성역의궤』와 『덩니의궤』는 〈화성전도〉, 〈영화정도〉, 〈행궁전도〉, 〈성신사도〉, 〈방화수류정도〉, 〈남지도〉, 〈영화역도〉 등에서 수원화성 산수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산과 바위, 나무 표현에 김홍도의 산수화풍이 뚜렷이 나타난다. 하지만 『덩니의궤』는 채색본으로 판화보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담채와 진채로 처리한 밝고 화려한 산수화풍으로 그려졌다.

수원화성 전경도류의 산수화 병풍으로는 《화성춘추팔경도》, 《화성전도》 등이 전한다. 김홍도의 《화성춘추팔경도》 가운데 현존하는 그림은 〈한정품국〉, 〈서성우렵〉 두 점이다. 김홍도가 단일시점과 절대준, 수지법으로 수원화성의 봄과 가을의 8경 산수인 서장대와 팔달산, 성 밖 넓은 들판을 표현하였다. 두 그림은 김홍도의 묘사력이 훌륭한 걸작이다.

《화성전도》는 정조대 수원화성 완공 후 다수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제작된 6폭 병풍과 19세기에 제작된 12폭 병풍이 남아 있다. 6폭 병풍과 12폭 병풍은 채색과 필선의 표현기법이 다르지만 두 병풍의 세밀한 준법은 김홍도의 계승으로 보인다.

정조대 수원화성 관련 궁중기록화의 진경산수화는 을묘년 수원행행의 장소였던 수원향교와 서장대가 위치한 팔달산, 수원화성 성곽, 원행로 주변의 산수와 화성 축성으로 완공된 성 밖 축만제, 만석거, 수원천을 비롯하여 광교산, 칠보산 등 수원 화성 실경이 바탕이다.

수원화성 실경이 차비대령화원들의 회화관을 통해 재해석되어 진경산수화로 거듭나면서 궁중기록화의 산수 표현은 정조대 절정을 맞았다. 아름다운 수원화성 실경과 정조의 수원화성 축성에 대한 이상은 차비대령화원들이 진경산수화로 궁중기록화에 실현하면서 수원화성이 조선 후기 이상도시로 그림에 남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수원화성, 정조, 궁중기록화, 김홍도, 차비대령화원, 진경산수화, 실경산수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the Landscape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 Court Documentary Painting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Choi In-young

Representative court documentary paintings that depict the landscape of Suwon Hwaseong Fortres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clude *Hwaseong Henghaeng-do* (King Jeongjo's visit to Hwaseong Fortress); the illustrations and descriptions in *Wonhaeng Eulmyo Jeongri Uigwe* (60th birthday feast for Lady Hyegyong, King Jeongjo's mother), *Hwaseong Seongyeok Uigwe* (records of Hwaseong Fortress construction) and *Dyeongni Uigwe* (or *Jeongni-uigwe*, records of Lady Hyegyong's birthday and King Jeongjo's royal trips); *Hwaseong Chunchu Palgyeong-do* (eight beautiful sceneries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 spring and autumn); and *Hwaseong Jeondo* (map of Suwon Hwaseong Fortress).

Hwaseong Henghaeng-do is an eight-panel folding screen, created in 1795 (the 19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to depict King Jeongjo's visit to Suwon Hwaseong Fortress for eight different events. Among the paintings on the folding screen, *Hwaseong Seongmyo Jeonbae-do* (華城聖廟展拜圖), *Seojangdae Seongjo-do* (西將臺城操圖), *Hwaneo Haengnyeol-do* (還御行列圖) and *Hangang Jugyo Hwaneo-do* (漢江舟橋還御圖) portray Paldal Mountain with *Hwaseong Hyanggyo* (Confucian school) and *Seojangdae* command post; Suwon Hwaseong Fortress; and the mountains, fields, and trees surrounding the route King Jeongjo took during his royal trips, while featuring the true-view landscape painting style of *chabidaeryeong* painters (members of *Dohwaseo*, Korean Royal Academy of Painting) such as Kim Hong-do, Yi In-mun and Kim Deuk-sin.

The illustrations and descriptions in *Wonhaeng Eulmyo Jeongri Uigwe*, *Hwaseong Seongyeok Uigwe* and *Dyeongni Uigwe* present the landscapes regarding King Jeongjo's royal trip in 1795 (the year of *Eulmyo*) and the construction site of Suwon Hwaseong Fortress. *Wonhaeng Eulmyo Jeongri Uigwe* has drawings based on the same rough sketch as that of *Hwaseong Haenghaeng-do*, however the landscape on *Alseong-do*, *Seojangdae Seongjo-do* and *Hangang Jugyo Hwaneo-do* is more simply expressed with thick and strong lines by using woodblock printing.

Hwaseong Jeondo, *Yeonghwajeong-do*, *Haenggung Jeondo*, *Seongsinsa-do*, *Banghwasuryujeong-do*, *Namjido* and *Yeonghwayeok-do* in *Hwaseong Seongyeok Uigwe* and *Dyeongni Uigwe* have the landscape of Suwon Hwaseong in their background, and Kim Hong-do's landscape painting style is clearly visible in the expressions of mountains, rocks, and trees. *Dyeongni Uigwe*, however, is a colored painting, and was painted in a bright and ornate landscape painting style, treated with more diverse thin/deep colors than artworks of woodblock printing.

Hwaseong Chunchu Palgyeong-do and *Hwaseong Jeon-do* are folding screens bearing landscape paintings of the sceneries of Suwon Hwaseong Fortress. As for now, only two artworks, *Hanjeong Punguk* and *Seoseong Uriyeop*, among Kim Hong-do's *Hwaseong Chunchu Palgyeong-do* have remained. Kim Hong-do expressed the eight most beautiful sceneries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 spring and autumn, such as *Seojangdae*, *Paldal Mountain*, and wide fields outside the fortress, using the single viewpoint, folded-strap texture strokes (折帶皴), and the tree drawing technique (樹枝法). The extant two paintings are widely regarded as Kim Hong-do's masterpieces.

A number of *Hwaseong Jeondos* (map of Suwon Hwaseong Fortress) was produced after the completion of Suwon Hwaseong Fortress during the era of King Jeongjo; however, a 6-frame folding screen produced in the late 18th-early 19th century and a 12-frame folding screen produced in the 19th century are left at present. The 6-frame folding screen and the 12-frame folding screen

show different coloring and brush line expression techniques. Yet, the detailed techniques of the two folding screens seems to have followed Kim Hong-do's painting style.

Among court documentary painting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related to Suwon Hwaseong Fortress depict actual sites and landscapes such as *Paldal* Mountain with *Hwaseong Hyanggyo* and *Seojangdae*; walls of Suwon Hwaseong Fortress; sceneries surrounding the royal route of King Jeongjo; *Chukmanje* reservoir, *Manseokgeo* reservoir, and Suwon stream outside the fortress; *Gwanggyo* Mountain; and *Chilbo* Mounta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in court documentary paintings reached its peak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s the actual views of Suwon Hwaseong were reinterpreted and born again into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y *chabidaeryeong* painters. As the beautiful actual views of Suwon Hwaseong and King Jeongjo's vision for the construction of Suwon Hwaseong Fortress were embodied in court documentary paintings in the form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y *Chabidaeryeong* painters, Suwon Hwaseong was left in the paintings as an ideal ci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era.

Key words : Suwon Hwaseong, King Jeongjo, Court Documentary Painting,
Kim Hong-do, chabidaeryeong painter, true-view landscape painting,
actual views of Suwon Hwaseong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연구

: 인적 구성과 민사·형사소송사건 추이를 중심으로*

전병무**

1. 머리말
2. 수원지청의 설치와 변화
3. 수원지청의 조직과 인적 구성
4. 수원지청의 민사·형사소송사건 추이
5. 맺음말

1. 머리말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치기구를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통치기구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일제하 교통과 상업의 주요 도시인 수원에도 검찰과 법원, 즉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것이 바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었다. 수원지청은 대체로 수원, 용인, 안성, 진위, 광주의 5군의 사건과 인접한 여주지청의 예심사건을 관할하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며 발생했던 각종 민사·형사사건을 취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 민중의 일상사는 물론 독립운동사건까지 일제하 수원 지역의 사회상이 숨김없이 반영된 현장이 재판소였다.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8년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Institute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mail : bmjeon63@hanmail.net, Tel : 010-9813-79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9년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되었으므로 수원의 법원사(法院史)라는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시점이다. 이에 이 글은 수원지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실증적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수원지청의 연혁, 법원 조직과 인적 구성, 민사·형사소송사건 추이 등을 중점적으로 밝힐 것이다.

자료는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1910~1943년),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를 이용하여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역대 판사와 검사 명단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개인의 경력 및 이력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와 각종 회고록을 적극 활용하여 판사·검사 개인 신상정보를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0~1945년)를 이용하여 수원지청의 민사·형사소송사건 추이 등을 정리하고,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수원(水原)』, 조선총독부의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기일(其一) : 수원군(水原郡)』 등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역사적 실체가 조금이나마 해명되어,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수원지청의 설치와 변화

수원지청의 연혁은 대한제국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실질적으로 개설되어 사무를 보기 시작한 통감부 시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는 통감부 시절 ‘시정개선’의 미명 아래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을 공포하여 구재판소(區裁判所),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공소원(控訴院), 대심원(大審院) 등 4급 3심을 설치하도록 하였다.¹ 이에 대심원은 한성부에, 공소원은 한성부, 평양, 대구의 3곳에, 지방재판소는 한성부, 공주, 평양, 대구, 광주 등 8개소에, 구재판소는 한성부, 인천, 원주, 수원 등 전국 112개소에 두기로 하였다. 그런데

1 법원행정처, 1995, 『법원사』, 47~49쪽.

각급 재판소가 규정대로 일시에 전부 개설된 것은 아니었다. 대심원, 공소원, 지방 재판소는 모두 예정대로 개설되었으나, 전국의 구재판소 112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무리였다. 그리하여 1908년 8월 1일에 우선 한성부, 인천, 원주, 공주, 충주, 함흥, 원산, 종성, 평양, 해주, 대구, 진주, 부산, 광주, 전주, 제주 등 16개 지역에만 구재판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구재판소 사무는 관할 지방재판소나 먼저 개설된 인근 구재판소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원구재판소는 1909년 1월 26일 법무고시 제5호에 의해 2월 1일 개청하였다.² 1909년 10월 통감부는 구한국의 사법권을 일본정부에 위임한다는 이른바 ‘기유각서(己酉覺書)’에 따라 재판 관련 법 일체를 폐지하고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기왕의 모든 재판소를 통감부재판소로 변경하였다. 이때는 이미 수원구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감부 수원구재판소로 변경되었다.

1910년 일제는 조선 강제병합과 함께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기존 통감부 재판소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통감부의 수원구재판소는 조선총독부 수원구재판소로 개칭되었다. 관할구역은 수원, 과천, 시흥, 안산, 남양, 광주, 용인, 양지, 진위, 양성, 안성, 죽산 등이었다. 1912년 3월 일제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해 종래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의 4급 3심 재판제도를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급 3심제로 변경하였다.³ 또한 지방법원사무일부를 취급하기 위해 지방법원지청을 두는 형식으로 법원조직의 정리를 단행하였다. 이때 수원구재판소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적용할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등의 제령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이른바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골격을 마련하였다.⁴ 1912년에 정립된 총독부재판소체제는 1944년 2월 제정된 ‘조선총독부재판소령전시특례’에 의해 항소심 없는 2심제가 시행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 『관보』, 1909년 1월 28일.

3 조선총독부 법무국, 1935, 『朝鮮の司法制度』, 17~18쪽.

4 문준영,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442~446쪽.

1912년 사법제도 개편의 목적은 사법기구 축소, 절차 간소화, 경비 절감 등에 있었다. 우선 기존의 지청 중 8개소, 재판소지부 12개소가 폐지되었다. 사법기구의 축소는 인원정리가 동반되었다. 예컨대 판사 인원은 1910년 254명이었는데 1913년에는 19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조선인 판사의 경우 1910년 71명에 1913년 2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5개 지청이 폐지되었다. 이때 수원지청의 관할구역은 수원, 광주, 용인, 진위, 안성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수원지청은 약간의 관할구역 등의 변경이 있었지만, 일제하 대체로 수원, 용인, 안성, 진위, 광주의 5군과 인접한 여주지청의 예심사건 등을 관할하였다.

다음으로 수원지청의 건물 연혁을 살펴보겠다. 통감부 수원구재판소의 건물은 화성행궁의 부속 건물인 이아(貳衙)를 중·개축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⁵ 이아는 원래 감영이 설치된 지역의 군무(軍務)를 맡아보는 관아로 부아(府衙), 또는 이아(貳牙)라고도 하였다. 통감부 구재판소 시절에는 대체로 이아 건물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조선총독부 수원구재판소 시절에 임시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했다. 그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바뀐 뒤, 1920년 4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이청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이전하였다.⁶ 주소는 수원군 수원읍 신평정(新豐町) 221번지였다.

3. 수원지청의 조직과 인적 구성

1) 조직과 정원

일제하 법원은 현재의 법원과는 다른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검찰이 재판소에 병치(竝置)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9조 1항은 “재판소에 검사국을 병치한다.”고 규정하였다.⁷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

5 이동근, 2008,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華城」, 『수원학연구』 5, 146~147쪽.

6 『동아일보』, 1920년 4월 17일.

7 朝鮮總督府 編纂, 1932, 『現行 朝鮮法令輯覽』 제1권, 朝鮮行政學會, 179~182쪽.

등법원에는 검사국(檢事局)을, 지청에는 검사분국(檢事分局)을 병치한다는 것이다. 마치 검사국이 재판소의 부속기관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재판소와 검사국은 전혀 독립된 별개의 관청이었다. 그래서 검사국은 “조선총독의 관리(管理)에 속하고 조선에서의 검찰사무를 관장한다.”(제9조 2항)라고 규정하였다. ‘관리’라는 용어는 총독에 ‘직속’하는 총독부재판소에서 검사국은 총독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튼 검사국은 재판소 내에 병치되었던 것이 일제하의 현실적 법률적 특징이다.

〈표 1〉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조직과 인원

연도	재판부(裁判部)	검사분국(檢事分局)	서기과(書記課)
1910~1919	판사 3인	검사 1인	서기 및 통역생 5~7인
1920~1945	판사 2인	검사 1인	서기 및 통역생 5~7인

출전: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1910~1943년);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조직은 재판부(예심, 민사, 형사), 검사분국, 서기과로 이루어졌다. 인원은 19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1919년부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는 1919년 8월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부임한 뒤 실시한 사법의 인적 쇄신과 경비절감을 위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⁸ 당시 사이토는 일본 본국의 동향에 발맞춰 조선에서도 판사정년제를 실시하는 등 인원과 기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비절감 과정에서 수원지청의 판사도 3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1932년에는 일본 본국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라 인천지청, 여주지청 등 8개 지청이 폐지되기도 하였다.⁹ 전체 판사·검사의 인원은 193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¹⁰ 그러나 수원지청은 지청인 관계로 판사 인원이 회복되지 못한 것 같다.

서기과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서기 및 통역생 5~7인이 있었고 다수의 고원(雇

8 문준영,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68쪽.

9 전병무, 2012,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폐지반대운동 연구」, 『인천학연구』 16, 참조.

10 전병무, 2012,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34~237쪽.

員)들도 있었다. 1936년 12월 현재 수원지청 서기는 일본인 4인, 조선인 3명(洪萬基, 李弼斌, 李善宰)이었고, 고원은 조선인과 일본인 총 18명이 있었다.¹¹

2) 판사·검사의 이력 및 특징

일제하 1910년부터 1943년까지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 부임했던 판사 또는 검사의 명단은 우선 『조선총독부급소속판서직원록』을 통해 정리하고, 1944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총독부관보』를 이용해 보충하였다.¹² 이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원지청의 판사·검사를 역임한 명단

연도	판사	검사
1910	大宅伊敏, 北條久清, 沈遠明	缺
1911	大宅伊敏, 北條久清, 沈遠明	缺
1912	四位義正, 管友次郎, 權泰鎔	北村直甫
1913	四位義正, 田中芳春, 權泰鎔	北村直甫
1914	四位義正, 田中芳春, 權泰鎔	北村直甫
1915	四位義正, 大宅伊敏, 洪承瑾	北村直甫
1916	四位義正, 大宅伊敏, 洪承瑾	北村直甫
1917	四位義正, 大宅伊敏, 李煥奎	北村直甫
1918	大宅伊敏, 伊藤孫太郎, 李煥奎	北村直甫
1919	大宅伊敏, 有澤作治	北村直甫
1920	大宅伊敏, 白允和	北村直甫
1921	大宅伊敏, 白允和	缺
1922	奧田勝太郎, 蔡奎明	千綿榮六
1923	石村義太郎, 姜哲模	早田福藏
1924	尾家仁六, 姜哲模	橋本恒五郎
1925	尾家仁六, 崔昌烈	松崎三男
1926	尾家仁六, 崔昌烈	松崎三男

11 司法協會, 1936, 『裁判所·刑務所』, 『朝鮮司法關係者名錄』, 14~15쪽.

12 다만 『조선총독부급소속판서직원록』(1910~1943년)은 해당 연도 특정 월을 기준으로 당시 수원지청에서 근무하던 판사와 검사를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부임연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도	판사	검사
1927	尾家仁六, 金世玩	大森徳次郎
1928	中澤金吾, 金世玩	大森徳次郎
1929	中澤金吾, 金世玩	高木陸雄
1930	中澤金吾, 金世玩	寺田克己
1931	中澤金吾, 金世玩	寺田克己
1932	黒岩覺一, 金世玩	寺田克己
1933	黒岩覺一, 姜信奎	香川愿
1934	黒岩覺一, 姜信奎	香川愿
1935	黒岩覺一, 金鍾錫	中村尙久
1936	竹石徳太郎, 金鍾錫	中村尙久
1937	竹石徳太郎, 金鍾錫	平石林
1938	古口文平, 金鍾錫	靑柳五郎
1939	古口文平, 金鍾錫	靑柳五郎
1940	古口文平, 金鍾錫	長井省吾
1941	久保田源一, 金鍾錫	長井省吾
1942	高野彌一郎, 金鍾錫	長井省吾
1943	高野彌一郎, 金鍾錫	長井省吾
1944	高野彌一郎, 姜信奎	宮崎忠義
1945	高野彌一郎, 姜信奎	宮崎忠義
합계	일본인 16명, 조선인 11명	일본인 14명

일제하 수원지청의 판사를 역임한 조선인은 11명, 일본인은 16명이고, 검사를 역임한 조선인은 없고 일본인은 14명이다. 우선 조선인 11명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이들의 이력과 경력을 정리하는 데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와 전병무의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부록 1,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의 주요 이력〉 등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¹³

심원명(沈遠明, 1872~?)은 경기 출신으로, 학력은 가학(家學)이다. 이후 관력은 다음과 같다. 외부(外部) 견습생(1903. 4), 덕원감리서 주사(1904. 4), 평양감리서 주사(1904. 8), 무안감리서 주사(1905. 8), 법부(法部) 주사(1906. 6), 법부 서기(1906. 6), 해주구재판소 판사(1908. 6), 수원구재판소 판사(1910) 등을 역임하였다. 수원구재

13 이하 내용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주를 달지 않았다.

판소 판사를 의원면직한 후 1912년 4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¹⁴ 1936년 12월 현재 수원군 수원읍 남창정 215번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¹⁵

권태전(權泰銓, 1887~?)은 경북 안동 출신이다. 학력은 관립한성일어학교(1906. 6)를 졸업하였다. 이후 외국어학교 부교관(1906. 6), 휘문의숙 교사(1906. 9), 평리원 주사(1906. 12), 경성지방재판소 서기(1908), 경성구재판소 판사(1910),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판사(1912), 경성지방법원 판사(1915), 해주지방법원 검사(1916) 등을 역임하였다. 1918년 6월 해주지방법원 검사를 의원면직하고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¹⁶

홍승근(洪承瑾, 1888~1935)은 서울 출신이다. 학력은 관립한성일어학교(1907. 3)를 졸업하였다. 이후 법무 법률기초위원(1907. 4), 법무 형사국 번역관 및 서기관(1908), 경성구재판소 검사(1909. 11), 부산지방법원 검사(1912. 4), 경성지법 춘천지청 검사(1912. 12), 경성지법 판사(1913. 7),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15. 4), 광주지법 검사(1916. 5), 대구복심법원 검사(1918.10), 대구지법 검사(1921. 4), 광주지법 전주지청 검사(1921. 8), 광주지법 목포지청 검사(1923. 2), 전주지법 군산지청 검사(1930. 12), 평양지법 검사(1934. 7) 등을 역임하였다. 1935년 1월 14일 평양지법 검사 재직 중 사망하였다.¹⁷

이환규(李煥奎, 1877~1941)는 경기 여주 출신이다. 학력은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1908년)를 졸업하였다. 경력은 다음과 같다. 법무 주사(1902. 8), 여주구재판소 판사(1910), 광주지법 순청지청 판사(1914),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17), 경성지법 인천지청 판사(1919) 등을 역임하였다. 인천지청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1922년 9월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1941년 7월 사망하였다.¹⁸

백윤화(白允和, 1893~1956)는 서울 출신이다. 학력은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

14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5월 4일.

15 司法協會, 1936, 『辯護士』, 『朝鮮司法關係者名錄』, 4쪽.

16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4월 25일.

17 『동아일보』, 1935년 1월 17일.

18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 7월 12일.

校, 1915)를 졸업하였다. 이후 부산지법 진주지청 서기(1916), 부산지법 밀양지청 서기(1918), 부산지법 통영지청 판사(1919),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0), 경성지방법원 판사(1922), 경성북심법원 판사(1930), 경성지방법원(1937)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채규명(蔡奎明, ?~?)은 평남 출신이다. 학력은 평양고등보통학교(1915)를 거쳐 경성전수학교(1918)를 졸업하였다.¹⁹ 이후 경력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법 서기(1919), 평양지법 의주지청 서기(1920), 평양지법 신의주지청 및 안주지청 통역생 겸 서기(1921),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2), 평양지법 신의주지청 판사(1922), 부산지법 진주지청 판사(1924) 등을 역임하였다. 1925년 부산지법 진주지청 판사로 재직 중 조선총독부로부터 퇴직을 명받았다. 퇴직 후 그의 행적은 자료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강철모(姜哲模, 1890~1943)는 함남 이원 출신으로 니혼대(日本大) 전문부 법과(1917)를 졸업하였다.²⁰ 이후 경성지법 철원지청 서기(1918), 경성지법 개성지청 판사(1921),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3), 경성지법 인천지청 판사(1925), 경성지법 판사(1928), 전주지방법원 판사(1932) 등을 역임하였다. 1935년 9월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 조선총독부로부터 퇴직을 명받았다. 퇴직 후인 동년 11월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43년 사망하였다.²¹

최창렬(崔昌烈, ?~1926)은 경기 출신이다. 학력은 경성고등보통학교(1917)를 거쳐 경성전수학교(1920)를 졸업하였다.²² 이후 경성지법 서기(1921),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5) 등을 역임하였다. 1926년 수원지청 판사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김세완(金世玩, 1894~1973)은 황해 신천 출신이다. 학력은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1914)를 거쳐 경성전수학교(1919)를 졸업하였다.²³ 주요 경력은 다음과

19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4월 13일 및 1918년 4월 17일.

20 국가기록원 편, 1935, 『변호사인가에 관한 서류』, 685~698쪽.

21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10월 7일.

22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4월 20일 및 1920년 5월 17일.

23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4월 17일 및 1919년 5월 28일.

같다. 황해도 신천공립보통학교 부훈도(1914), 부산지법 서기(1922), 해주지법 재령 지청 서기(1923), 해주지법 서흥지청 서기(1924),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7), 경성지법 판사(1933), 경성지법 인천지청 판사(1935) 등을 역임하였다. 1938년 10월 경성지법 인천지청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동년 11월 경성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해방 전까지 인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심계원장 등을 지냈으며, 1963년 현재 서울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²⁴ 1973년 사망했으며, 유족으로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가로 알려진 김찬삼(金燦三) 교수 등이 있다.

강신규(姜信奎, 1898~?)는 경기 부천 출신이다. 학력은 경성전수학교(1920)를 졸업하였다. 이후 부산지법 서기(1921), 경성지법 춘천지청 서기(1924), 대구지법 안동지청 판사(1925), 평양지법 판사(1927),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33), 공주지법 대전지청 판사(1935), 대전지법 강경지청 판사(1940),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44)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수원지청 판사로 재직 중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수원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1963년 현재 서울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²⁵ 1971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석(金鍾錫, 1899~?)은 충남 공주 출신이다. 학력은 경성전수학교(1915)를 졸업하였다. 이후 공주지법 대전지청 서기(1922. 11), 대구지법 상주지청 판사(1927), 부산지법 마산지청(1928), 경성지법 인천지청(1931), 전주지법 군산지청(1932), 경성지법 수원지청(1935), 대구지법 안동지청(1944)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안동지청 판사로 재직 중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 경성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고 1963년 현재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²⁶ 이후 행적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수원지청 조선인 판사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4 법률평론사편찬위원회, 1963, 『法曹名鑑(1963년판)』, 법률평론사, 75쪽.

25 법률평론사편찬위원회, 1963, 『法曹名鑑(1963년판)』, 법률평론사, 72쪽.

26 법률평론사편찬위원회, 1963, 『法曹名鑑(1963년판)』, 법률평론사, 109쪽.

〈표 3〉 조선인 판사의 주요 이력 통계

학력					전직	
가학	관립일어학교	법관 양성소	경성전수학교	일본 사립대	통감부 판사	법원 서기
1	2	1	6	1	4	7

우선 조선인 판사의 전체 학력은 가학 1명, 관립일어학교 2명, 법관양성소 1명, 니혼대 1명, 경성전수학교 6명이다. 초기 조선인 판사는 법률학교 출신이 드물고 통감부에서 계승된 자들이었다. 이전 직업을 보면 통감부 판검사 출신 4명, 조선총독부 법원서기 출신 7명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심원명, 권태전, 홍승근, 이환규 등인데, 홍승근은 나중에 검사로 전관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백윤화 이하 7명이다. 이들 중기 이후 판사로 부임한 인물들은 당시 조선 유일의 법률전문 학교인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법원서기로 재직 중 판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된 자들이다. 일제는 조선 강제병합 이후 만성적인 사법관 부족에 시달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부터 재판소 서기를 대상으로 판사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여 여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판사로 임용, 승진시켰다.²⁷ 이들은 대체로 승진에 제한이 많았고, 지방법원 지청을 돌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들 7명 대부분은 지청 판사로 퇴직한 것이 그런 사례인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사법고시와 유사했던 고등문관시험(이하 고문)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된 자는 수원지청 조선인 판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만큼 정규자격을 가진 조선인 판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판사 인사방침은 고문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가 된 경우라도 판사 임관 2~3년 내에 그 성적을 평가하여 해당자의 진로를 정하였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인정한 판사는 지청으로 보내 끝내 지청만 돌아다니도록 했고, 성적이 좋다고 인정한 판사는 본청에 두어 장차 간부로 승진시켰던 것이다.²⁸ 결국 수원지청의 조선인 판사는 당시 법원 기준으로 볼 때, 유능한 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전병무, 2012,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57~58쪽.

28 고재호, 1985, 『法曹半百年』, 박영사, 172쪽.

수원지청의 조선인 판사로 장기간 근무했던 김종석(8년), 김세완(6년) 등이 주목된다. 그런데 김종석의 경우 1963년 현재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실 이외에는 더 이상 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안타깝다. 김세완의 경우는 해방 이후에 대법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수원과 관련한 다양한 일화를 남겼다. 첫째, 수원지청에 오래 근무하게 되어 지인들이 많이 생겼고, 이들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을 때 피로웠다고 회고하였다.²⁹ 둘째, 일제하 수원의 교육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다.³⁰ 그의 회고록인 『자서전』(미공간)에 따르면, 그는 당시 화성학원(수원상업전수학교 및 수원고등학교의 전신)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담배값 등을 절약하는 한편 ‘화성학원유지회’를 조직하고 90여 명의 인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한다.³¹ 셋째, 김세완은 6.25전쟁 와중에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으로 왔다. 그는 6.25전쟁 발발 전까지 인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6월 28일 아들 김찬삼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였다. 수원 사강리 김선우의 집에 피신했다가 다시 인천 집으로 돌아갔다.³² 황해 신천이 고향인 그가

29 김세완, 「양심과 신뢰의 사법부로 범민정풍운동에 붙이는 격려」, 『동아일보』, 1971년 1월 19일.

30 이승렬, 2014, 「근대의 충격과 수원 유지층의 대응」, 『수원시사』 3권, 504쪽.

31 김세완, 미상, 『자서전』, 18~20쪽, “초저녁 시내를 산보하다가 화성학원 근처에 갔더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데 교사는 초가집이고 유리창문에는 유리 대신에 한지를 달았고 바른 곳보다 바르지 않는 곳이 많아 일견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에 알아보니 연령이 초과된 아동, 낮에는 남에 고용살이를 하는 아동, 그 외 무산아동들을 수용하는 학원임을 알자 그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중 그해 봄 졸업식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였는데, 풍금이라곤 명칭뿐이고 ○도 없는 ○○도 떨어진 풍금으로 졸업찬가에 반주하는 것을 보고 수원을 신봉보통학교의 풍금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이에 느낀 바 있어 그 후부터는 사건으로 출장 시 회로에는 되도록 도보를 하고 출장 중 담배값 등 절약된 돈 1원 내외를 별도로 저금하여 1928년 말경에는 무려 백십여 원이 되어 때마침 서울에 왔다가 정본(釘本)상점에 가서 풍금(야마하 3○○) 가격을 물으니 백이십 원이라 하여 외에 의자 1좌 오 원 계 백이십오 원에 사가지고 집에 와 생각해보니 풍금만 있고 다른 것은 보잘 것이 없어 근본책을 학원당국에 의논하였더니 한 달에 백 원씩만 있으면 선생의 월급과 모든 비용은 무난하리라 하여 당시 화성학원에 유일한 보조자인 홍사훈 씨를 만나 나의 뜻과 풍금구입사실을 말하였더니 동씨는 의외로 생각하며 더욱 조력할 것을 선언하므로 차제에 학원기본금을 축조할 방안을 제시하고 동씨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니 8백 원까지 승낙하므로 그 후부터 45일간 법원에서 귀로에 1개 처, 저녁 후 1개 처, 조반 전 1개 처씩 방문함에 위 홍씨의 기부를 근거로 동정을 구한 끝에 결국 만삼백이십 원에 달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당시 동정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 사람들만으로 조직된 화성흥산주식회사 사장과 증억들에게 부탁하여 위 원금을 맡고 매월 백 원씩만 보조하는 양으로 화성학원에 주어 달라 하여 비교적 고려되었지만 주주총회에서 승낙이 되어 나의 기도의 일단은 끝마치게 되었다. 위 동정하신 분 중에 고차태의 씨, 고 홍사훈 씨 같은 분은 백 원가량 희망하였던 것이 이외에 각 4백 원씩을 동정하시어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 사모치는 바가 있다. 당시에는 불경기 중에도 불경기인 때라 위 돈으로 토지를 샀더라면 학원은 반석 위에 올라섰을 것을 못내 잊어하였다.”

32 김세완, 미상, 『자서전』, 24~25쪽, “수원 사강을 향하던 중 수인선 군지역[현재의 4호선 정왕역] 근처에서

남쪽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제하 수원지청의 판사로 재직할 때 맺은 인적 관계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본인 판사, 검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런데 이들의 이력과 경력을 정리하는 데는 자료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사법대관(朝鮮司法大觀)』(조선사법협회, 19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등 최대한 자료를 모아 정리했지만,³³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먼저 일본인 판사 16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야(大宅伊敏)의 출신과 학력은 알 수 없다. 경력은 다음과 같다. 수원구(水原區)재판소 판사(1910. 10), 광주지법 전주지청 예심판사(1912. 4), 경성지법 수원지청 예심판사(1915. 4), 광주지법 순천지청 예심판사(1921.08) 등을 역임하였다. 1924년 12월 순천지청 판사를 퇴직하였다. 1925년 1월 광주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1935년 5월 광주지법 검사국에 변호사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다.

호조(北條久清, ?~1920)의 출신과 학력은 알 수 없다. 경성지방재판소 서기(1908), 수원구재판소 판사(1910. 10), 경성지법 원주지청 판사(1912. 4), 경성지법 춘천지청 검사(1918. 5) 등을 역임하였다. 1920년 6월 춘천지청 검사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사이(四位義正, 1879~1945)는 미야자키현(宮崎縣) 출신으로, 교토호세이대학(京都法政大學, 1903. 7)을 졸업하였다. 일본 오오츠구(大津區)재판소 서기(1899. 5), 통감부 판사(1909), 인천구재판소 판사(1910. 10),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12. 4), 경성지법 철원지청 판사(1919. 5), 부산지법 진주지청 예심판사(1923. 7), 전주지법 남원지청 예심판사(1932. 2) 등을 역임하였다. 1939년 2월 남원지청 판사를 퇴직하였다. 1939년 4월 대구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1945년 4월 사망으로

많은 피난민들과 같이 저녁식사는 볶은 콩 10원어치를 먹고 노숙하다가 익일 조조에 역시 자전거 공판에 편승하여 사강에 있는 고 김선우 씨 댁에서 은신 중 근처 사람들은 인천서 온 김 판사를 만난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가였을 뿐만 아니라 7월 10일경에는 공산군이 사강에 진주한다는 소문을 듣자 11일 새벽 총성이 자자함으로 부득이 김선우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쌀 한말을 얻어 가지고 동일 조조 동소를 출발 군자역을 향하여 엄섬(어섬(?))에 도착, 주점에서 조반식사를 청하였더니 (중략) 군자역을 거쳐 11일 오후 아홉시경 인천 도착 찬삼아를 통하였더니 처가 마중 나와 무사히 집으로 귀거 이래 9.15인천상륙까지 45일간을 자택골방, 지하실, 근처집 골방으로 전전 피신하던 정황은 지금 생각에도 몸서리가 치는 바이다.”

33 위 3가지 자료군을 제외한 부분만 별도로 각주를 달았다.

대구지법 변호사등록을 취소하였다.

관우차랑(管友次郎, ?~1913)의 출신과 학력은 알 수 없다. 통감부 판사를 거쳐, 부산구재판소 판사(1910), 경성지법 수원지청 예심판사(1912. 4) 등을 역임하였다. 1913년 3월 수원지청 판사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타나카(田中芳春)의 출신과 학력 등은 알 수가 없다. 통감부판사를 거쳐 대구구(大邱區)재판소 판사(1910), 대구지법 판사(1912. 4),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13), 경성지법 부장판사(1915. 4), 고등법원 판사(1920. 8) 등을 역임하였다. 1920년 9월 고등법원 판사를 의원면직하였다.

오쿠다(奥田勝太郎)의 출신과 학력 등은 알 수가 없다. 통감부판사(1908), 전주구 재판소 예심판사(1910. 10), 함흥지법 판사(1912. 4), 함흥지법 회령지청 판사(1916. 10), 공주지법 충주지청 판사(1919. 6), 경성지법 수원지청 예심판사(1921. 8), 경성지법 춘천지청 판사(1922. 7) 등을 역임하였다. 1924년 12월 춘천지청 판사를 퇴직하였다.

이토(伊藤孫太郎)의 출신과 학력 등은 알 수가 없다. 경성지방재판소 서기(1908), 공주구재판소 판사(1910. 10), 평양지법 초산지청 판사(1912. 4), 경성지법 개성지청 판사(1914),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18), 공주지법 서산지청 판사(1919), 공주지법 홍성지청 판사(1922), 해주지법 재령지청 판사(1924) 등을 역임하였다. 1924년 12월 재령지청 판사를 퇴직하였다.

아리사와(有澤作治, 1887~해방)³⁴는 도야마현(富山縣) 출신으로 교토제대(京都帝大) 법과(1913. 7)를 졸업하였다. 이후 경성지법 사법관시보(1913. 9), 경성지법 예비 판사(1914. 11), 대구지법 판사(1916. 2),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18. 8), 공주지법 판사(1919. 7), 청진지법 예심판사(1923. 7), 청진지법 부장판사(1924. 12) 군산지청 판사(1935. 7), 부산지법 마산지청 예심판사(1937. 3), 부산지법 진주지청 판사(1943. 3)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진주지청 판사로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보았다.

이시무라(石村義太郎, 1879~1928)는 후쿠이현(福井縣) 출신으로 메이지대(明治大, 1902. 7)를 졸업하였다. 일본의 판사·검사등용시험(1903)에 합격한 후 일본에서 약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지법 판사(1914. 7)

34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 생존한 인물을 일단 '해방'이라고 표시하였다.

법무국 사무관(1917. 3), 함흥지법 원산지청 예심판사(1919. 5), 경성지법 수원지청 예심판사(1922. 7),³⁵ 부산지법 마산지청 판사(1925. 10) 등을 역임하였다. 1928년경 마산지청 판사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오이에(尾家仁六)의 출신과 학력 등은 알 수가 없다. 부산지법 마산지청 예심판사(1916. 8), 대구지법 예심판사(1918. 6), 광주지법 정읍지청 판사(1921),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4) 등을 역임하였다. 1927년 9월 수원지청 판사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나카자와(中澤金吾, 1878~?)는 나라현(奈良縣) 출신이다. 춘천구(春川區)재판소 판사(1908)로 임용되어 조선으로 건너와 여주구재판소 판사(1910. 10), 공주지법 강경지청 판사(1912. 4), 해주지법 서흥지청 예심판사(1917. 3), 평양지법 신의주지청 예심판사(1920. 12), 대구지법 안동지청 판사(1923),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28), 경성지법 철원지청 판사(1932), 평양지법 안주지청 예심판사(1935. 4) 등을 역임하였다. 1938년 10월 안주지청 판사를 정년퇴직하였다.

구로이와(黒岩覺一, 1876~?)는 사가현(佐賀縣) 출신으로 사가현립중학교(佐賀縣立中學校)를 졸업하였다. 일본의 다케오구(武雄區)재판소 서기(1896. 12)를 지내다가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공소원 서기(1908.12), 사법부 감리과 속(屬, 1914. 1), 고등법원 서기장(1919. 4), 대구지법 김천지청 검사(1921. 8), 공주지법 충주지청 검사(1923), 대구지법 경주지청 검사(1929),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32) 등을 역임하였다. 1936년 2월 수원지청 판사를 퇴직하였다. 1936년 3월 경성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³⁶

다케이시(竹石德太郎, 1894~?)는 도쿄(東京) 출신으로 와세다대(早稻田大) 정치경제학부(1923. 3)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24. 12)에 합격한 후, 도쿄(東京)지방재판소 겸 도쿄구재판소 사법관시보(1925. 3)를 거쳐 니가타(新潟)지방재판소 겸 니가타구재판소 예비판사(1926. 3)를 지내다가 1926년 6월 퇴직하였다. 이후 조선으로 건너와 광주지법 목포지청 판사(1930. 6), 공주지법 충주지청 판사(1932), 신의주지법 판사(1934),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36) 등을 역임하였다.

35 酒井政之助의 『水原』에 기재된 유일한 판사이다.

36 司法協會, 1936, 『辯護士』, 『朝鮮司法關係者名錄』, 2쪽. 당시 주소는 수원읍 신봉정 289번지였다.

1937년 10월 수원지청 판사를 퇴직하였다. 1938년 3월 신의주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호루쿠치(古口文平, 1887~해방)는 도치기현(栃木縣) 출신으로 니혼대(日本大) 전문부(1912. 4)를 졸업하였다. 일본변호사시험(1920. 12)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조선으로 건너와, 부산지방법원 판사(1928. 12), 경성지법 개성지청 판사(1932), 청진지법 판사(1935),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38), 부산지법 마산지청 판사(1941) 등을 역임하였다. 마산지청 판사로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쿠보(久保田源一, 1900~해방)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으로 부친을 따라 조선을 건너와 평양심상소학교(1914)를 졸업하였다.³⁷ 평양지법 안주지청 서기(1921)로 근무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주오대(中央大) 전문부(1927. 3)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28. 10)에 합격한 후, 평양지법 사법관시보(1929. 12)에 임용되어 다시 조선으로 왔다. 이후 평양지법 판사(1932), 해주지법 서흥지청 판사(1936), 경성지법 철원지청 판사(1938), 경성지법 춘천지청 판사(1940. 7), 경성지법 수원지청 판사(1941), 경성지법 부장판사(1944) 등을 역임하였다. 경성지법 판사로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고노(高野彌一郎, 1898~해방)는 도쿄(東京) 출신으로 메이지대 법학부(1923. 4)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25. 12)에 합격하였다. 경성지법 사법관시보(1926. 4), 경성지법 판사(1927. 12), 전주지법 판사(1934. 4), 경성지법 판사(1927. 12), 부산지법 판사(1930. 1), 대구복심법원 판사(1932. 8), 전주지법 예심판사(1934. 4), 경성지법 수원지청 예심판사(1942. 3) 등을 역임하였다. 수원지청 판사로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이어서 일본인 검사 14명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무라(北村直甫, 1876~?)는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으로 니혼대 전문부(1905)를 졸업하였다. 대학 입학 전에 일본의 야마구치(山口)지방재판소 검사국서기(1896. 10)를 하다가 1902년에 퇴직하였다. 다시 도쿄구(東京區)겸 도쿄지방재판소 서기(1902. 9)로 취직하였다. 니혼대를 졸업한 후 조선으로 건너와 평양이사청속(屬, 1906), 부산이사청 경부(1907), 경찰관연습소 교관(1908), 금산구(金山區)겸

37 전병무, 2017, 「일제시기 재조선일본인 사법관시보 연구」, 『해람인문』 44,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190쪽.

대구구재판소 판사(1909. 7), 진주구재판소 검사(1910. 10),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12), 공주지법 강경지청 검사(1920. 5), 함흥지법 원산지청 검사(1924), 전주지법 군산지청 검사(1926. 4) 등을 역임하였다. 1936년 8월 군산지청 검사를 의원면직하였다. 1936년 10월 공주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이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37~1939년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를 겸하였다. 1941년 7월 대전변호사회 소속으로 이른바 사상사건 지정변호사로 지정되었다.³⁸ 1945년 6월 사상사건 지정변호사에서 취소되었다.

치와타(千綿榮六, 1888~?)는 사가현(佐賀縣) 출신으로 도쿄제대(東京帝大, 1915)를 졸업하였다. 이후 부산지법 사법관시보(1915. 12), 광주지법 목포지청 검사(1917. 7), 경성지법 검사(1919),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22), 부산지법 검사(1926), 광주지법 목포지청 검사(1930), 대구복심법원 검사(1932), 공주지법 검사정(1933), 신의주지법 검사정(1934), 광주지법 검사정 겸 광주보호관찰심사회회장(1939), 고등법원 검사(1940), 평양지법 검사정 겸 평양보호관찰심사회회장(1940) 등을 역임하였다. 1941년 10월 평양지법 검사정을 의원면직하였다. 1942년 1월 경성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소다(早田福藏, 1890~해방)는 나가사키현(長崎縣) 출신으로, 도쿄제대(1917)를 졸업하였다. 대구지법 사법관시보(1917. 5), 대구지법 예비판사(1919. 1), 평양지법 검사(1919. 4),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23), 청진지법 검사(1925), 대구복심법원 검사(1929), 전주지법 검사정(1931), 경성지법 검사정(1932), 공주지법 검사정(1936), 부산지법 검사정(1939), 대구지법 검사정(1941), 법무국장 겸 형무관연습소장(1943) 등을 역임하였다. 법무국장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총독을 보좌하여 조선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요 사법정책을 입안하는 기구였다.

하시모토(橋本恒五郎, 1890~1938)는 도쿄(東京) 출신으로 도쿄제대(1915. 5)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일본의 지바(千葉)지방재판소 및 지바구재판소 사법관시보(1915. 6), 후쿠시마(福島)지방재판소 및 후쿠시마구재판소 예비검사(1917. 2)를 거쳐 대만의 대북(臺北)지방법원 판관(1920. 7)으로 부임하였다. 다시 조선으로 건너

38 사상사건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병무, 앞의 책, 200~204쪽, 참조.

와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24), 공주지법 청주지청 검사(1925), 신의주지법 검사(1932), 평양지법 검사(1934), 청진지법 검사정(1935), 전주지법 검사정(1936), 경성복심법원 검사(1937), 부산지법 검사정(1938) 등을 역임하였다. 1938년 12월 부산지법 검사정으로 재직 중 사망하였다.

마쓰자키(松崎三男, 1894~?)는 구마모토현(熊本縣) 출신으로 도쿄제대(1921)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 및 나가사키구재판소 사법관시보(1921. 5), 도쿄지방재판소 및 도쿄구재판소 예비판사(1923. 3)를 지내다가 조선으로 건너왔다. 경성지법 검사(1923. 6),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25), 공주지법 대전지청 검사(1927), 청진지법 검사(1929), 대구복심법원 검사(1932), 대구지법 검사(1934), 전주지법 군산지청 검사(1936. 8) 등을 역임하였다. 1936년 9월 군산지청 검사를 의원면직하였다.

오모리(大森徳次郎, 1887~해방)는 사이다마현(埼玉縣) 출신으로 교토제대(1918)를 졸업하였다. 이후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27), 공주지법 청주지청 검사(1930), 신의주지법 검사(1935), 전주지법 군산지청 검사(1938), 부산지법 진주지청 검사(1939), 전주지법 검사정(1944. 8) 등을 역임하였다. 전주지법 검사정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다카기(高木陸雄)의 출신과 학력 등은 알 수 없다. 단 그가 조선총독부 검사로 임용될 때 퇴직판사라고 되어 있어, 중년 이상의 일본 국내 전직 판사로 판단된다.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29. 3), 경성지법 개성지청 검사(1934. 7) 등을 역임하고 1934년 12월 의원면직하였다.

테라다(寺田克己, 1883~?)는 이시카와현(石川縣) 출신이다. 일본의 다카하마구(高濱區)재판소 서기(1904. 11)를 지내다가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후 대구지방재판소 서기(1908. 6), 사법부 법무과 속(1914. 11), 경성지법 철원지청 검사(1922), 광주지법 순천지청 검사(1924), 공주지법 청주지청 검사(1928),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31), 함흥지법 원산지청 검사(1933), 청진지법 웅기지청 검사(1938) 등을 역임하였다. 1941년 3월 웅기지청 검사를 의원면직하였다. 동년 5월 청진지법 검사국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가가와(香川愿, 1902~?)는 가가와현(香川縣) 출신으로 와세다대(1925. 3)를 졸업하였다.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서기(1925)로 재직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27.

12)에 합격하였다. 이후 도쿄지방재판소 및 도쿄구재판소 사법관시보(1928. 4), 히로시마(廣島)지방재판소 및 히로시마구재판소 예비검사(1929. 11)를 거쳐 조선으로 왔다. 부산지법 검사(1930. 6),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33), 경성지법 검사(1936), 광주지법 검사 겸 광주보호관찰소장(1937), 대전지법 공주지청 검사(1938), 함흥지법 검사 겸 함흥보호관찰소장(1939) 등을 역임하였다. 1941년 6월 함흥지법 검사를 의원면직하였다.

나카무라(中村尙久, 1896~?)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으로 도쿄제대(1923)를 졸업하였다. 대구지법 사법관시보(1924), 평양지법 진남포지청 검사(1925), 해주지법 서흥지청 검사(1927), 평양지법 덕천지청 검사(1929), 공주지법 검사(1932),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35), 해주지법 검사(1936) 등을 역임하였다. 1937년 8월 해주지법 검사를 의원면직하였다.

히라이시(平石林, 1900~해방)는 야마나시현(山梨縣) 출신으로 니혼대 전문부(1928. 3)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0. 11)에 합격하고, 대구지법 사법관시보(1934. 11), 함흥지법 검사(1935. 7),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37. 7), 경성지법 검사(1939), 해주지법 사리원지청 검사(1940), 경성지법 검사 겸 보호교도소예방구금소 교도관(1941), 대전지법 홍성지청 검사(1943. 8), 전주지법 군산지청 검사(1944. 8)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8월 군산지청 검사 재직 중 일제의 패망을 보았다.

나가이(長井省吾, 1904~해방)는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으로 도쿄제대(1930)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1. 11)에 합격하고, 함흥지법 사법관시보(1932. 11), 함흥지법 예비검사(1935), 경성지법 개성지청 검사(1936), 대전지법 충주지청 검사(1938), 경성지법 검사(1940),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41), 대구복심법원 검사(1945)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대구복심법원 검사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미야자키(宮崎忠義, 1911~해방)는 에히메현(愛媛縣) 출신으로 큐슈제대(九州帝大, 1936)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5. 11)에 합격하고, 평양지법 사법관시보(1936), 해주지법 예비검사(1937. 12), 광주지법 검사(1938. 5),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44. 3)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수원지청 검사로 재직 중 일제의 패전을 맞이하였다.

아오야기(靑柳五郎, 1906~해방)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으로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조선으로 건너왔다. 1927년 경성고상(京城高商)을 졸업하고 동년 광주고보(光州高普) 교유(敎諭)에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 1931년 큐슈제대를 졸업하고 동년 공주고보(公州高女) 교유로 임용되어 조선으로 다시 왔다.³⁹ 1933년 11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경성지법 사법관시보(1934. 11), 경성지법 검사(1936), 전주지법 정읍지청 검사(1937), 경성지법 수원지청 검사(1939), 전주지법 군산지청 검사(1940), 함흥지법 검사 겸 함흥보호관찰소장(1942), 경성복심법원 검사(1944) 등을 역임하였다. 1945년 경성복심법원 검사로 재직 중 일제의 패망을 보았다.

이상에서 일본인 판사와 검사의 이력 및 경력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일본인 판검사의 주요 이력 통계

구분	학력				전직				
	중학교	사립대	제국대학	불명	통감부 판검사	일본 판검사	변호사	고문 사법	불명
판사	4	5	1	6	10	3	1		2
검사		4	8	2	2	4		8	
계	4	9	9	8	12	7	1	8	2

일본인 판사의 학력은 중학교 4명, 사립대 5명, 제국대학 1명, 불명 6명이다. 이전 직업은 통감부 출신이 10명, 일본 판사 출신 3명, 변호사 출신 1명, 불명 2명이다. 초기 일본인 판사는 통감부에서 계승된 자들이었다. 중기 이후 일본 판사 출신이 부임하다가 점차 고문 사법과 출신이 늘어났다. 일본인 검사의 학력은 사립대 4명, 제국대학 8명, 불명 2명이다. 이전 직업은 통감부 출신 2명, 일본 판검사 출신 4명, 고문 사법과 출신 8명이다. 초기는 통감부 출신이 많았지만, 중기 이후 고문 사법관 출신이 대부분이다. 일본인 판사와 검사는 조선인 판사에 비해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다. 따라서 초기 부임한 판사·검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들은 수원지청을 거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혹은 검사정으로 승진하거나 경

39 전병무, 2017, 『일제시기 재조선일본인 사법관시보 연구』, 『해람인문』 44,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193쪽.

성, 대구, 평양 등 빅3 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다(早田福裝)는 법원의 최고위직인 법무국장에 올랐다.

수원지청의 일본인 판사·검사로 장기간 근무했던 판사 오야(大宅伊敏, 9년), 기타무라(北村直甫, 9년) 등이 주목된다. 오야의 경우, 출신과 학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35년 5월 광주지법 검사국에 변호사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다. 당시 변호사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사망했거나,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기타무라는 3.1운동 당시 수원지청의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송산면 3.1운동과 장안·우정면 3.1운동 등 수원지역에서 3.1운동이 발발했을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인물이다.⁴⁰ 검사 퇴직 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등을 겸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전향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수원과 직접 관련해서는 구로이와(黑岩覺一)가 주목된다. 그는 검사로 임관하여 판사로 전관하였는데, 수원지청 판사로 근무하다가 1936년에 퇴직하였다. 퇴직 후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가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은 만 5년 동안 수원지청 판사로 근무했던 경험과 수원에 사가현(佐賀縣) 출신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⁴¹ 1939년 4월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수원분회(水原分會)의 결성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⁴² 동년 5월 수원 읍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⁴³ 동년 7월 수원고등여학교의 설치운동에 적극 나서 기성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⁴⁴ 1942년 화성자동차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⁴⁵

일제하 판사·검사는 지방법원 혹은 지청에 임관하여 2~3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런데 수원지청 판사의 재직기간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3~5개년 정도가 보통이었다. 즉 수원지청의 판검사는 일단 부임하면 요즘의 ‘향판(鄕判)’과 같이 상당기간 근무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4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3.1운동』(권22·23·24) 참조.

41 酒井政之助, 1914, 『發展せる水原』, 8쪽(이창식 역, 「부록1」 발전하는 수원, 『수원역사문화연구』 1, 25쪽).

42 『매일신보』, 1939년 4월 11일.

43 『동아일보』, 1939년 5월 24일.

44 『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

45 동아경제시보사, 194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42년판), 참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수원지청이 빅3 지역처럼 1급지는 아니더라도 경성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 때문에 주요 지청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교통과 상업의 거점 도시다 보니 다른 지청에 비해 사건 수가 적지 않은 곳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경우는 친일적 성향이 강한 인물을 배치했을 것이고, 일본인의 경우는 향후 간부로 키울 인물을 배치했을 것이다. 일본인은 수원지청에 다년간 근무하게 하여 실무경력을 쌓게 하였고, 조선인은 무난하게 재판을 진행하길 원했던 것 같다. 수원지청에 부임한 판검사들도 이런 이유로 큰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수원지청의 민사·형사소송사건의 추이

일제하 수원은 교통과 상업의 거점 도시였다. 1910년대 수원은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전하는 수원”이었다. 이후 수원은 식민통치의 제반 성과와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컨대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923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 각지의 경제사정과 생활상태를 조사하여 ‘조선총독부자료집’ 47집을 간행하였다. 이때 첫 번째 조사 지역이 수원군이었고, 그 결과로 제28집 『생활상태조사 기일(其一) : 수원군』을 1929년에 간행했던 것이다.⁴⁶ 이 조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수원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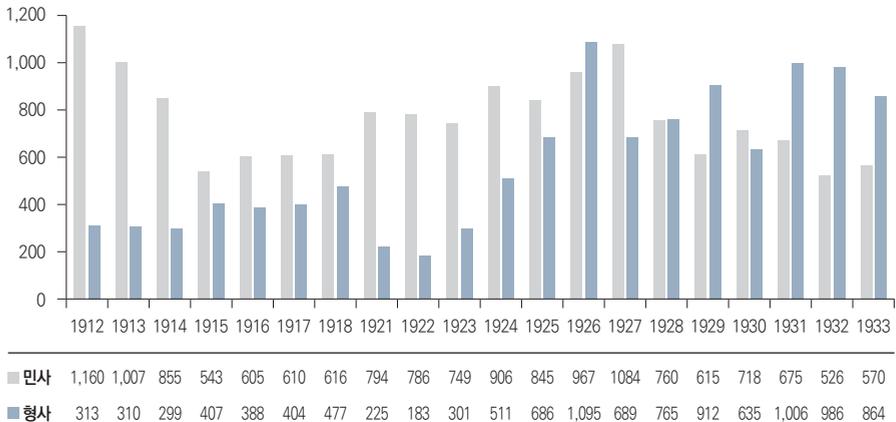
최초로 수원군을 선택하여 조사한 까닭은 동군이 조선의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그 지세가 산지·평야·연해·도서를 형성되어 있고, 또 군내를 철도가 관통해 수원·오산·병점의 3개 역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이 매우 발달한 데다 비교적 문화도 진보하고 경제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개

46 허영란, 2014, 「재조선 일본인이 재현하는 ‘지방’」, 『지역과 역사』 34, 부경역사연구소, 56~57쪽. 『生活狀態調査 其一 : 水原郡』은 일제하 수원지역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2013년 수원박물관에서 번역, 간행한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을 이용하였다.

군을 단위로 하는 조사에서는 적당한 지방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⁴⁷

이처럼 당시 수원은 일제의 선전적 성격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교통, 문화, 경제 등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수원의 민심에 대해, “일반의 민심을 질박(質朴)하지만 읍내 및 해안지방민은 상업을 중시한 나머지 금리 때문에 다투는 기풍이 있는데 대금업자들은 비교적으로 이기심이 강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대체로 권리의무의 관념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⁴⁸ 따라서 수원지청에서 취급된 민사·형사사건을 통해 당시 수원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지청은 제1심만을 담당했던 재판소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수록된 수원지청의 제1심 민사·형사소송사건 수리 건수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다만 이 연보에는 1933년까지 수원지청을 포함한 경성지방법원 산하 각 지청의 통계 항목이 별도로 있다가 1934년부터 경성지방법원 전체 항목으로만 통계 처리가 되어 수원지청의 소송 건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1919년과 1920년의 수원



<그림 1> 수원지청 제1심 민사·형사소송사건 수리(受理) 건수

47 수원박물관, 2013,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32쪽.

48 수원박물관, 2013,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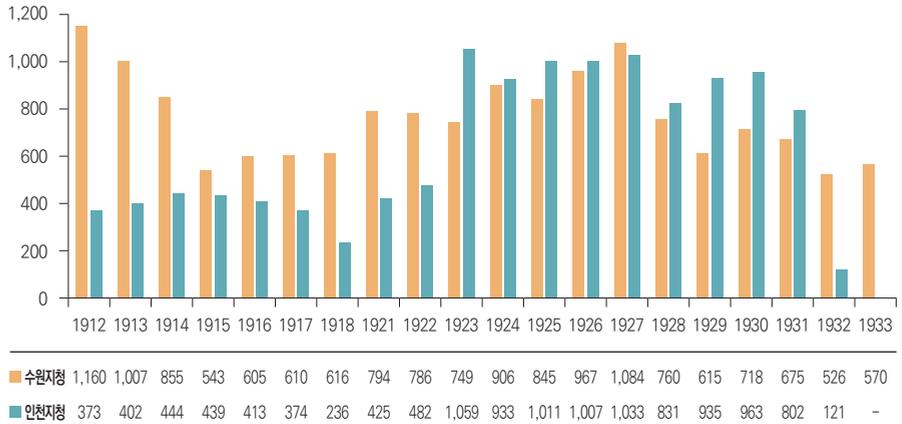
지청 통계 역시 경성지방법원 통계에 통합되었다.⁴⁹ 아마도 3.1운동과 그 여파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3.1운동이 일제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민사소송 건수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10년대 초반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 감소하였고, 1920년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27년에 정점을 찍고 1930년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대별 평균을 보면 1910년대는 전체 5,396건(연평균 770건)이었고, 1920년대는 전체 7,506건(연평균 834건)이었으며, 1930년대 전체 2,472건(연평균 618건)이었다. 1912년과 1913년에 1,000건 이상이 발생한 것은 수원지역에 대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청의 관할구역은 1910년 수원, 과천, 시흥, 안산, 남양, 광주, 용인, 양지, 진위, 양성, 안성, 죽산 등 12개 군이었다. 12개 군의 주요 계층이 농민이었음을 감안할 때 일제가 1910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각종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도 급증한 것이 아닌가 한다. 1920년대 초반 이후 민사사건이 증가한 것은 수원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달과 더불어 지역민의 권리의식 성장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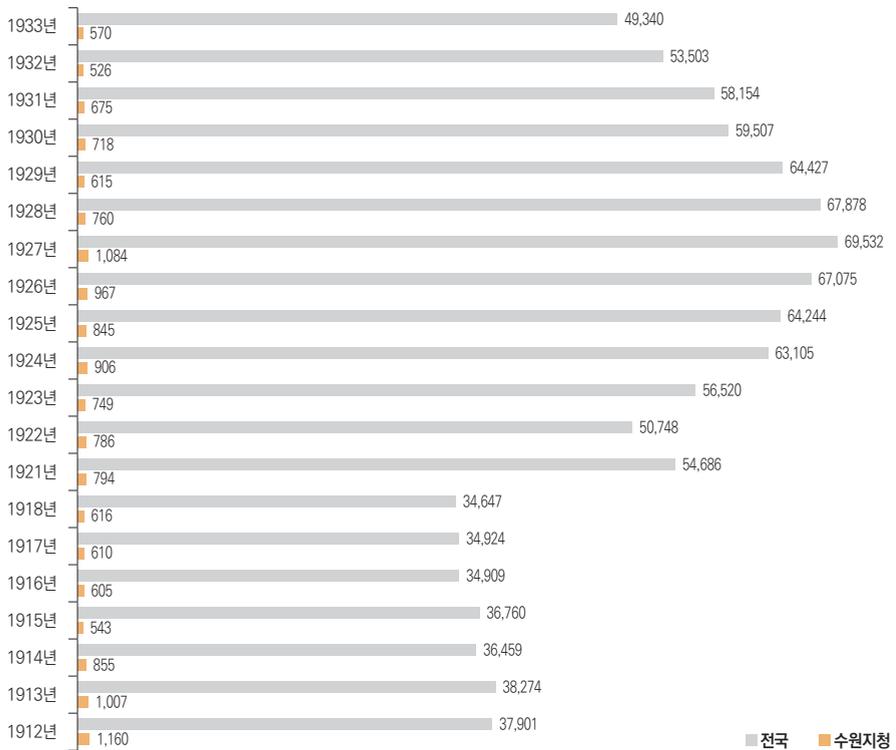
이러한 민사소송사건의 추이가 수원지청, 즉 수원 지역만의 현상인지 아닌지를 경기도의 주요 도시였던 인천지청 그리고 수원지청과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사건 건수 등을 비교해 보겠다.

〈그림 3〉은 수원지청과 전체 법원의 민사소송사건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 법원의 민사소송 건수는 1910년대보다 1920년대에 크게 증가하다가 193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원지청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국적인 민사소송의 추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림 2〉는 수원지청과 인천지청의 민사사건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인천지청의 경우 1910년대 300~400건 정도를 보이다가 1920년대 900~1,000건으로 급증하였다. 1930년대 감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수원지청보다는 다소 많은 건수를 기록

49 〈그림 1〉의 통계에서 1910년과 1911년의 민사, 형사 사건수를 제외한 이유는 당시는 수원구재판소였고 또한 특정연도에 대한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사의 경우는 1910년 676건, 1911년 1,022건이었고, 형사의 경우는 1910년 0건, 1911년 63건이었다.



〈그림 2〉 수원지청 및 인천지청 제1심 민사소송사건 수리 건수



〈그림 3〉 수원지청 및 전국 제1심 민사소송사건 수리 건수

하였다. 다만 1932년과 1933년에 121건, 0건으로 나타난 것은 1933년 인천지청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⁵⁰ 수원지청과 인천지청의 민사소송사건의 전체 추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원지청과 인천지청의 가장 큰 차이는 1923년까지는 수원지청의 민사사건 건수가 많다가 이후는 인천지청의 민사사건 건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1910년에는 인천 지역만 관할하다가 1914년 이후 인천부,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등 4군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인천지청은 1923년부터 1931년까지 수원지청보다 많은 소송건수를 보이는 점이 특징인 것이다.

당시 수원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사소송금액과 독촉사건의 추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민사소송금액을 보면 수원 지역의 경제 규모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수원지청의 민사소송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금액은 민사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청구금액,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이다. 민사소송금액의 추이는 1910년대 약 3만 7,000엔대이었는데 1920년대 이후에는 약 2배 증가한 약 6만 6,000엔대였다. 소송건당 금액을 보면 50엔(26%), 20엔(15%), 250엔(15%), 100엔(13%), 75엔(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게다가 1920년대 이후 이들 금액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건당 민사소송금액 중 20~75엔이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참고로 전국 백미(白米) 1석당 평균값은 1911년 5엔 60전, 1920년 16엔 23전, 1925년 19엔 26전, 1930년 10엔 14전, 1931년 6엔 61전 등이었다.⁵¹ 그리고 1930년대 여러 자료들을 참조해 직업별 월급을 보면, 의사는 100엔 이상, 식산은행원 95엔, 금융조합 이사 70엔, 신문기자 70엔, 목사 50~60엔, 잡지 기자 50엔, 법원 서기 30엔, 백화점 등 여점원 25엔, 여직공 13엔 등이었다.⁵² 따라서 당시의 화폐가치와 물가 등을 고려해 본다고 해도, 수원 지역의 민사소송금액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즉 소송금액 중 20~75엔의 비율이 51%를 점유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성, 인천 등과 비교해야겠지만 수원 지역의 민사소송금액은 중소액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수원 지역의 경제

50 전병무, 2012,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폐지반대운동 연구」, 『인천학연구』 16 참조.

51 조선총독부 농림국, 1940, 『朝鮮米穀要覽』 참조

52 삼천리기밀실, 1936, 「내외정세-현대 쌀리맨 수입조」, 『삼천리』 제8권 제1호, 23쪽; 한국일보사, 1981, 『洪在善』, 『財界回顧-元老企業人編 3』, 209쪽.

〈표 5〉 수원지청의 민사소송금액

연도	신수 건수											금액
	5엔	10엔	20엔	50엔	75엔	100엔	250엔	500엔	750엔	1,000엔	계	
1912	74	180	241	277	85	78	85	27	8	5	1,060	46,037
1913	49	129	194	266	80	96	87	37	11	9	958	51,302
1914	39	93	165	200	70	83	68	37	7	3	765	35,823
1915	14	52	99	173	44	47	42	17	8	7	503	27,069
1916	28	71	113	162	52	62	52	22	6	5	573	32,262
1917	14	48	115	151	66	68	57	28	7	6	560	31,039
1918	20	64	109	146	53	61	66	31	13	8	571	37,668
1921	5	20	64	165	76	117	127	87	40	28	729	102,283
1922	4	29	80	188	62	98	125	78	31	23	718	82,697
1923	6	34	56	175	79	111	126	64	21	20	622	71,077
1924	5	30	94	219	70	139	161	76	25	23	842	60,488
1925	24	28	73	157	57	143	139	63	21	14	719	54,229
1926	8	27	95	268	111	115	128	53	23	23	851	51,981
1927	1	33	122	230	109	133	169	71	27	25	920	69,508
1928	9	22	66	162	79	112	113	70	16	12	661	55,812
1929	3	24	60	147	75	101	92	54	16	10	582	46,093
1930	1	30	69	159	87	94	155	66	23	14	698	60,646
1931	5	17	71	144	74	87	124	58	17	19	616	66,468
1932	4	17	70	120	66	70	89	35	11	3	485	35,237
계	313 (2%)	948 (7%)	1,956 (15%)	3,509 (26%)	1,395 (10%)	1,815 (13%)	2,005 (15%)	974 (7%)	331 (3%)	257 (2%)	11,797 (100%)	1,017,719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민은 소액이라도 자신 권리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개인 간의 빚이나 단체 간의 부채는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독촉인데,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독촉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6〉 수원지청의 독촉사건 추이

연도	수리			기제			지불명령 대 이의신청	집행명령
	전년	본년	계	지불명령	각하	취하		
1912		156	156				156	
1913		482	482	480	2		482	119
1914		1,007	1,007	1,007			1,007	134
1915		1,150	1,150	1,149		1	1,150	153
1916		1,155	1,155	1,155			1,155	176
1917		1,000	1,000	1,000			1,000	127
1918		1,099	1,099	1,099			1,099	102
1921		2,308	2,308	2,308			2,308	204
1922		1,647	1,647	1,624		23	1,647	152
1923		2,646	2,646	2,646			2,646	233
1924		2,392	2,392	2,392			2,392	283
1925		2,208	2,208	2,204		4	2,208	240
1926		2,030	2,030	2,016		14	2,030	217
1927		2,631	2,631	2,629	2		2,631	280
1928		1,571	1,571	1,571			1,571	162
1929		2,444	2,444	2,444			2,444	216
1930		3,980	3,980	3,980			3,980	248
1931		4,076	4,076	4,076			4,076	199
1932		3,008	3,008	2,947	58	3	3,008	189

출전: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2~1932).

수원지청 독촉사건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1910년대 1,000건대에서 1920년대 2,000건대로 그리고 1930년대 3,000~4,000건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30년경부터 신문지상에 ‘설비(雪飛)하는 지불명령(支佛命命)과 첩출(疊出)하는 강제차압(強制差押)’, ‘경제파멸을 말하는 지불명령 증가’, ‘수확기를 앞두고 지불명령 격증’, ‘사기횡령과 지불명령 격증, 불경기가 심각한 까닭’등의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1920년대 초 농업공황,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 이후 그 여파가 식민지 조선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0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수원지방의 농가는 말이 못되는데 이것은 풍년이란 구실아래 작년의 빛은 물론이요 그전의 부채까지 받으려 덤비는 간악한 채귀들의 무서운 소행은 도처에서 있는바 지난 9월 중 수원지청의 취급한 입도차압(立稻差押) 지불 명령 등 건수가 실로 1천1백5십여 건에 달하는 바 종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지불명령 903건, 차압 182건, 경매 68건(작년에 이때에 비하면 약 4배의 증가)⁵³

1933년 이후에도 『동아일보』에 ‘지불명령서와 집행장 설비(雪飛), 추수기의 농민을 위협, 수원관내 천칠백여 건’,⁵⁴ ‘농촌에 설비하는 지불명령장 추수기 앞두고 격증 수원지청에만 천이백 건’,⁵⁵ ‘빈궁민(貧窮民)을 위협하는 지불명령장 설비(雪飛), 수원지청에 이미 천 건을 돌파’,⁵⁶ ‘수원(水原)에 채귀발호(債鬼跋扈) 지불명령이 대격증(大激增)’⁵⁷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이는 법원을 매개로 한 현상이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농촌의 피해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 건수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1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다가 1921~1923년에 잠시 감소하였고 이후 193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 1921~1923년에 잠시 감소한 점은 3.1운동 이후 수원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억압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연대별 평균을 보면 1910년대는 전체 2,598건(연평균 371건)이었고, 1920년대는 전체 5,397건(연평균 600건)이었으며, 1930년대 전체 3,491건(연평균 872건)이었다. 1930년대는 4개년에 불과했지만 연평균이 872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수원 사회가 1910년대보다 1920년대에 발전하면서 복잡해진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더욱이 192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소작쟁의 증가, 사회운동의 증가 등의 영향도 크게 받았을 것이다. 특히 1926년에 1,095건의 형사소송사건이 수리된 점이 특이하다. 후술하겠지만 1926년의 수원지역 범죄 통계 중 살인, 상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53 『동아일보』, 1930년 11월 8일.

54 『동아일보』, 1934년 9월 23일, 석간.

55 『동아일보』, 1935년 10월 14일, 석간.

56 『동아일보』, 1936년 4월 14일, 조간.

57 『동아일보』, 1937년 8월 31일, 조간.

도박 등이 485건이었다는 자료도 있다. 확신할 수 없지만, 1921~1923년에 일제의 억압으로 잠복되었던 사회적 열망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1930년대 초반부터 형사사건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도 주목되는데, 수원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규명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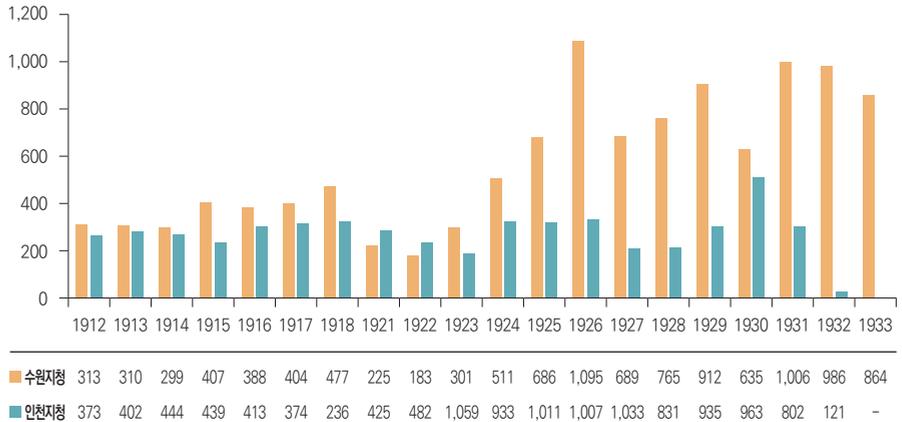
앞의 민사소송사건 추이와 같이 방식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였던 인천지청 그리고 수원지청과 전국 법원의 형사소송사건 건수 등을 비교해 보겠다.

〈그림 4〉는 인천지청과 수원지청의 형사사건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인천지청의 경우 1910년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300건 정도를 보이다가 1921~1923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인천지청의 경우도 1922년과 1923년 다소 감소하였는데, 수원과 마찬가지로 3.1운동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1933년까지 형사사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원과 비교했을 때 2~3배의 건수 차이가 났다. 이 점은 이 시기 수원 사회에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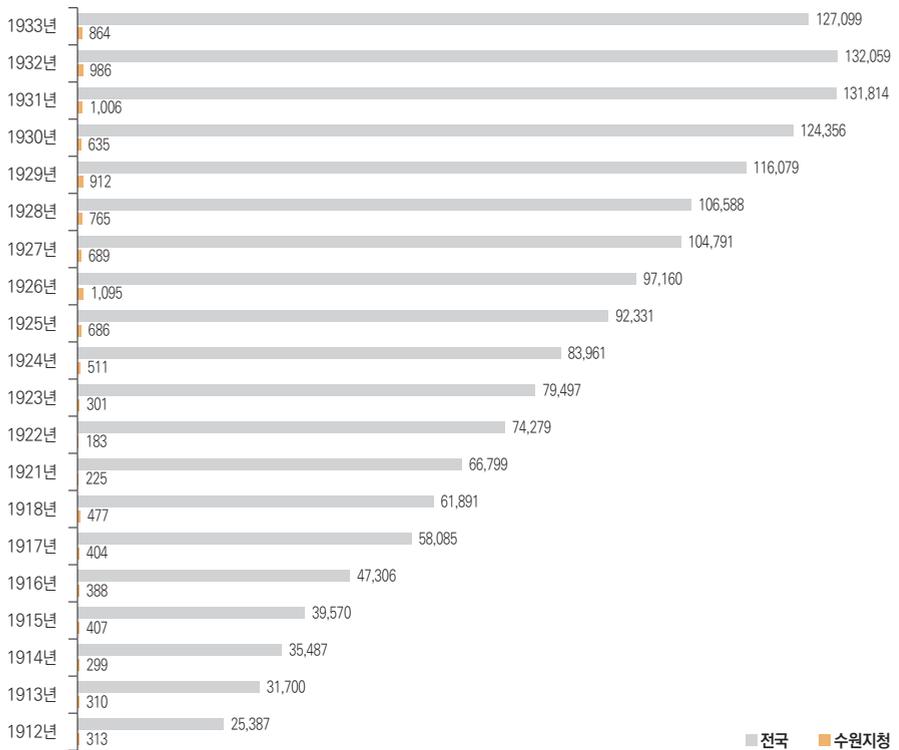
〈그림 5〉는 수원지청과 전체 법원의 형사사건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 법원의 민사소송 건수는 1910년대보다 1920년대에 크게 증가하다가 1930년대 이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원지청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국적인 형사사건의 추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수원의 형사범죄에 대해 일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한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즉 “민중의 문화 및 사상 경향은 한 면으로 범죄 상황을 근거로 추측할 수 있는데 본군은 경성에 가깝고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 관계상 문화는 비교적 발달해 있다. 따라서 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의 범죄가 근년에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 독립 소요사건 때 군내에서 일시적이거나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불순분자가 일소되었다.”라고 하였다.⁵⁸ 그러면서 다음의 통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피해건수인지 형사판결 건수인지 등은 알 수가 없다.

58 수원박물관, 2013,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111쪽.



〈그림 4〉 수원지청 및 인천지청 제1심 형사사건 수리 건수



〈그림 5〉 수원지청 및 전국 제1심 형사사건 수리 건수

〈표 7〉 범죄의 종류 및 건수 누년 비교

연도	문서 위조	도박	외도간음 및 중혼	살인	상해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계
1921	2	32	14	1	45	13	214	66	15	40	442
1922	7	82	10	3	54	14	264	71	-	47	552
1923	8	32	-	4	51	4	372	69	2	33	575
1924	7	3	2	2	36	5	351	64	-	36	506
1925	17	10	3	1	39	7	297	64	2	41	481
1926	17	19	4	5	50	2	246	80	1	61	485

출전: 수원박물관,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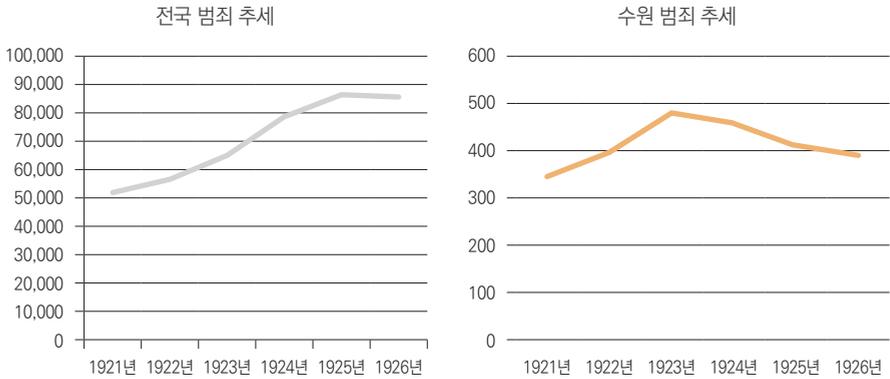
이 통계에 의하면 1921년부터 1926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였다. 다음으로는 사기, 상해, 횡령, 강도 등의 순이었다. 이를 다시 전국적 건수와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수원과 전국 범죄의 종류 및 건수 누년 비교

연도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계	
	전국	수원	전국	수원	전국	수원	전국	수원	전국	수원	전국	수원
1921	3,024	13	29,819	214	11,343	66	1,009	15	6,862	40	52,057	348
1922	1,998	14	33,054	264	12,939	71	848	-	7,936	47	56,775	396
1923	2,263	4	36,895	372	15,425	69	950	2	9,579	33	65,112	480
1924	2,255	5	47,690	351	17,934	64	812	-	9,892	36	78,583	456
1925	2,191	7	50,592	297	20,621	64	953	2	12,091	41	86,448	411
1926	1,737	2	51,229	246	20,357	80	973	1	11,312	61	85,608	390

출전: 『조선총독부총계연보』(1921~1926년), 단 전국의 건수는 피해 건수임.

수원에서 발생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전국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전국 범죄는 19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수원의 경우는 19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차이가 있다. 다만 주요 범죄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등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은 전국적 현상과 동일하다. 이는 일제가 지적한 것처럼 수원이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반 잡범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수원 지역민의 삶이 팍팍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6〉 전국과 수원 범죄 추세

마지막으로 검사의 수리사건의 방식과 건수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의 수리사건 건수가 1910년대에 비해 192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고발의 경우, 1910년대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192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리 방식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찰관과 헌병이다. 즉 경찰관과 헌병이 범인을 체포하여 검사에게 이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제 통치의 집행자가 이들이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현행범이나 비현행범임을 막론하고 3.1운동 이전에 헌병이 이첩한 사건이 많았는데, 3.1운동 이후는 급감하였다. 현행범인 경우 1921~1923년에 경찰관이 이첩한 사건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수원지청의 제1심 형사사건 수리 건수와 매우 유사한 점이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도 1921~1923년 사이 수원 사회의 분위기가 얼마 경직되고 통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9〉 수원지청의 검사 수리사건 건수

연도	현행법										비현행법										총계
	전 년 월	본년 접수					합계	전 년 월	본년 접수					합계							
		直受		경찰관	헌병	타재판 소검사			直受		경찰관	헌병	타재판 소검사		기타						
		고소	고발						기타	기타											
1911				18	3	21				98	54			2	169	190					
1912				5		5	4	4	35	1	230	140		16	422	426					
1913				22	23	48	8	8	42	10	340	144		10	553	609					
1914				7	6	148	9	9	33	5	259	94	8		405	414					
1915	5	7		124	78	213	4	4	37	3	292	142	7	1	485	489					
1916	4	2	2	102	78	189	3	3	65		392	143	18		640	643					
1917	1			105	71	176	4	4	41	1	428	206	18		700	704					
1918	4			136	102	238	8	8	39	13	434	219	18		725	733					
1921		1	2	4	45	52	24	24	48	11	628		7	1	700	724					
1922				10	38	48	8	8	66	12	654		21		755	763					
1923				34		172	12	12	120	34	652		21		827	839					
1924	19	61	399	2	664	1,150	33	33	85	419	957		31	5	1,500	1,533					
1925	9	52	627	1	519	1,219	15	15	107	631	740		26		1,505	1,520					
1926	14	44	996	1	675	1,746	35	35	75	996	1,126	1	37		2,236	2,271					
1927	20	127	564	4	629	1,352	30	30	188	562	937	3	39		1,735	1,765					
1928	10	62	626	14	849	1,577	18	18	119	629	1,323	18	40	1	2,130	2,148					
1929	13	57	742	8	947	1,797	28	28	96	745	1,388	15	36		2,290	2,318					
1930	4	43	454	1	1,119	1,660	12	12	102	460	1,621	6	44	2	2,236	2,248					
1931	16	50	851	1	1,057	2,047	35	35	99	853	1,617	65	46	1	2,682	2,717					
1932	31	25	818	3	989	1,984	52	52	36	818	3	1,554	41	1	2,588	2,640					

5.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연혁 및 법원 조직과 인적 구성, 수원지청에서 취급한 민사·형사소송사건의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 대한 연구가 처음이라 시간제약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판결한 민사·형사 관련 판결문을 찾는 일이다. 국가기록원 등에는 일제하 민사·형사 관련 다수의 판결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적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 수원지청 판결문을 파악,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시 신문자료를 통하여 민사·형사 관련 재판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독립운동사건의 경우 신문에 보도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법원사(法院史)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수원지청의 판사·검사 외에 법원 서기 그리고 수원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사법서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혹시 이들이 남긴 회고록이나 일기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기존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들에 대한 생몰년, 학력, 경력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수원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셋째, 수원지청의 민사·형사소송사건 추이는 통계 현황만 제시하고 심도 있는 분석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역사학적 방법론과 함께 통계학 이론, 법학이론을 아울러서 검토해야하는 과제이다. 향후 이 분야의 전문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8.15해방을 전후한 수원지청의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혼란했던 시기에 수원지청이 누구의 의해 장악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수원지청의 운영과 변화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의 과제들이 해명된다면 수원지청(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2019년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되었으므로, 수원의 법원사 정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작업들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0~1945),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10~1943).
酒井政之助, 1914, 『發展せる水原』.
酒井政之助, 1923, 『水原』.
朝鮮總督府, 1929, 『生活狀態調査 其一：水原郡』.
水原郡, 1929, 『水原郡地誌』.
朝鮮總督府 法務局, 1935, 『朝鮮の司法制度』.
司法協會, 1936, 『朝鮮司法大觀』.
司法協會, 1936, 『朝鮮司法關係者名錄』.
법률평론사편집위원회 편, 1963, 『法曹名鑑(1963년판)』, 법률평론사.
법률실무연구회 편, 1977, 『法曹人士寶典』, 법조문화사.

2. 논저

- 고재호, 1985, 『법조반백년』, 박영사.
법원행정처, 1995, 『법원사』,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1981, 『한국법관사』, 육법사.
문준영,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이동근, 2008,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華城」, 『수원학연구』 5.
이승렬, 2014, 「'근대의 충격'과 수원 유지층의 대응」, 『수원시사』 3권.
전병무, 2012,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전병무, 2012,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연구」, 『인천학연구』 16.
전병무, 2017, 「일제시기 재조선일본인 사법관시보 연구」, 『해람인문』 44.
허영란, 2014, 「재조선 일본인이 재현하는 '지방」, 『지역과 역사』 34.

요 약

이 글은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수원지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수원지청의 연혁, 지청의 조직과 인원, 그리고 부임했던 조선인과 일본인 판사·검사들을 분석하였다. 수원지청의 판사를 역임한 조선인은 11명, 일본인은 16명이었다. 수원지청의 검사를 역임한 조선인은 없고 일본인은 14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출신, 학력, 법원 경력 등을 검토하였다. 조선인 판사는 법원 서기 출신으로 판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인 판사·검사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임관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본인 판사·검사는 수원지청 이임 이후 승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조선인 판사는 지방법원 지청 판사로 돌다가 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수원지청에 부임했던 판사·검사들은 통상의 2~3년보다 많은 4~5년을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원은 교통과 상업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민사·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원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반영한 민사·형사사건을 정리하였다. 즉 수원지청에서 취급한 민사·형사소송사건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당시의 통계자료를 활용했는데, 아쉽게도 1932년 이후는 수원지청 단독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 아무튼 1912~1932년에 수원지청에서 취급한 민사·형사소송사건의 추이 검토와 함께 인천지청과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이어서 전국 단위와 수원지청의 비교도 진행하였다. 민사소송 건수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10년대 초반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 감소하였고, 1920년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27년에 정점을 찍고 1930년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형사소송 건수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1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다가 1921~1923년에 잠시 감소하였고 이후 193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달과 함께 토지조사사업, 농민저항, 사회운동, 대공황 등이 수원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조선총독부, 판사특별임용시험, 수원

ABSTRACT

A Study on the Suwon(水原) Branch Court of Gyeongseong(京城) District Court during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eon Byung-Moo

This paper is, for the first time, to research into the Suwon(水原) Branch Court(SBC) which was presided over by the Gyeongseong(京城) District Court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r there were very few studies on the SBC, I concentrated on collecting and organizing related data first. Based on the data, this paper provides analysis on the history, the organization and workforce as well as the Korean and Japanese judges and prosecutors who have been worked at the SBC. There were 11 Koreans and 16 Japanese who served as judges for the SBC. There were 14 Japanese prosecutors and was no Koreans prosecutor. And then, I examined their origins, academic backgrounds, and professional experiences. Most of the Korean judges did not pass the regular bar exam and started as court clerks. They were later appointed as judges after passing the special juridical appointment test condu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ence, they did not hold a proper qualification. So, they were not competent judges from the standpoint of colonial juridical authority. Per contra, most of the Japanese judges and prosecutors at the SBC got through the judiciary test of the highest civil service exam, which was a regular examination. That being so, the promotion and treatment for Japanese judges were better than those of Korean judges. Most of Japanese judges and prosecutors were promoted after they were transferred from the SBC. On the other hand, most of Korean judges retired without getting promoted. The judges and prosecutors who served in the SBC

were found to have worked for 4 to 5 years, more than the usual 2-3 years.

At that time, Suwon was a center for transportation and commerce. Accordingly, the city had many civil and criminal cas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civil and criminal cases that reflect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Suwon. In other words, the trends of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cases handled by Suwon Branch Office are studied. Statistics from the time are used, but unfortunately, data on Suwon Branch Court has been unavailable since 1932. The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cases handled by the Suwon Branch Office from 1912 to 1932 a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Incheon Branch Office. Subsequently, a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Suwon branch office and the national level. Looking at the overall trend of the number of civil lawsuits, the number was high in the early 1910s and then decreased since the middle of 1910. The number gradually increased in the 1920s, peaked in 1927, and fell again in the 1930s. As for criminal lawsuits, the number had increased since the early 1910s and then decreased for a brief period between 1921 and 1923, and then rose until 1933. Such trends can be attributable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land survey projects, farmers' resistance, social movements, and the Great Depression and their impact on Suwon.

Key words : The Suwon(水原) Branch Court(SBC), The Gyeongseong(京城) District Cour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judiciary test of the highest Civil Service exam, Suwon

지역향토음식 관련 요인들의 지불의도에 대한 영향 : 수원왕갈비 사례를 중심으로

문준호*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 도출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1. 서론

수원왕갈비는 수원의 대표적인 지역음식의 하나로 관광객들이 꼭 경험해 봐야 할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에서 지역음식을 소비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음식에 대한 인상은 관광지에 대한 인식 및 재방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수원시의 관광객은 2018년에 800만 명에 달했지만 그동안의 관광객 수치는 증감이 불분명하

*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joonhmoon0412@gmail.com, Tel : 010-9534-8701

1 「수원왕갈비 뜯고 수원화성 돌아드니」, 『동아일보』, 2019년 11월 14일.

2 김상철, 2000, 「지역축제의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6권 제3호, 193~223쪽; 민계홍, 2010, 「김제지역의 향토음식 개발을 통한 관광상품화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4권 제3호, 295~309쪽; 고범석·강석우, 2004, 「대구지역 향토음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대구 동인동 찜 갈비를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10권 제4호, 15~30쪽.

여 관광수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 및 발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영역에서 음식은 하나의 중요한 선택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에는 왕갈비라는 훌륭한 향토음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수원왕갈비라는 자원을 잘 관리 및 발전을 시키는 것은 수원의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원왕갈비에 대한 대중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에 대한 잠재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수원관광객의 수요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불의도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요인으로 관광지 및 외식업체의 매출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었다.⁴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관광객 및 소비자 행동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음식 관광 및 외식 사업영역에서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및 인지도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음식이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가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소비자들에게 관광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 및 수원왕갈비가 관광자원으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⁵

3 수원시, 2018, 「수원시 800만 관광객시대 열었다」.

4 김상현·박현선, 20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애플리케이션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제20권 제3호, 81~109쪽; 문성중·김민철·부창산, 2008, 「제주 들불 축제 평가속성의 만족 및 지불의사 영향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7권 제3호, 157~173쪽; 조성수·최성진·이영주, 2013, 「온라인에서의 가상파방송 동영상콘텐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작권 인식, 콘텐츠 특성, 플랫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348~359쪽.

5 성혜진·정용해·유세란, 2016, 「와인소믈리에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가격공정성 및 재구매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463~482쪽; 김현철, 2009, 「건강메뉴 지각, 축제음식에 대한 우려, 축제 만족 및 재방문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제33권 제4호, 357~379쪽; 양정애·장현미, 2014,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능력이 상품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8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인들은 언제라도 관광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내국인들이 수원왕갈비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요인들의 선형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수원왕갈비의 상품성을 증진시키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원왕갈비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헌들이 다소 미미하게 이에 대한 특성을 탐구를 했다는 측면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실증연구의 결과를 수원왕갈비 영역에서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 도출

1) 지불의도

지불의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지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지출의도는 좀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⁶ 즉, 기존의 문헌들은 지불의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의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기존의 문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이라고 주장을 한다.⁷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설예·유은·정재민은 인터

권 제2호, 160~190쪽; 문숙재·박은화·차경옥, 2006,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27~42쪽.

6 우형진, 2014, 「지각된 사이버 보안 위험이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기술채택 및 지속이용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여도, 보호동기, 비용지불의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220~257쪽; 김설예·유은·정재민, 2016,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이 지속이용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57~84쪽.

7 김동우·유재영·정원조, 2014,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결정 요인 연구」, 『방송공학회논문지』

넷 방송 서비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⁸ 또한, 김동우·유재영·정원조는 IPTV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이에 대한 설명변수를 규명하였다.⁹ 음식 관련 영역에서는 김진희·이수범이 한식 레스토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¹⁰ 추가적으로, 문준호·송명근·이원석은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평화열차이용객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였다.¹¹ 커피전문점 영역에서는, 오송희·송명근은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¹² 이처럼 지불의도는 음식 및 외식사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는 요인이다. 문헌적 고찰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도를 주된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건강증진

음식을 소비하는 목적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거나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¹³ 실질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건강증진이 소비자들의 지불의도와

제19권 제3호, 385~395쪽; 이수정·양위주, 2013, 「경험유무에 따른 미의식이 외모관리행동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제22권 제4호, 283~297쪽; 문준호·송명근·이원석, 2020, 「평화열차 재이용 의도와 지불의도의 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제29권 제2호, 229~243쪽; 오송희·송명근, 2019, 「저가 커피 전문점 메뉴 속성의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레저연구』 제31권 제9호, 331~349쪽.

- 8 김설예·유은·정재민, 2016,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이 지속이용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TV 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57~84쪽.
- 9 김동우·유재영·정원조, 2014,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결정 요인 연구」, 『방송공학회는논문지』 제19권 제3호, 385~395쪽.
- 10 김진희·이수범, 2017, 「한식 레스토랑의 지각된 품질이 재방문 의도와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경험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41권 제10호, 145~163쪽.
- 11 송명근·문준호, 2020, 「스타벅스 가격공정성의 친환경인식과 추가지불의도에 대한 매개효과」, 『이벤트컨벤션연구』 제37권, 115~130쪽.
- 12 오송희·송명근, 2019, 「저가 커피 전문점 메뉴 속성의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레저연구』 제31권 제9호, 331~349쪽.
- 13 이상미, 2013, 「약선음식의 인지도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김효연·류기상·류형서는 유기농식품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상품이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¹⁴ 정진이·함선옥은 건강과 관련하여 외식영양표시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지불의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¹⁵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춘미·박대섭은 유제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신념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¹⁶ 이와 같은 측면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H1: 건강증진은 수원왕갈비 지불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가격공정성

가격은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가치이며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얻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가격대비 편익에 대한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들이 지불한 가격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하여 가격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형성한다.¹⁷

지」 제13권 제6호, 459~468쪽; 이종호, 2018, 「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외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강가치인식의 조절효과」,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24권 제8호, 92~101쪽; 정진이·함선옥, 2016, 「건강신념 및 외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519~538쪽.

- 14 김효연·류기상·류형서, 2015, 「유기농 식품점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건강인식과 식품안전우려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18권, 377~395쪽.
- 15 정진이·함선옥, 2016, 「건강신념 및 외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519~538쪽.
- 16 한춘미·박대섭, 2018, 「건강신념이 우유 및 유제품 섭취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21권, 101~124쪽.
- 17 이지환·김태형, 2019, 「스키리조트 가격 공정성 인식이 기업신뢰와 구매행동 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4호, 505~515쪽; 이원석·문준호·박세종, 2018, 「피자 서비스에서의 가격 공정성과 재구매 의도에 대한 건강 염려의 조절효과」,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4권 제1호, 141~152쪽; 박승환, 2018,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서비스품질과 가격공정성, 기대일치 및 고객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7권 제4호, 531~544쪽; 송명근·문준호, 2020, 「스타벅스 가격공정성의 친환경인식과 추가지불의도에 대한 매개효과」, 『이벤트컨벤션연구』 제37권, 115~130쪽.

가격공정성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한다. 이제홍은 온라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가격공정성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임을 검증하였다.¹⁸ 또한 문준호·송명근은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가격공정성이 소비자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¹⁹ 문준호·송명근·이원석은 샌드위치전문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가격공정성이 지불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²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지환·김태형은 스키리조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가격공정성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²¹ 이와 같은 측면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2: 가격공정성은 수원왕갈비 지불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 정보접근성

정보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²² 선행연구는 이와

-
- 18 이제홍, 2016,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에서 FTA 체결국인 미국, 중국제품의 가격공정성이 구매만족,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4호, 305-318쪽.
 - 19 문준호·송명근, 2019,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의 한국과 미국 소비자 충성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25권 제10호, 17~28쪽.
 - 20 문준호·송명근·이원석, 2019,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문점의 지불의사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레저연구』 제31권 제2호, 309-326쪽.
 - 21 이지환·김태형, 2019, 「스키리조트 가격 공정성 인식이 기업신뢰와 구매행동 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4호, 505-515쪽.
 - 22 박찬욱, 2003,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내재적 속성과 상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요인에 관한 연구: 관여와 제품지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3호, 67-83쪽; 박태희·김재휘, 2018,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가격제시순서(오름/내림차순)와 정보처리목표 점화가 가격지각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19권 제2호, 349-372쪽; 이정, 2011, 「정보이론의 엔트로피 관점에서의 바라본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소비자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 감소 효과」,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4호, 241~256쪽; 이용일, 2018, 「제주도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호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32권 제9호, 203~214쪽; 조은희·한진수, 2018, 「동영상 UCC (User Created Content) 관광정보 품질이, 이용자 만족, 방문의도, 정보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호

관련된 결과를 제시한다. 손지연·어숙희는 화장품 구매에서 정보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²³ 윤명애·유태순은 웨딩드레스 선택에서 정보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²⁴ 조승행은 관광정보서비스 영역에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²⁵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용일은 제주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밝혔다.²⁶ 조은희·한진수는 또한 동영상 관광정보 품질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²⁷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보면, 정보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3: 정보접근성은 수원왕갈비 지불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5) 인지도

인지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며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경우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므로 특정제품에 대한 인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선행연구들

텔경영학연구』 제27권 제2호, 163~179쪽.

23 손지연·어숙희, 2008, 「화장품 온라인 쇼핑 시 온라인 구전 정보의 방향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제14권 제3호, 929~945쪽.

24 윤명애·유태순, 2010, 「신부의 웨딩드레스 선택요인 및 의사결정에 관한연구」, 『사회과학논총』 제9권, 75~94쪽.

25 조승행, 2016, 「Social Network Service 정보 특성과 소비자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31권 제5호, 105~123쪽.

26 이용일, 2018, 「제주도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호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32권 제9호, 203~214쪽.

27 조은희·한진수, 2018, 「동영상 UCC (User Created Content) 관광정보 품질이, 이용자 만족, 방문의도, 정보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7권 제2호, 163~179쪽.

은 주장을 한다.²⁸ 고미애·김지연은 커피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²⁹ 신상무·김민정은 패션제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³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강은미·정영원·박은주는 명품 패션 제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³¹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4: 인지도는 수원왕갈비 지불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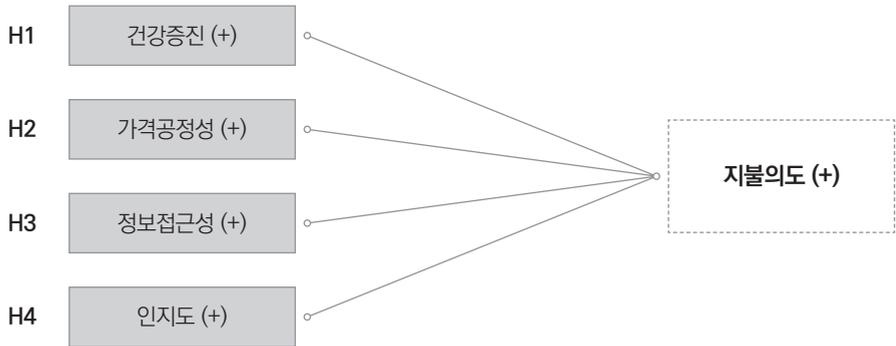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불의도이다. 본 연구는 4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인지도이며 각각의 요인들은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28 김현정·이희찬, 2017, 「외식기업 SNS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만족,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31권 제11호, 195~209쪽; 이의선·옥경영·문정숙, 2019, 「블록체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수용, 저항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30권 제3호, 51~72쪽; 김영신, 2017,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 구매경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29~49쪽.

29 고미애·김지연, 2015, 「공정무역커피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9권 제5호, 105~116쪽.

30 신상무·김민정, 2015, 「패션비즈니스에서 소비자의 에코라벨 인지도가 기업연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523~536쪽.

31 강은미·정영원·박은주, 2018, 「패션명품 구매시 정보원 이용이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3호, 1~13쪽.



〈그림 1〉 연구모형

2) 설문문항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하여 주요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설문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지불의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으며 김설예·유은·정재민³²과 김진희·이수범³³의 연구의 항목을 참고하여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건강증진의 조작적 정의는 소비자들이 수원왕갈비에 대하여 인지하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김효연·류기상·류형서³⁴와 정진이·함선옥³⁵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가격공정성은 소비자들이 수원왕갈비의 가격에 대하여 지각하는 수용가능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문준호·송명근³⁶과 문준

32 김설예·유은·정재민, 2016,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이 지속이용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TV 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57~84쪽.

33 김진희·이수범, 2017, 「한식 레스토랑의 지각된 품질이 재방문 의도와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경험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41권 제10호, 145~163쪽.

34 김효연·류기상·류형서, 2015, 「유기농 식품점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건강인식과 식품안전우려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18권, 377~395쪽.

35 정진이·함선옥, 2016, 「건강신념 및 외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519~538쪽.

36 문준호·송명근, 2019,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의 한국과 미국 소비자 충성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25권 제10호, 17~28쪽.

호·송명근·이원석³⁷의 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접근성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수원왕갈비에 대한 정보를 구독하는 데 대한 용이성으로 손지연·어숙희³⁸와 윤명애·유태순³⁹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도는 소비자들의 수원왕갈비에 대한 인지의 정도이며 고미애·김지연⁴⁰과 강은미·정영원·박은주⁴¹의 연구에 이용된 항목을 참고하여 항목을 도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온라인 패널 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설문 26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74부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유효표본율: 93.5%).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말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Statistical package in social science(SPSS)를 이용하였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요인적재량의 임계치로 0.5를 설정하고 아이겐 값 1을 임계치로 설정하였으며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임계치는 0.7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⁴²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의

37 문준호·송명근·이원석, 2019,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문점의 지불의사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레저연구』 제31권 제2호, 309~326쪽.

38 손지연·어숙희, 2008, 「화장품 온라인 쇼핑 시 온라인 구전 정보의 방향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제14권 제3호, 929~945쪽.

39 윤명애·유태순, 2010, 「신부의 웨딩드레스 선택요인 및 의사결정에 관한연구」, 『사회과학논총』 제9권, 75~94쪽.

40 고미애·김지연, 2015, 「공정무역커피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9권 제5호, 105~116쪽.

41 강은미·정영원·박은주, 2018, 「패션명품 구매시 정보원 이용이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3호, 1~13쪽.

42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주요 요인만을 이용한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추정된 계수의 유의성과 방향을 고려하여 이에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4.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56명, 여성은 21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107명, 30대가 125명, 40대가 83명, 50대가 37명, 60대가 22명으로 확인되었다. 월 가구 소득을 살펴보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성	156	41.7
	여성	218	58.3
연령	20~29세	107	28.6
	30~39세	125	33.4
	40~49세	83	22.2
	50~59세	37	9.9
	60세 이상	22	5.9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8	15.5
	200만~400만 원	144	38.5
	400만~600만 원	90	24.1
	600만~800만 원	44	11.8
	800만~1,000만 원	19	5.1
결혼 유무	미혼	170	45.5
	기혼	204	54.5
합계		374	100.0

면, 200만 원 미만인 58명, 200만~400만 원이 144명, 400만~600만 원이 90명, 600만~800만 원이 44명, 800만~1,000만 원이 19명, 1,000만 원 이상이 19명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유무에서는 미혼자가 170명 기혼자가 204명으로 나타났다.

2)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표 2〉는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의 결과이다. KMO 수치와 Bartlett's χ^2 의 통계치로부터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겐값 1을 임계치로 기준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모든 요인의 요인적재량은 0.5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 또한, 도출된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의 수치가 0.7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요인 분석 결과 각각의 요인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요인에는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인지도, 정보접근성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표 2〉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독립변수)

요인 (Cronbach's α)	항목	적재량	Eigen 값 (분산비율%)
건강증진 ($\alpha = .906$)	수원왕갈비는 건강에 좋다.	.824	1.540 (9.626)
	수원왕갈비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837	
	수원왕갈비는 체력 회복에 좋다.	.729	
	수원왕갈비는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774	
가격공정성 ($\alpha = .939$)	수원왕갈비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855	2.217 (13.854)
	수원왕갈비의 가격은 수용할 만하다.	.893	
	수원왕갈비의 가격은 공정하다.	.872	
	수원왕갈비의 가격은 받아들일 수 있다.	.809	
인지도 ($\alpha = .925$)	수원왕갈비는 유명하다.	.801	7.901 (49.382)
	수원왕갈비는 널리 알려져 있다.	.878	
	수원왕갈비의 인지도가 높다.	.859	
	수원왕갈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851	
정보접근성 ($\alpha = .871$)	수원왕갈비에 대하여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574	1.151 (7.196)
	수원왕갈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793	
	수원왕갈비에 대한 지식이 있다.	.865	
	수원왕갈비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다.	.847	

주: KMO = .905 Bartlett $\chi^2 = 4796.660$ $p < .01$

〈표 3〉은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의 결과이다. KMO 수치와 Bartlett's χ^2 의 통계치로부터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적재량의 수치는 0.5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Cronbach's α 의 수치가 0.7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각각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인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불의도로 명명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종속변수)

요인 (Cronbach's α)	항목	적재량	Eigen 값 (분산비율%)
지불의도 ($\alpha = .938$)	수원왕갈비에 지불 할 의사가 있다.	.911	3.380 (84.504)
	수원왕갈비에 기꺼이 지불 할 것이다.	.902	
	수원왕갈비에 대하여 구매할 의도가 있다.	.932	
	수원왕갈비 구매에 지불 의도가 있다.	.931	

주: KMO = .862 Bartlett $\chi^2 = 1325.843$ $p < .01$

3)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는 상관관계 분석 및 각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수치에 대한 결과이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지불의도의 3.35를 나타내고, 건강증진은 3.33, 가격공정성은 3.03, 정보접근성은 3.15, 인지도는 3.6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이용 의도는 건강증진($r = .669$, $p < .05$), 가격공정성($r = .636$, $p < .05$), 정보접근성($r = .553$, $p < .05$), 인지도($r = .593$, $p < .05$)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지불의도	3.35	0.75	1				
2. 건강증진	3.33	0.73	.669*	1			
3. 가격공정성	3.03	0.78	.636*	.583*	1		
4. 정보접근성	3.15	0.67	.553*	.494*	.487*	1	
5. 인지도	3.67	0.78	.593*	.531*	.357*	.539*	1

주: * $p < .05$

〈표 5〉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요인만을 이용한 회귀분석(모형 1)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이용한 회귀분석(모형 2)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모형의 F 값으로부터 회귀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p < .05$).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증진($\beta = .292, p < .05$), 가격공정성($\beta = .307, p < .05$), 정보접근성($\beta = .124, p < .05$), 인지도($\beta = .255, p < .05$)가 지불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제시된 4개의 가설 모두가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 지불의도		
	Model 1 β (t-value)	Model 2 β (t-value)	가설검증결과
(상수)	.119(0.85)	.211(0.91)	
건강증진	.292(6.42)*	.302(6.49)*	채택
가격공정성	.307(7.71)*	.299(7.29)*	채택
정보접근성	.124(2.68)*	.130(2.80)*	채택
인지도	.255(6.47)*	.254(6.34)*	채택
나이		-.043(-1.84)	
성별		-.009(-0.19)	
월가소득		-.002(-0.10)	
결혼유무		.022(0.42)	
F-value	146.76*	65.39	
Adjusted R ²	.6098	.6084	

주: * $p < .05$

5. 결론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에 대한 지불의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원왕갈비는 수원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유명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왜 구매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탐구한 연구는 다소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에 대한 지불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지불의도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인지도의 요인을 회귀변수로 이용하여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즉, 수원왕갈비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이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수원시 지자체에 수원왕갈비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왕갈비의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증진은 소비자들이 수원왕갈비의 동기가 된다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수원왕갈비의 건강증진적인 요인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공정성에 대한 결과는 수원왕갈비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보접근성에 대한 측면은 수원왕갈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소비자들이 더욱 더 많은 구매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인지도는 소비자들의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을 수원왕갈비를 대상으로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게 수행된 측면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불의도의 선행요인으로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및 인지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을 수원왕갈비 영역으로 확장하여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효연·류기상·류형서⁴³와 한춘미·박대섭⁴⁴은 각각 유기농식품과 유제품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의 측면이 소비자들의 의사결

43 김효연·류기상·류형서, 2015, 「유기농 식품점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건강인식과 식품안전우려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18권, 377~395쪽.

44 한춘미·박대섭, 2018, 「건강신념이 우유 및 유제품 섭취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21권, 101~124쪽.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수원왕갈비 영역으로 확장하여 설명력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격공정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문준호·송명근·이원석⁴⁵이 샌드위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가격공정성과 지불의도와의 정(+)의 관계를 보다 고가인 왕갈비 상품 영역에서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조승행⁴⁶이 검증한 바와 같이 관광정보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관광지에서 소비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상무·김민정⁴⁷과 강은미·정영원·박은주⁴⁸가 패션제품영역에서 인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음식 관련 의사결정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측면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수원왕갈비에 대한 마케팅의 방안에 대한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즉, 수원왕갈비의 홍보에 있어서 건강증진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한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지불의도를 자극하며 수원왕갈비의 보다 많은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수원왕갈비 매장 경영자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합부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방식의 경영전략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공정성에 대한 지각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실질적인 구매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면에서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원왕갈비 경영자 및 지방자치정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의 정보를 보다 많이 생산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보다 쉽게 구독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정부는 수원왕갈비에 대한 인지도를 일반소비자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45 문준호·송명근·이원석, 2020, 「평화열차 재이용 의도와 지불의도의 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제29권 제2호, 229-243쪽.

46 조승행, 2016, 「Social Network Service 정보 특성과 소비자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31권 제5호, 105-123쪽.

47 신상무·김민정, 2015, 「패션비즈니스에서 소비자의 에코라벨 인지도가 기업연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523-536쪽.

48 강은미·정영원·박은주, 2018, 「패션명품 구매시 정보원 이용이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3호, 1~13쪽.

홍보 측면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수원왕갈비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계수를 비교해 보면, 가격공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원왕갈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건강증진과 인지도, 정보접근성이 다음으로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 대한 정보를 수원왕갈비 관련 외식업 경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불의도 하나에만 국한되었다는 측면이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연구는 보다 다양한 소비자 행동 관련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연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는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9년 12월 1일 심사일 2020년 5월 21일 ~ 29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2일

참고문헌

- 강은미 · 정영원 · 박은주, 2018, 「패션명품 구매시 정보원 이용이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3호, 1~13쪽.
- 고미애 · 김지연, 2015, 「공정무역커피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9권 제5호, 105~116쪽.
- 고범석 · 강석우, 2004, 「대구지역 향토음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대구 동인동 짬 갈비를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10권 제4호, 15~30쪽.
- 김동우 · 유재영 · 정원조, 2014,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결정 요인 연구」,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385~395쪽.
- 김상철, 2000, 「지역축제의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6권 제3호, 193~223쪽.
- 김상현 · 박현선, 20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이 사용자 만족과 애플리케이션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제20권 제3호, 81~109쪽.
- 김설예 · 유은 · 정재민, 2016,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이 지속이용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57~84쪽.
- 김영신, 2017,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 구매경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29~49쪽.
- 김진희 · 이수범, 2017, 「한식 레스토랑의 지각된 품질이 재방문 의도와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경험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41권 제10호, 145~163쪽.
- 김현정 · 이희찬, 2017, 「외식기업 SNS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만족,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31권 제11호, 195~209쪽.
- 김현철, 2009, 「건강메뉴 지각, 축제음식에 대한 우려, 축제 만족 및 재방문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제33권 제4호, 357~379쪽.
- 김효연 · 류기상 · 류형서, 2015, 「유기농 식품점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건강인식과 식품안전우려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18권, 377~395쪽.
- 문성중 · 김민철 · 부창산, 2008, 「제주 들불 축제 평가속성의 만족 및 지불의사 영향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7권 제3호, 157~173쪽.
- 문숙재 · 박은희 · 차경옥, 2006,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27~42쪽.

- 문준호 · 송명근, 2019,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의 한국과 미국 소비자 충성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25권 제10호, 17~28쪽.
- 문준호 · 송명근 · 이원석, 2019,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문점의 지불의사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레저연구』 제31권 제2호, 309~326쪽.
- 문준호 · 송명근 · 이원석, 2020, 「평화열차 재이용 의도와 지불의도의 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제29권 제2호, 229~243쪽.
- 민계홍, 2010, 「김제지역의 향토음식 개발을 통한 관광상품화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4권 제3호, 295~309쪽.
- 박승환, 2018,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서비스품질과 가격공정성, 기대일치 및 고객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7권 제4호, 531~544쪽.
- 박찬욱, 2003,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내재적 속성과 상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요인에 관한 연구: 관여와 제품지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3호, 67~83쪽.
- 박태희 · 김재휘, 2018,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가격제시순서 (오름/내림차순) 와 정보처리 목표 접화가 가격지각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제19권 제2호, 349~372쪽.
- 성혜진 · 정용해 · 유세란, 2016, 「와인소믈리에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가격공정성 및 재구매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463~482쪽.
- 손지연 · 어숙희, 2008, 「화장품 온라인 쇼핑 시 온라인 구전 정보의 방향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제14권 제3호, 929~945쪽.
- 송명근 · 문준호, 2020, 「스타벅스 가격공정성의 친환경인식과 추가지불의도에 대한 매개효과」, 『이벤트컨벤션연구』 제37권, 115~130쪽.
- 수원시, 2018, 「수원시 800만 관광객시대 열었다」.
- 신상무 · 김민정, 2015, 「패션비즈니스에서 소비자의 에코라벨 인지도가 기업연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523~536쪽.
- 오송희 · 송명근, 2019, 「저가 커피 전문점 메뉴 속성의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레저연구』 제31권 제9호, 331~349쪽.
- 우형진, 2014, 「지각된 사이버 보안 위험이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기술채택 및 지속이용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여도, 보호동기, 비용지불의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220~257쪽.
- 양정애 · 장현미, 2014,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능력이 상품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2호, 160~190쪽.

- 윤명애 · 유태순, 2010, 「신부의 웨딩드레스 선택요인 및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9권, 75~94쪽.
- 이상미, 2013, 「약선음식의 인지도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459~468쪽.
- 이수정 · 양위주, 2013, 「경험유무에 따른 미의식이 외모관리행동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제22권 제4호, 283~297쪽.
- 이용일, 2018, 「제주도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호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32권 제9호, 203~214쪽.
- 이원석 · 문준호 · 박세중, 2018, 「피자 서비스에서의 가격 공정성과 재구매 의도에 대한 건강 염려의 조절효과」,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4권 제1호, 141~152쪽.
- 이의선 · 옥경영 · 문정숙, 2019, 「블록체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수용, 저항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30권 제3호, 51~72쪽.
- 이 정, 2011, 「정보이론의 엔트로피 관점에서의 바라본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소비자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 감소 효과」,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4호, 241~256쪽.
- 이제홍, 2016,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에서 FTA 체결국인 미국, 중국제품의 가격공정성이 구매만족,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4호, 305~318쪽.
- 이중호, 2018, 「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외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강가치인식의 조절효과」,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제24권 제8호, 92~101쪽.
- 이지환 · 김태형, 2019, 「스키리조트 가격 공정성 인식이 기업신뢰와 구매행동 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4호, 505~515쪽.
- 정진이 · 함선옥, 2016, 「건강신념 및 외식 영양표시 이용의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519~538쪽.
- 조성수 · 최성진 · 이영주, 2013, 「온라인에서의 지상파방송 동영상콘텐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작권 인식, 콘텐츠 특성, 플랫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348~359쪽.
- 조승행, 2016, 「Social Network Service 정보 특성과 소비자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31권 제5호, 105~123쪽.
- 조은희 · 한진수, 2018, 「동영상 UCC (User Created Content) 관광정보 품질이, 이용자 만족, 방문의도, 정보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7권 제2호, 163~179쪽.
- 한춘미 · 박대섭, 2018, 「건강신념이 우유 및 유제품 섭취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제21권, 101~124쪽.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수원왕갈미 뜯고 수원화성 돌아드니」, 『동아일보』, 2019년 11월 14일.

요 약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원왕갈비는 수원의 특산물로 가치 있는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의 특성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한다. 지불의도에 대한 회귀변수로 본 연구는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인지도를 주된 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4부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4가지 요인(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인지도) 모두 지불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수원왕갈비 소비자들의 인식을 탐구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수원왕갈비, 지불의도, 건강증진, 가격공정성, 정보접근성, 인지도

ABSTRACT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to Pay : For the Local Cuisine of Suwon Royal Beef Ribs

Moon Joon-ho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pay for Suwon Wang Galbi or Suwon's local cuisine of royal beef ribs. Despite of the value of the iconic local cuisine as a tourist attraction, there is a lack of study on this subject. Given such gap,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to pay for Suwon beef ribs. In this study, healthiness, price fairness,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awareness are applied as regressors, and 374 copies of a questionnaire a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is include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matrix,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all of the four attributes (healthiness, price fairness,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awareness) have positive impact on willingness to pay. Such results bear practical implications in term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local cuisine and identifying consumers' awareness.

Key words: Suwon royal ribs, willingness to pay, healthiness, affordability,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awareness

수원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가치를 조절효과로

김건휘*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 5. 결론

1. 서론

전통시장은 해당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물품과 정보를 교환하는 유통의 장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장소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해 왔다.¹ 또한 전통시장은 역사와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장소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형성이 되어 서로 간의 교류, 소통,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져 지역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²

* 장안대학교 외식산업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oodService Industry Management, Jang-An University), E-mail : notnice@hanmail.net, Tel : 010-3124-3030

1 조은영,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의 SNS 활용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1), 117~134쪽.
2 강혜숙·문정인, 2014, 「IPA분석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강릉 중앙시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4), 87~105쪽.

1996년 정부의 전면적인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유통 업체가 확산되었고,³ 그 중 대형마트는 재래시장과 백화점이라는 양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던 한국 소매 유통산업의 틈새를 파고들어 현재 국내 대표 소매 업체로 자리매김했고, 합리적 가격 판매 전략과 편리함, 세련됨을 갖춰 전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컸다.⁴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상황을 인식하고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법률 제정을 통해 구조 개선과 활성화를 추진하였지만,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설 개선 및 현대화에 편중되고 있고, 각 시장에 대한 특성 진단이 미흡하고 한정되고, 비실용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며,⁵ 전통시장 상인들이 영세하고 비전문적 마케팅 홍보활동은 고객만족도와 점포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⁶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의 식품산업, 즉 외식은 대형화, 서비스화, 전문화 등의 현재 추세에 밀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⁷

오늘날 외식소비자들은 삶에 대한 가치는 물질 충족에서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변화되어 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⁸ 이러한 시대 변화는 음식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생리적인 욕구 해결에서 맛과 분위기를 즐기고, 개인의 기호 충족 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외식문화 성향이 정착되고 있다.⁹ 소비자들은 음식에 대한 기호도 다양하고 맛과 멋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도 있으며, 외식업체의 선택속성 또한 영양과 다이어트, 계절에 따른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

3 이재형, 1996, 「유통 환경의 변화와 공정거래 정책의 과제」, 『경쟁저널』 6(1), 38~43쪽.

4 서용구·조준한, 2019,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유통연구』 24(3), 133~148쪽.

5 윤상복·김주홍·이동현·김재승, 2013, 「Landscape Characterization Analysis of Beach by Cognitive Image」, 『한국자료분석연구』 15(4), 1777~1787쪽.

6 강혜숙·문정인, 2014, 「IPA분석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강릉 중앙시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4), 87~105쪽.

7 조용현, 2019, 「전통시장 외식업소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시민행동, 관계지향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객시민행동과 관계지향성의 매개효과」,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전해경, 2013, 「한식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김동석, 2013, 「친환경 소비 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9(1), 103~120쪽; 김지웅·강진희, 2016, 「매스티지 상품의 소비가치가 프레이밍 효과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1(4), 249~277쪽.

국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까지 갈수록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¹⁰ 또한 현대의 외식소비자들은 분위기, 스타일 등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외식소비를 하면서 얻어지는 정서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한다.¹¹ 이에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외식에 대한 가치와 외식 경험에 대한 기능적 가치를 평가하여, 구매의사 결정과 고객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면 외식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대한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¹² 오늘날 외식시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변적인 소비행동을 읽어내기 위해서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인을 찾아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¹³

국내 외식소비성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금호¹⁴는 외식기업의 O2O (Online to Offline)서비스의 소비가치가 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연구, 송주원¹⁵은 Z세대를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이 외식업체 선택속성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는 드물고 소비자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가치를 조절변수로 활용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시장 외식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체계적이고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하에 수원외 대표적 전통시장인 수원 영동시장(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테오시장, 남문패션1번가, 구천

10 최영정·최규환, 2010, 「Post Mass Tourism으로서의 책임관광 구성타당성 검증」, 『관광학연구』 34(2), 101~120쪽.

11 김태희·박영석, 2005,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레스토랑 실내이미지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가정과 환경저널』 43(10), 69~79쪽.

12 최형민·이형룡, 2011,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의 경험적 가치가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3), 243~266쪽.

13 Ambler, T., Bhattacharya, C. B., Edel, I. J. & Keller, K. L., 2002, "Relating Brand and Customer Perspective Marketing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5(1), pp.13~26.

14 이금호, 2020, 「외식기업 O2O 서비스의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용동기와 관여도를 조절 효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송주원, 2020, 「Z세대의 외식소비성향이 외식업체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9(1), 289~312쪽.

동공구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 행동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의 관계 간에 수원 전통시장의 소비가치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수원시는 팔달문 인근 전통시장에 대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35억 원을 투자해 도시 경관 및 도로 환경의 개선, 고객지원센터와 쉼터의 조성, 아케이드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시장 상인들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변신을 시도하였고, 2014년에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수원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 행동의도, 소비가치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수원 전통시장 방문객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수원 전통시장 방문객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 간에 소비가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원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 행동의도, 소비가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외식업소 방문 소비자의 구매추세 및 행동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여 전통시장의 외식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고, 수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학문적 시사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전통시장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장(市場)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또는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상품의 판매·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저자’ 또는 ‘저재’ 등으로 명칭되었다. 2009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사용된 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등의 다소 혼재된 용어 사용을 ‘전통시장’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단일화하였다.

2010년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통시장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또는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넓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2015년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시장의 의미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나타내고 있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의 발전으로 전통시장이 점차 쇠퇴를 거듭하게 되었으며,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과 함께 영세상인의 몰락이 이어져 도시 내 지역, 산업 간 균형적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 전통시장 회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중소 유통 상인을 위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시장 고유 특성을 강화하며 효율성을 살려, 차후 유통업체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4년 1,398개 2015년 1,439개, 2016년 1,441개, 2017년 1,450개로 2017년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6년 대비 8개가 증가하였다. 시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장의 크기별로는 대형시장이 2개 중형시장이 25개 증가 시장 개설 주기별로는 20개의 상설시장이 증가하였다(〈표 1〉).

시도별 시장 수는 서울이 211개로 14.6%를 차지, 그 다음으로 부산 176개로 12.1%, 경남 158개로 10.9%, 경북 9.9%, 경기도 138개 9.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표 2〉).

16 심민섭, 2016,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경향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도시(서울특별시,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전주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1〉 2017년 전국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전체		1,441	1,450	9
시장크기	대형시장	20	22	2
	중대형시장	35	33	-2
	중형시장	155	480	25
	소형시장	931	915	-16
개설주기	상설시장	1,007	1,027	20
	정기시장	174	163	-11
	상설+정기시장	260	260	-

자료: 2017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표 2〉 2017년 시도별 전통시장 수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시장	211	176	118	45	27	28	39	138	60	60	57	58	104	143	158	24	4	1450
비율	14.6	12.1	8.1	3.1	1.9	1.9	2.7	9.5	4.1	4.1	3.9	4.0	7.2	9.9	1.09	1.7	0.3	100

자료: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2017.

본 연구에서는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수원 영동시장(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테오시장, 남문패션1번가, 구천동공구시장)을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외식 소비를 하였던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를 진행한다.

2) 소비성향

소비는 사람들이 본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활동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용역 또는 물자를 소모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본인과 타인을 차별화하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⁷ 최근의 소비시

17 제은숙, 2012, 「소비자 혁신성이 패션소비성향과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30대 여성 스마트폰 사용

장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의 양극화, 소비행위의 양면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소비성향이 형성되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가치에 대한 의미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능적 효용이나 상업적 가치보다는 소비자 자신의 개성이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소비자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¹⁸ 소비성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타인과의 소통과 자신의 심리적 충족감을 실현시키는 측면에서 자아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¹⁹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이 그들의 자아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²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비성향이란 소비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이며, 소비문화의 특징인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되며, 개인과 사회, 타인과의 관계를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소비성향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광욱²²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비자의 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여 활동하는 특정한 개인성향이라고 하였다. 안세희·명소형·윤덕인²³은 상품구매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개인 활동으로 해당 소비에 대한 특정한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였으며, 김태희·이승하·박홍현²⁴은 경제의 구조와 사회활동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외식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나타나는 외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식소비는 외식 소비자의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식소비성향에 따라 선호하

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4), 580쪽.

- 18 심혜경, 2015, 「중국 관광객의 웨딩관광 상품속성, 소비성향과 만족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조윤기·이상민, 2008, 「타인 의식적 소비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2), 263~284쪽.
- 20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pp.389~406.
- 21 유광수, 2012, 「골프용품 구매자의 소비성향과 브랜드에 따른 소비자행동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광욱, 2008, 「외식소비자의 개인가치성향이 브랜드 인지유형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안세희·명소형·윤덕인, 2014, 「커피전문점 이용자의 감성적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8(8), 271~293쪽.
- 24 김태희·이승하·박홍현, 2006,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분석」, 『관광연구저널』 20(3), 313~323쪽.

는 레스토랑의 분위기, 서비스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구매행동 결정을 하게 되는 외식소비의 특정한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만큼 외식소비성향에 대한 구성요인도 다양한데, 이채은²⁵은 소비성향이 해외여행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에서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식성향, 자원절약성향, 계획구매성향, 과시소비성향, 충동구매성향의 5가지 요인으로 각각 다른 소비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영주·김기영,²⁶ 최미숙·길기연·나영아²⁷는 실속, 안전, 품위, 편의 이상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진은경·박영희·이종호²⁸는 맛 추구, 경제가치 추구, 건강 추구, 분위기 추구, 신속 편의 추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김희영²⁹은 외식소비성향을 편의 추구, 경제가치 추구, 외식 향유, 건강 추구, 맛 추구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성향을 외식소비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비자의 내·외적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외식구매 활동을 하는 특정한 개인성향이며 소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스타일이라고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행동의도

의도란 핵심 개념으로 특정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유일한 결정과 선행요인으로 주관적인 규범 및 행동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긍정적인 함수

25 이채은, 2009, 「해외여행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여행 상품속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24(2), 199~218쪽.

26 이영주·김기영, 2011, 「실버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연구」, 『여가관광연구』 17, 85~111쪽.

27 최미숙·길기연·나영아, 2013, 「실버세대의 소비성향과 외식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7(3), 349~369쪽.

28 진은경·박영희·이종호, 2014, 「외식 소비성향에 따른 한식당 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0(1), 189~204쪽.

29 김희영, 2015, 「실버세대의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이 고객행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관계를 갖으면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³⁰ 따라서 행동의도는 행동결정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또는 매장을 방문하는 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구매 및 방문을 하려는 의도와 의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³¹

Bowen & Schneider³²는 서비스 생산에서 고객은 부분적으로 종업원의 역할을 자주 수행하게 되며 고객들은 조직의 내부에 있지는 않지만 유형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직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³³ Boulding³⁴은 행동의도를 고객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라고 하였으며, 재이용, 지속적인 이용, 그리고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Zeithaml³⁵은 고객이 해당 기업에 계속 남아 있거나 이탈하려는 것으로 보고 크게 호의적 행동의도와 비호의적 행동의도로 나누었으며, 호의적 행동의도에는 긍정적인 구전 및 추천, 높은 가격 지불, 충성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비호의적인 행동의도에는 전환, 부정적 구전효과, 불평 등이 있고 불평은 언어적 반응, 개인적 반응 및 제3자 반응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김주연³⁶은 행동의도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소비행동과 관련된 재방문 의도나 구매의도와 같은 미래행동을 계획하고 변경하려는 의지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서비스 제공이 경험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구전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기

30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31 박형국, 2017, 「외식음료매장의 비주얼머천다이징 인지차원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Bowen, D. E. & Schneider, B., 1988, "Service Marketing and Management :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0(1), pp.43-80.

33 강호계·송인암·황희중, 2013, 「교육서비스 품질과 교육성과의 기대일치여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기업의 TOEIC사업을 중심으로」, 『유통과학연구』 11(2), 71~81쪽.

34 Boulding, W., Kalra, A., Staelin, R., & Zeithaml, V. A., 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pp.7-31.

35 Zeithaml, V. A., and Berry, L. L. &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pp.31-46.

36 김주연, 2007,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서비스가 고객의 감정적 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업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자신과 동일한 입장인 소비자를 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고객은 그러한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타인의 조언과 제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했다.

행동요인에 대한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Eggert & Ulaga³⁷는 행동의도를 재방문의도와 구전의사로, 최은주³⁸는 항공사 판매촉진이벤트의 서비스품질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재이용의도, 추천의도, 전반적 만족도로, 현경석³⁹은 제주지역 호텔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 고객가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전 커뮤니케이션, 가격 민감성, 재방문의도로 구분하였다. 이흥연⁴⁰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외식서비스의 품질이 고객의 가치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추가비용 지불의사, 재방문의도, 긍정적 구전, 추천의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재이용, 재방문, 지속적 이용, 긍정적 구전, 타인추천 등을 행동의도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⁴¹

이에 따라 행동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방문자의 특성에 맞춰 행동의도를 추천의도 및 재방문의도로 구성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4) 소비가치

가치(Value)란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가 옳다고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념과 원리이고, 기본적인

37 Eggert, Andreas. and Wolfgang Ulaga, 2002, "Customer Perceived Value: A Substitute For Satisfaction in Business Markets?", *Journal of Business & Industrial Marketing*, 17(2), pp.107~118.

38 최은주, 2009, 「항공사 판매촉진이벤트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9 현경석, 2009,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 고객가치,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특 1급 호텔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0 이흥연, 2010, 「외식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이 고객의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패밀리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1 최병호, 2013, 「패밀리레스토랑 혼잡성이 감정, 이용가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산업학회지』 9(3), 한국외식산업학회, 125~141쪽.

인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가치에 대한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주로 태도, 욕구, 흥미, 신념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⁴² 소비가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모두 욕구와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치는 고객들이 상품 구매 활동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소비자 행동에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에서 소비를 하는 주체인 본인 자신에게 많은 혜택이 있거나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가치의 순서대로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⁴³

소비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Sheth, Newman & Gross⁴⁴는 소비자가 시장을 선택, 즉 특정상표를 선택하고 제품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Holbrook⁴⁵은 가치의 창출이나 소비행동을 유발하는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활동에서 형성이라고 하였다. 권미화·이기춘⁴⁶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표현으로써 특정 소비행동 양식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개인의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하였으며, 이창원·이상환⁴⁷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의 표현,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소비가치에 대한 구분을 Sheth, Newman & Gross⁴⁸는 소비자의 특정 제품 구매 혹은 비구매, 제품이나 서비스 유형과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42 윤효실·윤혜현, 2013, 「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행동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2(1), 253~267쪽.

43 김성연, 2018,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딩이벤트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이 웨딩이벤트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4 Sheth, J. N., &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 pp.159~170.

45 Holbrook, M. B., 1999, *Customer Valu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Research*, London: Routledge.

46 권미화·이기춘, 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169~193쪽.

47 이창원·이상환, 2013, 「명품브랜드의 소비가치와 동일시, 애착, 소비자행복의 관계와 자아해석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6(6), 29~42쪽.

48 Sheth, J. N., &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 pp.159~170.

요인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소비가치를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상황적 가치, 인식적 가치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이러한 5가지 유형의 소비가치에 기초하여 선택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Sweeney & Soutar⁴⁹는 소비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받으며, 소비자의 경제적인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반영하는 구성 개념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소비 가치에 관련된 구성 요인들을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가격측면 가치, 품질적 가치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김선우·김난도⁵⁰는 소비가치를 의미성과 상호작용 성으로 나누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미지를 표상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라고 하였다. 박민지·손상희⁵¹는 소비가치는 서비스와 상품의 구입과정으로 의사 결정에 직면하고 상품의 선택 여부 등이 포함되며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의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외식 소비를 할 때 소비가치를 한 개인이 지속적인 신념을 가지고, 소비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소비가치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성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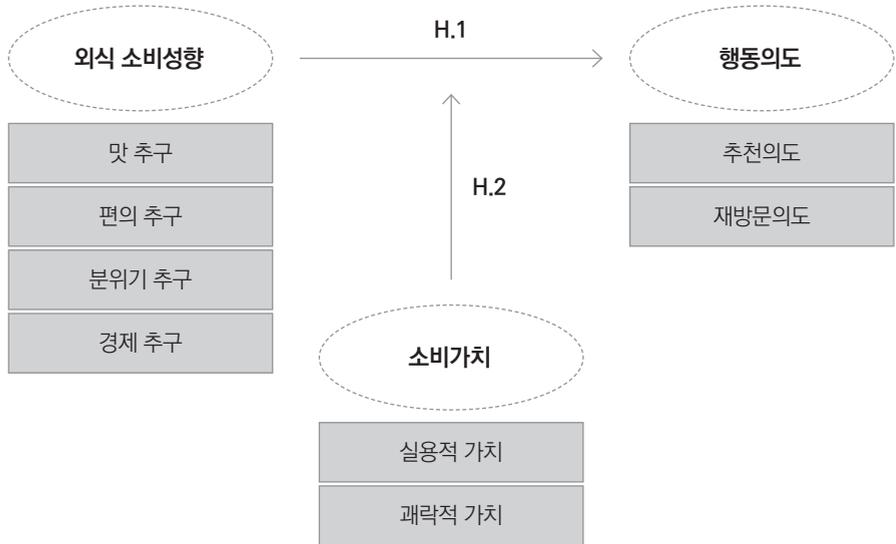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수원 전통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소비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의 관계 어떠한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9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1), p.203.

50 김선우·김난도, 2011, 「소비문화의 차원화 및 척도개발: 서울, 뉴욕, 스톡홀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학연구』 22(4), 135~161쪽.

51 박민지·손상희, 2015, 「소비자의 혜택 및 위험 지각이 중고유아용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 가치와 사회규범의 조절효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4), 105~131쪽.



〈그림 1〉 연구모형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얻어진 여러 변수들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가설설정

(1)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윤기·이상민⁵²은 타인 의식적 소비성향이 충성도와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최형민·이형룡⁵³은 커피전문점 브랜드태도와 충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52 조윤기·이상민, 2008, 「타인 의식적 소비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2), 263~284쪽.

53 최형민·이형룡, 2011,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의 경험적 가치가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3), 243~266쪽.

김도희·박병진⁵⁴은 이용고객의 감정과 만족, 그리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인과관계 모형에서 감성적인 경험보다 사용고객의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서영태⁵⁵는 HMR외식소비성향의 건강추구, 실속 추구, 체험추구, 맛추구 이상 4가지 요인이 모두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관련 인과관계 모형에서 감성적인 경험보다 사용고객의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이를 통한 감정은 고객만족의 매개변수로 작용되었고, 행동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H1 : 외식소비성향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 외식 맛 추구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 외식 편의 추구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 외식 분위기 추구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 외식 경제 추구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 외식 맛 추구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6 : 외식 편의 추구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7 : 외식 분위기 추구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8 : 외식 경제추구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소비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 간의 조절관계

박민지·손상희⁵⁶는 소비자의 혜택 및 위험 지각이 중고 유아용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하였

54 김도희·박병진, 2013, 「호텔체류경험이 고객감정,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26(9), 2477~2499쪽.

55 서영태, 201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HMR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HMR관여도를 조절변수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박민지·손상희, 2015, 「소비자의 혜택 및 위험 지각이 중고유아용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 가치와 사회규범의 조절효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4), 105~131쪽.

고, 정성⁵⁷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치를 쾌락적 소비가치, 실용적 소비가치로 분류하고, 한국 면세점 만족도에 대해 한국 면세점 서비스 품질 중 판매원, 상품, 판매촉진 등 쾌락적 소비가치에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호⁵⁸는 외식기업 O2O 서비스의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O2O 서비스의 소비성향은 행동의도 요인 중 추천의도,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H2 : 소비가치는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 : 실용적 가치는 맛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2 : 실용적 가치는 편의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3 : 실용적 가치는 분위기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4 : 실용적 가치는 경제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5 : 실용적 가치는 맛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6 : 실용적 가치는 편의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7 : 실용적 가치는 분위기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8 : 실용적 가치는 경제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9 : 쾌락적 가치는 맛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0 : 쾌락적 가치는 편의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1 : 쾌락적 가치는 분위기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2 : 쾌락적 가치는 경제 추구하고 추천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3 : 쾌락적 가치는 맛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4 : 쾌락적 가치는 편의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5 : 쾌락적 가치는 분위기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2-16 : 쾌락적 가치는 경제 추구하고 재방문의도 간에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57 정성, 2018, 「중국 관광객의 한국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치, 서비스 품질 평가가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 이금호, 2020, 「외식기업 O2O 서비스의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용동기와 관여도를 조절 효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조사대상 및 기간과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원 전통시장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소비가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대상은 수원 대표 전통시장인 수원 영동시장(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 구천동공구시장)을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외식소비를 하였던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 까지 2주간(14일) 실시하였다. 설문은 본 연구자 및 외식산업 전공 대학생 2명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지 작성방법 등을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킨 후 설문을 받았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9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27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순서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타당도를 분석을 위하여 측정항목 간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항목들 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및 단일 차원성을 판단하는 Cronbach's α 값을 구했고, 변수들 간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소비가치가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외식소비성향을 김태희·이상하·박홍현⁵⁹은 사회활동과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외식소비에서 소비지향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구매를 나타내는 외식소비활동이라고 하였다. 박정임⁶⁰은 외식소비성향을 외식소비

59 김태희·이상하·박홍현, 2006,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분석」, 『관광연구저널』 20(3), 313~323쪽.

60 박정임, 2016, 「강정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 경제활동으로 소비자의 내·외적인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외식구매활동을 하게 되는 특정한 개인성향이며, 소비에 관한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성향을 외식소비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비자의 내·외적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외식구매 활동을 하는 특정한 개인성향이며 소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스타일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로 이상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하위변인별 각각 3개의 항목을 제시한 뒤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행동의도를 이정실·박영주⁶¹는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구매 이후 느끼게 되는 내적인 반응과 경험의 바탕으로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수정하려는 고객의 의지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양성진·조용범⁶²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주로 구매행동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제품의 속성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보다 높은 구매의도가 형성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방문객 또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도라고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동의도를 추천의도, 재방문의도 이상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하위 변인별 각각 2개의 항목을 제시한 뒤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비가치는 Sheth⁶³는 소비에 대한 특정한 가치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정하고,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추상적인 개념을

530~538쪽.

- 61 이정실·박영주, 2005, 「호텔레스토랑의 서비스 스케이프,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의도와와의 관계: 부산지역 관광호텔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6(2), 105~128쪽.
- 62 양성진·조용범, 2019, 「고급 한식당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이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회복의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25(6), 121~130쪽.
- 63 Sheth, J. N., &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 pp.159~170.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Zeithaml⁶⁴는 소비가치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이익과 제품을 구매하는 것 또는 서비스에 지불되는 원가를 비교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치를 전통시장에서의 외식 소비를 함에 있어서 소비가치를 한 개인이 지속적인 신념을 가지고, 소비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소비가치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이상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하위 변인별 각각 2개의 항목을 제시한 뒤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측정요인	문항수	척도	선행연구	
A	외식소비성향	맛 추구	3	Likert 5점	김태희·이상하·박홍현(2006) 박정임(2016)	
		편의 추구				
		분위기추구				
		경제 추구				
B	행동의도	추천의도	2			이정실·박영주(2005)
		재방문의도				
C	소비가치	실용적 가치	2			Sheth(1991) Zeithaml(1998)
		쾌락적 가치				
D	인구 통계학적 특성		8	명목척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4.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의 설문은 수원 대표 전통시장인 수원 영동시장(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테오시장, 남문패션1번가, 구천동공구시장)을

64 Zeithaml, V. A., and Berry, L. L. &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pp.31~46.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외식소비를 하였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278명 중에서 여성 150명(54.0%)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응답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41~50세가 76명(27.3%)을 차지하고 있어 응답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성별	남성	128	46.0	월수입	100만~200만 원	32	11.5	
	여성	150	54.0		200만~300만 원	101	36.3	
	합계	278	100		300만~400만 원	73	26.3	
연령	20세 미만	18	6.5		400만~500만 원	46	16.5	
	20~30세	50	18.0		500만 원 이상	26	9.4	
	31~40세	47	16.9		합계	278	100	
	41~50세	76	27.3		직업	학생	49	17.6
	51~60세	47	16.9			서비스	28	10.1
	61~70세	28	10.1	전문직		19	6.8	
	71세 이상	12	4.3	자영업		39	14.0	
	합계	278	100	회사원		50	18.0	
학력	고졸 이하	38	13.7	공무원		18	6.5	
	전문대졸	131	47.1	가사		64	23.0	
	대졸	94	33.8	기타		11	4.0	
	대학원 이상	15	5.4	합계	278	100		
	합계	278	100	전통 시장 방문 동기	외식	71	25.5	
결혼 유무	외식	71	25.5		미혼	84	30.2	
	관광	80	28.8		기혼	194	69.8	
	물품구입	88	31.7		합계	278	100	
	문화행사	24	8.6		외식 1회 평균 지출 비용	1만 원 미만	20	7.2
	기타	15	5.4			1만~2만원 미만	137	49.3
	합계	278	100	2만~3만원 미만		78	28.1	
			3만 원 이상	43		15.5		
			합계	278		100		

결혼 여부는 기혼이 194명(69.8%), 학력은 전문대졸이 131명(47.1%), 월수입은 200만~300만 원이 101명(36.3%), 직업은 가사가 64명(23.0%), 전통시장 방문동기는 물품구입이 88명(31.7%), 외식 1회 평균지출비용은 1만~2만 원 미만이 137명(49.3%)로 높게 조사되었다.

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타당성은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뢰성이란 유사한 조건 아래서 같은 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반복된 자료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일성을 나타내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⁶⁵

(1) 외식소비성향 서비스품질 타당성 및 신뢰도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 결과 적합하게 파악되었고, KMO의 0.735로 표본의 적합도 결과 요인적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분석 시 요인적재값 추정은 주 성분방식을 택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의 요인명은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총 누적분산 설명력은 82.608%로 나와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값은 모두 0.927, 0.906, 0.867, 0.777으로 모두 0.6 이상으로 설문도구의 내적 일치도도 양호하였다.

65 채서일, 2013, 『사회과학조사방법론』(개정 3판), 비엔엠북스.

〈표 5〉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KMO Bartellett	Cronbach α		
맛 추구	가격보다도 음식의 맛을 생각하는 편이다	.935	2.726	22.720	KMO=.735 Bartellett =2958.621***	.927		
	오래 기다려서라도 먹는 편이다.	.872						
	서비스가 나빠도 이용하는 편이다.	.824						
편의 추구	오랫동안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912	2.567	21.394		KMO=.735 Bartellett =2958.621***	.906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898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외식업소를 찾는다	.665						
분위기 추구	기분전환을 위한 외식을 하는 편이다.	.945	2.484	20.699			KMO=.735 Bartellett =2958.621***	.867
	혼자서도 외식을 즐기는 편이다.	.915						
	외식비 지출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600						
경제 추구	음식의 가격에 예민한 편이다.	.890	2.135	17.795	KMO=.735 Bartellett =2958.621***			.777
	할인 혜택에 민감한 편이다	.851						
	예산범위에 맞는 음식점을 선택한다.	.627						

주: *** $p < .001$

(2) 행동의도 타당성 및 신뢰도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 결과 적합하게 파악되었고, KMO의 0.640로 표본의 적합도 결과 요인 적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 분석 시 요인 적재값 추정은 주 성분방식을 택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행동의도의 요인명은 추천의도, 재방문의도로 정하였다.

총 누적분산 설명력은 78.159%로 나와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값은 모두 0.795, 0.631로 모두 0.6 이상으로 설문도구의 내적 일치도도 양호하였다.

〈표 6〉 전통시장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KMO Bartellet	Cronbach α	
추천 의도	전통시장 외식업소를 지인 및 친구들에게 권유할 것이다.	.894	1.674	41.848	KMO=.640 Bartellet =273.843***	.795	
	전통시장 외식업소를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892					
재방문 의도	전통시장 외식업소를 다음에도 다시 방문할 것이다.	.878	1.464	36.311		KMO=.640 Bartellet =273.843***	.631
	전통시장 외식업소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할 것이다.	.795					

주: ***p<.001

(3) 소비가치 타당성 및 신뢰도

소비가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 결과 적합하게 파악되었고, KMO의 0.642로 표본의 적합도 결과 요인적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 분석 시 요인 적재값 추정에는 주성분 방식을 택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전통시장 소비가치의 요인명은 실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로 정했다.

총 누적분산 설명력은 84.784%로 나와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값은 모두 0.894, 0.813으로 모두 0.6 이상으로 설문도구의 내적 일치도도 양호하였다.

〈표 7〉 소비가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KMO Bartellett	Cronbach α
실용적 가치	전통시장 외식업소가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926	1.825	42.625	KMO=.642 Bartellett =548.537***	.894 .894
	전통시장 외식업소에서 소비한 돈과 시간을 고려할 때 편리하다.	.919				
쾌락적 가치	전통시장 외식업소를 방문하면서 보낸 시간은 즐겁다.	.923	1.686	42.159		.813 .813
	전통시장 외식업소는 다양한 음식을 이용할 수 있어 행복한 느낌을 받는다.	.856				

주: ***p<.001

3) 상관관계 검증

각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 요인 간 상관계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충족되었으며 상관계수 방향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예측타당성이 있다.

〈표 8〉 상관관계

변수명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	추천 의도	재방문 의도	실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
맛 추구	1							
편의 추구	.470**	1						
분위기 추구	.451**	.525**	1					
경제 추구	.412**	.459**	.240**	1				
추천의도	.710**	.576**	.571**	.346**	1			
재방문 의도	.403**	.513**	.465**	.441**	.383**	1		
실용적 가치	.171**	.093	.202**	.095	.158**	.065	1	
쾌락적 가치	.132*	.054	.160**	.135*	.153*	.156**	.468**	1

주: *p<.05, **p<.01

4)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다음은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는〈표 9〉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2.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75.844$, $p<.001$). 독립변수별로는 맛 추구($\beta=.554$, $p<.001$), 편의 추구($\beta=.320$, $p<.001$), 분위기 추구($\beta=.334$, $p<.001$)로 추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은 지지되었다.

〈표 9〉 외식소비성향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2.445E-16	.042		.000	
맛 추구	.554	.042	.554	13.299	.000***
편의 추구	.320	.042	.320	7.691	.000***
분위기 추구	.334	.042	.334	8.017	.000***
경제 추구	.073	.042	.073	1.753	.081
$R^2=.526$, $Adj. R^2=.519$, $F=75.844$ ***, $p=.000$					

주: *** $p<.001$

둘째,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6.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3.979$, $p<.001$). 독립변수별로는 맛 추구($\beta=.117$, $p<.01$), 편의 추구($\beta=.293$, $p<.001$), 분위기 추구($\beta=.256$, $p<.001$), 경제 추구($\beta=.308$, $p<.001$)로 재방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5, H1-6, H1-7, H1-8은 지지되었다.

〈표 10〉 외식소비성향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1.896E-16	.052		.000	1.000
맛 추구	.117	.052	.117	2.244**	.026*
편의 추구	.293	.052	.293	5.633	.000***
분위기 추구	.256	.052	.256	4.908	.000***
경제 추구	.308	.052	.308	5.922	.000***
R ² =.260, Adj. R ² =.249, F=23.979***, p=.000					

주: *p<.05, **p<.01, ***p<.001

(2) 가설 2의 검증

소비가치가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외식소비성향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1단계에서는 맛 추구, 편의추구, 분위기 추구 증가가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조절변수인 실용적 가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0.1%의 추가 설명력이 있었다.

각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는 1.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는 F=1.976(p<.05)로 유의적으로 나왔다. 상호작용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의 추구*실용적 가치는 $\beta=2.222$ (p<.01)로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H2-2는 지지되었다. 반면 맛 추구*실용적 가치, 분위기 추구*실용적 가치, 경제 추구*실용적 가치는 추천의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H2-1, H2-3, H2-4)

〈표 11〉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맛 추구	.554	13.299***	.553	13.147***	.551	12.995***
편의 추구	.320	7.691***	.320	7.676***	.337	7.929***
분위기 추구	.334	8.017***	.333	7.881***	.321	7.517***
경제 추구	.073	1.753	.073	1.745	.083	1.908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m(실용적 가치)			.007	.165	-0.25	-.553
맛추구×m					-.044	-1.031
편의 추구×m					.101	2.222**
분위기 추구×m					-.021	.621
경제 추구×m					.002	.959
R ²	0.526		0.527		0.538	
ΔR ²			0.001		0.011	
F	75.844***		1.027		1.976*	

주: *p<.05, **p<.01, ***p<.001

둘째,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표 12>과 같다. 외식소비성향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1단계에서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 증가가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조절변수인 실용적 가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0.4%의 추가 설명력이 있었다.

각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는 4.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는 F=4.327(p<.001)로 유의적으로 나왔다. 상호작용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위기 추구*실용적 가치는 β=2.222(p<.01)로 재방문 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H2-7은 지지되었다. 반면 편의 추구*실용적 가치는 부(-)의 조절효과가 맛 추구*실용적 가치, 경제 추구*실용적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H2-5, H2-6, H2-8)

<표 12>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맛 추구	.117	2.244*	.125	2.391***	.121	2.339***
편의 추구	.293	5.633***	.294	5.648***	.249	4.802***
분위기 추구	.256	4.908***	.266	5.053***	.296	5.666***
경제 추구	.308	5.922***	.310	5.962***	.262	4.924***
m(실용적 가치)			-.068	-1.280	-.017	-.314
맛 추구×m					.011	.204
편의 추구×m					-.182	-3.282**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분위기 추구×m					.103	1.981*
경제 추구×m					-.091	.086
R ²	0.260		0.264		0.309	
ΔR ²			0.004		0.045	
F	23.979***		1.638		4.327***	

주: *p<.05, **p<.01, ***p<.001

셋째,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외식소비성향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1단계에서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증가가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조절변수인 실용적 가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02.%의 추가 설명력이 있었다.

각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는 0.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는 F=1.969(p<.05)로 유의적으로 나왔다. 상호작용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맛 추구*쾌락적 가치, 편의 추구*쾌락적 가치,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 경제 추구*쾌락적 가치는 추천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H2-9, H2-10, H2-11, H2-12)

<표 13>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맛 추구	.554	13.299***	.553	13.260***	.556	12.884***
편의 추구	.320	7.691***	.322	7.717***	.335	7.858***
분위기 추구	.334	8.017***	.329	7.830***	.345	8.098***
경제 추구	.073	1.753	.068	1.627	.067	1.599
m(쾌락적 가치)			.043	1.006	.054	1.250
맛 추구×m					.058	1.332
편의 추구×m					-.016	-.364
분위기 추구×m					-.066	-1.530
경제 추구×m					.023	.554
R ²	0.526		0.528		0.537	
ΔR ²			0.002		0.009	
F	75.844***		1.013		1.969*	

주: *p<.05, **p<.01, ***p<.001

넷째,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외식소비성향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1단계에서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 증가가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조절변수인 실용적 가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0.6%의 추가 설명력이 있었다.

각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는 2.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는 $F=2.060(p<.05)$ 로 유의적으로 나왔다. 상호작용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는 $\beta=2.223(p<.01)$ 로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조절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H2-15는 지지되었다.

반면 맛 추구*쾌락적 가치, 편의 추구*쾌락적 가치, 경제 추구*쾌락적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H2-13, H2-14, H2-16)

<표 14>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t	B	t	B	t
맛 추구	.117	2.244*	.114	2.199**	.107	2.000*
편의 추구	.293	5.633***	.295	5.685***	.282	5.351***
분위기 추구	.256	4.908***	.246	4.694***	.219	4.145***
경제 추구	.308	5.922***	.299	5.725***	.301	5.761***
m(쾌락적 가치)			.079	1.499	.064	1.203
맛 추구×m					-.078	-1.456
편의 추구×m					-.012	-.230
분위기 추구×m					.119	2.223**
경제 추구×m					-.047	-.902
R ²	0.260		0.266		0.288	
ΔR ²			0.006		0.022	
F	23.979***		2.247*		2.060*	

주: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수원 전통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소비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의 관계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수원 대표 전통시장인 수원 영동시장(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테오시장, 남문패션1번가, 구천동공구시장)을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외식소비를 하였던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14일) 실시하였고, 총 27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가 추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가 재방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 추구*실용적 가치는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넷째,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분위기 추구*실용적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맛 추구*쾌락적 가치, 편의 추구*쾌락적 가치,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 경제 추구*쾌락적 가치는 추천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가 추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지만 경제 추구는 통계수치상 아쉽게 추천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원 전통시장의 외식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전통시장을 통한 외식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수원 전통시장의 외식 가격은 기존의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편의 추구*실용적 가치는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편의 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식업체의 즐거운 감정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이용에 따른 매력도 또한 즐거운 감정을 증가시키고, 외식업소가 제공하는 오락성을 비롯하여 쾌적성 또한 즐거움을 증가시킨다고 사료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안정석·이수범⁶⁶의 연구와도 결론을 같이한다.

이에 최근 전통시장이 기존의 영세한 이미지를 벗고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좋은 편의시설들이 좋아졌지만, 보다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문 고객의 동선을 유도해 주는 점포의 배치계획에 의한 편리성, 주차시설, 자리배치, 안내표시, 화장실 이동 등에 신경을 써서 어떤 환경 구성 요소보다도 고객들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배치가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위기 추구*실용적 가치,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전통시장만의 분위기와 경제성과 편리성 등이 잘 어우러져서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이다. 본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연구가 이재하⁶⁷의 서울 도심에 있는 광장시장을 통한 연구인데 광장시장이 명소로 급부상한 이유를 특유의 전통시장의 느낌과 판매하는 주력상품이 저렴하여 실용적 가치가 있고, 이는 고객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수원 전통시장도 편리성과 실용적 가치가 있는 상품에 대한 홍보가 있다면 보다 더 가치가 높은 시장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 트렌드에 맞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외식업소의 SNS상의 활동상황이나 신뢰도 있는 후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외식상품을 쉽게 선택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은 외식상품을 선택할 때 서비스가 친절하고 평판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고객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66 안정석·이수범, 2015, 「패밀리레스토랑의 서비스편의성이 지각된 가치 및 자발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21(4), 155~174쪽.

67 이재하, 2014, 「도시 및 농촌 관광명소 전통시장의 성공요인: 서울 광장시장과 장흥 토요시장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366~384쪽.

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시장의 외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을 손대기보다는 운영체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전략보다는 지역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미래적 비전을 둔 시야를 설정하여 주체가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 전통시장에 관한 연구라 전국의 전통시장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행동의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횡단적 연구보다는 종단적인 연구가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한계성을 지닌다. 아울러 수원의 영동 시장 전체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타깃층 및 장소를 잡아서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삼는다.

투고일 2020년 4월 28일 심사일 2020년 5월 21일 ~ 28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2일

참고문헌

- 강혜숙 · 문정인, 2014, 「IPA분석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강릉 중앙시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4), 87~105쪽.
- 강혜숙 · 문정인, 2014, 「IPA분석을 이용한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강릉 중앙시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4), 87~105쪽.
- 강호계 · 송인암 · 황희중, 2013, 「교육서비스 품질과 교육성과의 기대일치여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기업의 TOEIC사업을 중심으로」, 『유통과학연구』 11(2), 71~81쪽.
- 권미화 · 이기춘, 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169~193쪽.
- 김도희 · 박병진, 2013, 「호텔체류경험이 고객감정,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26(9), 2477~2499쪽.
- 김동석, 2013, 「친환경 소비 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9(1), 103~120쪽.
- 김선우 · 김난도, 2011, 「소비문화의 차원화 및 척도개발: 서울, 뉴욕, 스톡홀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학연구』 22(4), 135~161쪽.
- 김성연, 2018,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딩이벤트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이 웨딩이벤트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연, 2007,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서비스가 고객의 감정적 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웅 · 강진희, 2016, 「매스티지 상품의 소비가치가 프레이밍 효과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1(4), 249~277쪽.
- 김태희 · 박영석, 2005,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레스토랑 실내이미지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가정과 환경저널』 43(10), 69~79쪽.
- 김태희 · 박영석, 2005,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레스토랑 실내이미지 선호도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 43(10), 69~79쪽.
- 김태희 · 이승하 · 박홍현, 2006,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분석」, 『관광연구저널』 20(3), 313~323쪽.
- 김희영, 2015, 「실버세대의 외식소비성향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이 고객행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 · 손상희, 2015, 「소비자의 혜택 및 위험 지각이 중고유아용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 가치와 사회규범의 조절효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4), 105~131쪽.
- 박정임, 2016, 「강정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530~538쪽.
- 박형국, 2017, 「외식음료매장의 비주얼머천다이징 인지차원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태, 201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HMR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HMR 관여도를 조절변수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용구 · 조춘환, 2019,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유통연구』 24(3), 133~148쪽.
- 송주완, 2020, 「Z세대의 외식소비성향이 외식업체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9(1), 289~312쪽.
- 심민섭, 2016,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경향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도시(서울특별시 시,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전주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경, 2015, 「중국 관광객의 웨딩관광 상품속성, 소비성향과 만족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세희 · 명소형 · 윤덕인, 2014, 「커피전문점 이용자의 감성적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8(8), 271~293쪽.
- 안정석 · 이수범, 2015, 「패밀리레스토랑의 서비스편의성이 지각된 가치 및 자발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21(4), 155~174쪽.
- 양성진 · 조용범, 2019, 「고급 한식당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이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회복의 진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25(6), 121~130쪽.
- 유광수, 2012, 「골프용품 구매자의 소비성향과 브랜드에 따른 소비자행동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상복 · 김주홍 · 이동현 · 김재승, 2013, 「Landscape Characterization Analysis of Beach by Cognitive Image」, 『한국자료분석연구』 15(4), 1777~1787쪽.
- 윤효실 · 윤혜현, 2013, 「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 행동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2(1), 253~267쪽.
- 이광옥, 2008, 「외식소비자의 개인가치성향이 브랜드 인지유형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호, 2020, 「외식기업 O2O 서비스의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용동기와 관여도를 조절 효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 · 김기영, 2011, 「실버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연구」, 『여가관광 연구』 17, 85~111쪽.
- 이재하, 2014, 「도시 및 농촌 관광명소 전통시장의 성공요인: 서울 광장시장과 장흥 토요일 장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366~384쪽.
- 이재형, 1996, 「유통 환경의 변화와 공정거래 정책의 과제」, 『경쟁저널』 6(1), 38~43쪽.
- 이정실 · 박영주, 2005, 「호텔레스토랑의 서비스 스키이프,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의도와 의 관계: 부산지역 관광호텔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6(2), 105~128쪽.
- 이창원 · 이상환, 2013, 「명품브랜드의 소비가치와 동일시, 애착, 소비자행복의 관계와 자아 해석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6(6), 29~42쪽.
- 이채은, 2009, 「해외여행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여행 상품속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24(2), 199~218쪽.
- 이흥연, 2010, 「외식서비스의 지각된 품질이 고객의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패밀리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경, 2013, 「한식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 성, 2018, 「중국 관광객의 한국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치, 서비스 품질 평가가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은숙, 2012, 「소비자 혁신성이 패션소비성향과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30대 여성 스마트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4), 580쪽.
- 조용현, 2019, 「전통시장 외식업소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시민행동, 관계지향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고객시민행동과 관계지향성의 매개효과」,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기 · 이상민, 2008, 「타인 의식적 소비성향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2), 263~284쪽.
- 조은영,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의 SNS 활용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1), 117~134쪽.
- 진은경 · 박영희 · 이종호, 2014, 「외식 소비성향에 따른 한식당 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0(1), 189~204쪽.
- 채서일, 2013, 『사회과학조사방법론』(개정 3판), 비엔엠북스.
- 최미숙 · 길기연 · 나영아, 2013, 「실버세대의 소비성향과 외식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7(3), 349~369쪽.

- 최병호, 2013, 「패밀리레스토랑 혼잡성이 감정, 이용가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산업학회지』 9(3), 한국외식산업학회, 125~141쪽.
- 최영정 · 최규환, 2010, 「Post Mass Tourism으로서의 책임관광 구성타당성 검증」, 『관광학연구』 34(2), 101~120쪽.
- 최은주, 2009, 「항공사 판매촉진이벤트의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민 · 이형룡, 2011,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의 경험적 가치가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3), 243~266쪽.
- 현경석, 2009,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 고객가치,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 지역 특 1급 호텔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mbler, T., Bhattacharya, C. B., Edell, I. J. & Keller, K. L., 2002, "Relating Brand and Customer Perspective Marketing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5(1), pp.13~26.
- Boulding, W., Kalra, A., Staelin, R., & Zeithaml, V. A., 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pp.7~31.
- Bowen, D. E. & Schneider, B., 1988, "Service Marketing and Management :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0(1), pp.43~80.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pp.389~406.
- Eggert, Andreas. and Wolfgang Ulaga, 2002, "Customer Perceived Value: A Substitute For Satisfaction in Business Markets?", *Journal of Business & Industrial Marketing*, 17(2), pp.107~118.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Holbrook, M. B., 1999, *Customer Valu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Research*, London: Routledge.
- Sheth, J. N., & Newman, B. I., & Gross, B. 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 pp.159~170.
-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1), p.203.

Zeithaml, V. A., and Berry, L. L. &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pp.31~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6.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2017.

요 약

본 연구는 수원 전통시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소비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의 관계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수원 대표 전통시장인 수원 영동시장(팔달문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테오시장, 남문패션1번가, 구천동공구시장)을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외식 소비를 하였던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14일) 실시하였고, 총 27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가 추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는 맛 추구, 편의 추구, 분위기 추구, 경제 추구가 재방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 추구*실용적 가치는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넷째, 실용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분위기 추구*실용적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맛 추구*쾌락적 가치, 편의 추구*쾌락적 가치,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 경제 추구*쾌락적 가치는 추천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쾌락적 가치가 외식소비성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분위기 추구*쾌락적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 수원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 행동의도, 소비가치

ABSTRACT

The Effect of Food Consumption Tendency on the Behavioral Intention at Suwon Traditional Market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ption Values

Kim Geon-Whee

This paper studied people who had experience of eating out at Suwon traditional market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nsumption tendency (or what they expect for eating out, i.e. taste, convenience, atmosphere, affordability) and the intention of their behavior (recommending or revisiting the place) and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ption values on such relationship.

A survey had been conducted from January 06 to January 20, 2020 for people who ate out at Suwon *Yeongdong Market* (*Motgol Market, Jidong Market, Minarigwang Market, Simin Market, South Gate Rodeo Market, South Gate No. 1 Fashion Street, and Gucheondong Tools Shopping Mall*),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market of Suwon, and a total of 278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irst, the results of the effect analysis on the consumption tendency at the traditional market and the intention of their behavior showed that the pursuit of taste, pursuit of convenience, and pursuit of atmosphe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commend the place.

Second, the results of the effect analysis on the consumption tendency at the traditional market and the intention of their behavior showed that the pursuit of taste, pursuit of convenience, pursuit of atmosphere, and pursuit of affordability had statistically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place.

Third, as for the effect of practical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tendency and the intention to recommend the place, the pursuit of

convenience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ourth, as for the effect of practical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tendency and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place, the pursuit of atmosphere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ifth, as for the effect of the value of plea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tendency and the intention to recommend the place, the pursuit of taste, pursuit of convenience, pursuit of atmosphere, and pursuit of affordab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Lastly, as for the effect of the value of plea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tendency and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place, the pursuit of atmosphere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Key words : Suwon Traditional Market, eating out tendency, behavioral intention, consumption value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수원시민 인지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숙희** / 심태일***

1. 서론
2. 문헌고찰 및 운영사례
3.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수원시민의 인식도 차이분석
4. 결론 및 향후과제

1. 서론

TTA정보통신용어사전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이하 IoT),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 이하 CPS), 빅데이터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 이하 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한다.

스마트시티는 관련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교통, 에너지, 의료 등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데이터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동되는 것으로 보

* 본 연구는 SRI-기획-2019-12 수원시 스마트교통 추진전략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kheek@suwon.re.kr, Tel : 010-2372-2420)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er, Traffic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고 있다. 스마트시티 목적은 지역의 실정과 직면한 우선 과제에 따라 초점이 다소 다르게 요구되며, 유럽 등 선진국은 민간주도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시아 등 신흥국은 공공주도로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

스마트시티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경제활동·비즈니스(Smart Economy), 환경(Smart Environment), 교육·인적자원(Smart People), 생활(Smart Living), 행정(Smart Governance), 교통(Smart Mobility) 등이 있다.² 우리나라는 2003년에 스마트시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U-City 사업이 시작되었고, 시대 변화와 함께 U-City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더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스마트시티 사업들로 이어지고 있다.³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핵심구성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시티 대부분의 핵심 정의 요소들이 스마트시티 교통 부문의 정의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사업들은 스마트시티와 철학적인 측면을 공유하며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⁴

2018년 중앙정부에서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였고, 이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⁵ 아직은 초기 단계인 지자체가 대부분으로 수원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기술적 강점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수원시만의 맞춤형 스마트시티의 교통부문에 대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수원시의 교통문제

1 김숙희, 2019, 「수원시 스마트교통 추진전략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 EC, 2014, “Mapping Smart Cities in the EU”;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유럽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시사점」.

3 소재현 외 5명, 2019,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정립」,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2호, 79~91쪽.

4 소재현 외 5명, 2019,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정립」,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2호, 79~91쪽.

5 김태형 외 4명, 2018,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가 무엇인지,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원형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추진전략이 무엇인지, 수원시가 추구해야할 스마트시티의 교통부문의 방향이나,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적 변수별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문헌고찰 및 운영사례

1)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

스마트교통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스마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성·신속성·쾌적성·편리성·친환경성이 최적화된 교통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

스마트시티 교통의 특성은 네트워크,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의 3가지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수단, 인프라, 정보, 생활 등 정보 오픈 및 공유형 교통시스템, 통합플랫폼을 통한 각 분야의 모든 정보를 호환 및 연계되는 통합시스템, 정보공유를 통한 주문형의 맞춤형 최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에서 교통은 ICT, IoT, Big Data,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타 분야와 연계되고 통합된 교통시스템, 스마트하고 지능화된 교통시스템,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시스템, 편리한 교통시스템이 되어야 한다.⁷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요구를 충족하려면 타 분야와 연계 및 통합된(Connectivity & Integration) 교통, 스마트 및 지능화된(Intelligent) 교통, 시민참여(Citizen's Participation) 교통,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Easy & Convenient) 교통의 4가지 필요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⁸ 스마트시티를 위한 대표적인 교통서비스로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IoT,

6 한국교통연구원, 2016, 「Concep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for Smart City」; 소재현 외 5명, 2019,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정립」,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2호, 79~91쪽.

7 강연수, 2017, 「스마트시티와 교통부문 대응전략」, 『월간교통』 2017년 2월호, 21~26쪽.

8 강연수, 2017, 「스마트시티와 교통부문 대응전략」, 『월간교통』 2017년 2월호, 21~26쪽.

Big Data, Cloud Computing,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ervice-Oriented Architecture; 이하 SOA) 등 스마트시티 적용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업그레이드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⁹ 소재현 외¹⁰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정의내용에 포함된 단어별 빈도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정의는 “첨단 ICT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와 운영자의 선호도 및 목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2) 국내·외 스마트교통 운영 사례

〈표 1〉 국내의 스마트교통 운영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출전
미국 콜럼버스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넥티드 교통 네트워크 : 200개의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노변기지국, 200개의 Wi-Fi 스마트 신호등, 12개의 버스정류장, 보행자 경고 시스템, 100개의 교통신호제어기, 10개의 멀티미디어 키오스크(KIOSK), 10개의 주차금지시스템, 10개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리더기 등의 인프라와 3,000대의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350대의 충돌감지 및 안전장치 버스, 5만 개의 전면창 스티커 등으로 구성 • 데이터 통합 공유 : 데이터와 스마트 콜럼버스 수집 데이터 및 교통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간 앱 개발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개별평가부문 등에 제공 	김탁영 외 2명, 2017,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 시사점」, 『월간교통』, 32~36쪽; City of Columbus, 2016, “Beyond Traffic : The smart city challenge Phase 2”
미국 뉴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및 이동성 옵션을 확장 및 개선하여 뉴욕 시민의 90%가 대중교통으로 최소 20만 개의 직장에 45분 이내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감응신호 : Midtown in Motion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사용하여 혼잡을 줄이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임 • 우선신호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버스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실시간 센서를 시내버스 및 신호 등에 장비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뉴욕커의 일일 버스 통근 시간을 단축시킴 	IRS Global, 2017,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전망」; City of New York, 2015, “Building a smart + equitable city”.

9 강연수, 2017, 「스마트시티와 교통부문 대응전략」, 『월간교통』 2017년 2월호, 21~26쪽.

10 소재현 외 5명, 2019,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정립」,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2호, 79~91쪽.

구분	주요 내용	출전
미국 피츠버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하여 Uber의 자율주행 파일럿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미국 교통부(DoT)의 1억 6,500만 달러의 펀딩 라운드의 일환으로 1,09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스파인(Smart Spine)이라 불리는 스마트교통 신호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 도로에는 제설기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된 센서가 있으며 이 센서들은 차세대 스마트교통 신호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 차세대 스마트교통 신호는 CMU 기반의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 움직임의 효율을 31%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p>Pittsburg 스마트시티(http://smarpittsburgh.org/programs)</p>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5월부터 도심지 노상주차공간(On-Street Parking)과 주차빌딩에 수요대응형 가변주차요금제도를 접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인 SFpark을 운영하고 있음. SFpark은 시범 사업을 통해 28,800여 면에 달하는 노상주차장 중 7,000면에 대해 주차점유 여부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각 구역별, 주차 빌딩별로 주차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Searching Traffic을 감소시켜 교통정체 완화와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p>김탁영 외 2명, 2017,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 시사점」, 『월간교통』, 32~36쪽; 김규현, 2017, 「미국의 스마트시티 지원정책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p>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는 유럽 최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2016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유럽의 혁신수도상(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을 수상함 2017년 3월 기준 6개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며, 교통 부문에서는 1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교통 부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전거 주차장, 카풀 매칭 서비스, 교통량 관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교통량 관리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와 교통시스템과 연결되어 교통량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교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공사 진행 여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확인 등 시의 교통 상황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체증 10%가 감소됨 	<p>Amsterdam 스마트시티(https://amsterdamsmartcity.com)</p>

구분	주요 내용	출전
유럽 스페인 바르셀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셀로나는 2012년부터 대중교통, 주차, 가로등,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여러 도시 시스템에 Io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시티 바르셀로나(Smart City Barcelon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사용과 자전거 공유를 권장함과 동시에 버스 시스템과 주차 시스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 • 특히 스마트 커넥티드 시티 파킹(Smart Connected City Parking)은 운전자들을 위해 주차 공간이 점유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비어 있는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p>https://icos.urenio.org/applications/smartconnected-parking</p>
유럽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얽매이지 않고 대중교통, 버스, 택시, 차량 공유 등을 서로 연결하고 자유롭게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 MaaS의 발상지는 핀란드로서 2016년부터 세계 최초로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 결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Whim App을 상용화함 	<p>https://whimapp.com</p>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스마트 네이션의 이니셔티브는 건강(Health), 생활(Living),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Service)의 4가지 테마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통 부문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8월 싱가포르의 육상운송국(LTA)과 주룽도시공사(JTC)는 난양공과대(NTU)와 공동으로 CleanTech Park에서 CENTRAN 프로젝트 및 테스트 서킷을 가동함 - CENTRAN은 자율주행차량(SDV)을 위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테스트 서킷에서 SDV를 테스트, 인증,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음 	<p>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LTA in Singapore, 2013; Singapore 스마트시티; Land Transport Authority in Singapore, 2013,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13</p>
세종 5-1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는 도시화에 따른 기존 도시의 점진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현재 대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스마트시티가 대두됨 • 사업비 1조 5,000억여 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구축될 예정임 • 3개 주제로 구분하여 시민체감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융복합 도로 및 공간계획,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조성으로 추진 • 스마트교통 주요 서비스 : 공유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보행안전 서비스 등 	<p>국토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세종특별 자치시청·LH, 2019,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신화철, 2019, 「스마트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리서치 브리프』 No.3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https://www.smartsejong5-1.kr)</p>

구분	주요 내용	출전
대구시 (수성 알파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스마트시티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25년까지 사업 예정임 • 2017년부터 대구 수성구 대흥동 일대 97만 6,000평의 수성알파시티에 사업비 560억 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통신망과 플랫폼 및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 5개 분야 13개 시스템을 도입하는 1단계 사업을 2019년 1월 마무리했음 - 5대 분야 13개 시스템 : 교통(5), 생활(3), 안전(3), 에너지(1), 기반시설(1) • 스마트교통 주요서비스 : 지능형 보도안전 시스템, 도로위험 정보제공 서비스, 불법주·정차 및 주·정차 무인관제시스템, 자율주행 기반 마련 등 	대구도시공사,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도시」
부산광역시 (에코델타 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스마트에코델타시티는 김해국제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등 국가 교통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국제물류·첨단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음 • 스마트교통 주요 서비스 : 통합정보 모니터링,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스마트 파킹 서비스 등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 (http://www.smartcity1st.com)

3) 국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스마트시티는 각국의 도시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접근전략에도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주로 민간주도(삶의 질 향상)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아시아 등 신흥국은 주로 공공주도(국가 경쟁력 강화)로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등이 중앙정부 주체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수원시 스마트시티는 기본 인프라가 자리 잡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교통, 안전, 행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기술 실증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 혼잡 해소, 교통안전 증진,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목표로 수원형 스마트교통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과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활발한 참여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민참여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

3.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수원시민의 인식도 차이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에 대한 경제적 변수에 따른 수원시민의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민 5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표기누락 및 중복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 4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형마트 등에서 대인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16~18일(평일 3일), 2019년 7월 20~21일(주말 2일)로 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으로는 응답자 개인 특성, 스마트시티 인식 및 의견조사,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인식 및 의견조사,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2) 응답자의 개인 특성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기초 현황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17	45.8	거주지	수원시 외	18	3.8
	여성	257	54.2		합계	474	100.0
	합계	474	100.0	직업	사무직	138	29.1
연령	10대	13	2.7		서비스/판매직	95	20.0
	20대	97	20.5		기능직	47	9.9
	30대	138	29.1		자영업	41	8.6
	40대	136	28.7		학생	63	13.3
	50대	81	17.1		주부	70	14.8
	60대 이상	9	1.9		무직	15	3.2
	합계	474	100.0		기타	5	1.1
거주지	권선구	153	32.3		합계	474	100.0
	장안구	96	20.3		차량 소유	있음	297
	팔달구	92	19.4	없음		177	37.3
	영통구	115	24.3	합계		474	100.0

3) 스마트시티 인식 및 인지도 조사 결과

(1) 스마트시티 인지도

스마트시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51.1%가 스마트시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48.9%가 스마트시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연령별($\chi^2=47.604^{***}$), 직업별($\chi^2=65.073^{***}$)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거주지별, 차량소유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스마트시티에 대해 6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0대는 48.5%, 40대는 45.5%, 50대는 40.7%, 10대는 30.8%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60대 이상은 100%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63%, 학생이 60.3%가 스마트시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기능직, 자영업, 주부, 무직 등은 60.0% 이상이 스마트시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응답속성별 스마트시티 인식 여부 비교

구분 (χ^2)		응답자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모르겠다 (%)	전혀 모르겠다 (%)	계 (%)
전체		474	6.5	42.4	40.3	10.8	100.0
성별 (5.946)	남성	217	6.0	47.9	37.8	8.3	100.0
	여성	257	7.0	37.7	42.4	12.8	100.0
연령 (47.604***)	10대	13	0.0	30.8	46.2	23.1	100.0
	20대	97	7.2	60.8	24.7	7.2	100.0
	30대	138	10.1	38.4	43.5	8.0	100.0
	40대	136	5.1	40.4	44.1	10.3	100.0
	50대	81	3.7	37.0	45.7	13.6	100.0
	60대 이상	9	0.0	0.0	44.4	55.6	100.0
거주지 (10.288)	권선구	153	7.2	41.2	43.1	8.5	100.0
	장안구	96	7.3	40.6	41.7	10.4	100.0
	팔달구	92	6.5	48.9	34.8	9.8	100.0
	영통구	115	4.3	40.0	39.1	16.5	100.0
	수원시 외	18	11.1	44.4	44.4	0.0	100.0
직업 (65.073***)	사무직	138	9.4	53.6	29.0	8.0	100.0
	서비스/판매직	95	6.3	44.2	38.9	10.5	100.0
	기능직	47	4.3	27.7	66.0	2.1	100.0
	자영업	41	7.3	26.8	51.2	14.6	100.0
	학생	63	3.2	57.1	28.6	11.1	100.0
	주부	70	7.1	30.0	50.0	12.9	100.0
	무직	15	0.0	6.7	46.7	46.7	100.0
	기타	5	0.0	60.0	40.0	0.0	100.0
차량소유 (1.920)	있음	297	7.1	42.1	41.4	9.4	100.0
	없음	177	5.6	42.9	38.4	13.0	100.0

주: p* < .1, p** < .05, p*** < .01

(2)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 필요성

수원시의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94.5% 이상이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5%가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분

석결과 연령별($\chi^2=17.650^*$), 직업별($\chi^2=23.607^*$)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 거주지별, 차량소유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0~50대는 91.4% 이상이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77.8%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무직(80%)을 제외하고 90.2% 이상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연령이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 여부 비교

구분 (χ^2)		응답자수 (명)	반드시 필요하다 (%)	필요하다 (%)	필요 하지 않다 (%)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계 (%)
전체		474	23.8	70.7	5.5	0.0	100.0
성별 (0.134)	남성	217	24.0	71.0	5.1	0.0	100.0
	여성	257	23.7	70.4	5.8	0.0	100.0
연령 (17.650*)	10대	13	15.4	76.9	7.7	0.0	100.0
	20대	97	33.0	67.0	0.0	0.0	100.0
	30대	138	24.6	69.6	5.8	0.0	100.0
	40대	136	20.6	73.5	5.9	0.0	100.0
	50대	81	19.8	71.6	8.6	0.0	100.0
	60대 이상	9	11.1	66.7	22.2	0.0	100.0
거주지 (11.689)	권선구	153	26.1	71.9	2.0	0.0	100.0
	장안구	96	22.9	69.8	7.3	0.0	100.0
	팔달구	92	18.5	71.7	9.8	0.0	100.0
	영통구	115	23.5	70.4	6.1	0.0	100.0
	수원시 외	18	38.9	61.1	0.0	0.0	100.0
직업 (23.607*)	사무직	138	32.6	63.8	3.6	0.0	100.0
	서비스/판매직	95	18.9	77.9	3.2	0.0	100.0
	기능직	47	17.0	74.5	8.5	0.0	100.0
	자영업	41	19.5	70.7	9.8	0.0	100.0
	학생	63	28.6	69.8	1.6	0.0	100.0
	주부	70	18.6	72.9	8.6	0.0	100.0
	무직	15	13.3	66.7	20.0	0.0	100.0
	기타	5	20.0	80.0	0.0	0.0	100.0
차량소유 (0.752)	있음	297	22.6	71.7	5.7	0.0	100.0
	없음	177	26.0	68.9	5.1	0.0	100.0

주: $p < .1$, $p^{**} < .05$, $p^{***} < .01$

(3) 수원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

수원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1,183개¹¹ 조사표본 중 도시관리(22.0%), 도시개발(20.6%), 에너지 효율화(17.5%), 혁신기술 개발(15.9%), 데이터 개방(13.1%), 시민참여(10.8%)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업별($\chi^2=65.121^{**}$)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차량소유별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직(25.0%)과 자영업(24.7%), 무직(23.5%), 학생(22.5%)은 도시개발, 사무직(19.6%), 서비스/판매직(23.7%), 자영업(25.8%), 주부(28.6%) 등은 도시관리, 무직(29.4%)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판매직(9.4%), 주부(6.8%), 무직(5.9%)은 데이터 개방, 사무직(12.3%), 기능직(9.2%), 학생(8.1%) 등은 시민참여, 자영업(각각 7.5%)은 데이터 개방 및 시민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비교

구분 (χ^2)	응답자수 (명)	데이터 개방 (%)	도시 개발 (%)	도시 관리 (%)	시민 참여 (%)	에너지 효율화 (%)	혁신 기술개발 (%)	기타 (%)	계 (%)	
전체	1,183	13.1	20.6	22.0	10.8	17.5	15.9	0.1	100.0	
성별 (4.151)	남성	543	12.3	21.7	21.4	9.8	17.7	16.9	0.2	100.0
	여성	640	13.8	19.7	22.5	11.7	17.3	15.0	0.0	100.0
연령 (28.428)	10대	31	22.6	29.0	22.6	3.2	16.1	6.5	0.0	100.0
	20대	242	16.1	20.2	20.7	11.2	17.4	14.5	0.0	100.0
	30대	337	13.1	18.1	23.4	11.9	17.2	16.3	0.0	100.0
	40대	346	12.4	22.0	21.1	9.8	17.1	17.6	0.0	100.0
	50대	205	10.7	21.5	23.9	10.2	17.6	15.6	0.5	100.0
	60대 이상	22	0.0	22.7	9.1	22.7	31.8	13.6	0.0	100.0
거주지 (21.358)	권선구	393	13.0	18.6	22.1	10.7	17.3	18.3	0.0	100.0
	장안구	225	11.6	22.2	24.0	10.7	18.7	12.9	0.0	100.0
	팔달구	227	15.9	24.2	19.8	9.3	16.7	14.1	0.0	100.0
	영통구	287	10.8	20.6	22.3	11.1	17.4	17.4	0.3	100.0
	수원시 외	51	21.6	13.7	19.6	17.6	17.6	9.8	0.0	100.0

11 본 문항은 최대 3개 항목 선택 가능

구분 (χ^2)		응답자수 (명)	데이터 개방 (%)	도시 개발 (%)	도시 관리 (%)	시민 참여 (%)	에너지 효율화 (%)	혁신 기술개발 (%)	기타 (%)	계 (%)
직업 (65.121**)	사무직	357	17.6	18.5	19.6	12.3	15.4	16.5	0.0	100.0
	서비스/판매직	245	9.4	19.2	23.7	9.8	20.0	18.0	0.0	100.0
	기능직	120	14.2	25.0	20.0	9.2	16.7	15.0	0.0	100.0
	자영업	93	7.5	24.7	25.8	7.5	15.1	18.3	1.1	100.0
	학생	160	18.1	22.5	19.4	8.1	20.0	11.9	0.0	100.0
	주부	161	6.8	19.9	28.6	13.0	15.5	16.1	0.0	100.0
	무직	34	5.9	23.5	8.8	23.5	29.4	8.8	0.0	100.0
	기타	13	23.1	15.4	30.8	0.0	15.4	15.4	0.0	100.0
차량소유 (2.107)	있음	742	12.5	21.3	22.0	10.4	17.4	16.3	0.1	100.0
	없음	441	14.1	19.5	22.0	11.6	17.7	15.2	0.0	100.0

주: $p < .1$, $p^{**} < .05$, $p^{***} < .01$

4) 계층별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인지도 및 추진전략 상세결과

(1)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인지도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75.1%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4.9%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성별($\chi^2=14.040^{***}$), 연령별($\chi^2=39.593^{***}$), 직업별($\chi^2=54.258^{***}$) 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별, 차량소유별 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82.5%, 여성은 68.9%가 스마트교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83.5%), 30대(76.1%), 40대(73.6%), 50대(72.8%), 10대(53.9%), 60대(44.4%) 순으로 스마트교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72.8%이상 10대는 53.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60대 이상은 55.5%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63.4% 이상이 스마트교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무직의 경우 60.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응답속성별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인식 여부 비교

구분 (χ^2)		응답자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모르겠다 (%)	전혀 모르겠다 (%)	계 (%)
전체		474	16.7	58.4	19.6	5.3	100.0
성별 (14.040***)	남성	217	15.7	66.8	14.3	3.2	100.0
	여성	257	17.5	51.4	24.1	7.0	100.0
연령 (39.593***)	10대	13	30.8	23.1	15.4	30.8	100.0
	20대	97	21.6	61.9	14.4	2.1	100.0
	30대	138	18.1	58.0	19.6	4.3	100.0
	40대	136	16.2	57.4	22.8	3.7	100.0
	50대	81	7.4	65.4	19.8	7.4	100.0
	60대 이상	9	11.1	33.3	33.3	22.2	100.0
거주지 (8.860)	권선구	153	17.0	62.1	17.0	3.9	100.0
	장안구	96	16.7	57.3	22.9	3.1	100.0
	팔달구	92	18.5	55.4	18.5	7.6	100.0
	영통구	115	13.0	60.0	20.0	7.0	100.0
	수원시 외	18	27.8	38.9	27.8	5.6	100.0
직업 (54.258***)	사무직	138	21.0	56.5	18.8	3.6	100.0
	서비스/판매직	95	18.9	66.3	11.6	3.2	100.0
	기능직	47	6.4	72.3	21.3	0.0	100.0
	자영업	41	12.2	51.2	26.8	9.8	100.0
	학생	63	23.8	54.0	14.3	7.9	100.0
	주부	70	11.4	54.3	30.0	4.3	100.0
	무직	15	6.7	33.3	26.7	33.3	100.0
	기타	5	0.0	80.0	20.0	0.0	100.0
차량소유 (2.050)	있음	297	15.2	60.3	19.9	4.7	100.0
	없음	177	19.2	55.4	19.2	6.2	100.0

주: $p^* < .1$, $p^{**} < .05$, $p^{***} < .01$

(2) 교통의 주요 문제점

수원시 교통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교통 혼잡 발생이 31.4%로 가장 높았고, 교통운영 및 도로구조 한계 26.4%, 대중교통 서비스 미

흡 14.6%, 보행자(교통약자) 교통안전 문제 13.9%, 주차공간 부족 13.7%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성별($x^2=12.725^{**}$), 연령별($x^2=33.341^{**}$), 거주지별($x^2=28.668^{**}$), 직업별($x^2=50.726^{***}$), 차량소유별($x^2=14.321^{***}$)로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37.3%)은 교통 혼잡 발생, 여성(27.2%)은 교통운영 및 도로구조 한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38.5%)는 보행자(교통약자) 교통안전 문제, 20대(30.9%)는 교통운영 및 도로구조 한계, 30대(34.1%), 40대(27.9%), 50대(38.3%)는 교통 혼잡 발생, 60대 이상(각각 33.3%)은 교통 혼잡 발생 및 보행자(교통약자) 교통안전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안구(39.6%), 팔달구(31.5%), 영통구(36.5%)는 교통 혼잡 발생, 권선구(34.0%)는 교통운영 및 도로구조 한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판매직(31.6%), 자영업(36.6%), 주부(38.6%) 등은 교통운영 및 도로구조 한계, 사무직(40.6%), 기능직(34.0%)은 교통 혼잡 발생에서, 학생(각각 27.0%), 무직(각각 33.3%)은 교통 혼잡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량 소유자(32.0%)와 차량 미소유자(30.5%) 모두 교통 혼잡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응답속성별 수원시 교통의 주요 문제점 비교

구분 (x^2)		응답자수 (명)	교통운영, 도로구조 한계 (%)	교통 혼잡발생 (%)	대중교통 서비스 미흡 (%)	보행자 교통안전 (%)	주차공간 부족 (%)	기타 (%)	계 (%)
전체		474	26.4	31.4	14.6	13.9	13.7	0.0	100.0
성별 (12.725 ^{**})	남성	217	25.3	37.3	10.1	11.5	15.7	0.0	100.0
	여성	257	27.2	26.5	18.3	16.0	12.1	0.0	100.0
연령 (33.341 ^{**})	10대	13	7.7	7.7	30.8	38.5	15.4	0.0	100.0
	20대	97	30.9	29.9	12.4	19.6	7.2	0.0	100.0
	30대	138	26.1	34.1	13.0	10.9	15.9	0.0	100.0
	40대	136	25.7	27.9	16.2	15.4	14.7	0.0	100.0
	50대	81	25.9	38.3	14.8	3.7	17.3	0.0	100.0
	60대 이상	9	22.2	33.3	11.1	33.3	0.0	0.0	100.0
거주지 (28.668 ^{**})	권선구	153	34.0	22.9	15.0	13.1	15.0	0.0	100.0
	장안구	96	21.9	39.6	9.4	15.6	13.5	0.0	100.0
	팔달구	92	20.7	31.5	21.7	8.7	17.4	0.0	100.0
	영통구	115	25.2	36.5	12.2	14.8	11.3	0.0	100.0
	수원시 외	18	22.2	27.8	16.7	33.3	0.0	0.0	100.0

구분 (χ^2)	응답자수 (명)	교통운영, 도로구조 한계 (%)	교통 혼잡발생 (%)	대중교통 서비스 미흡 (%)	보행자 교통안전 (%)	주차공간 부족 (%)	기타 (%)	계 (%)	
직업 (50.726***)	사무직	138	18.8	40.6	13.8	13.0	13.8	0.0	100.0
	서비스/판매직	95	31.6	21.1	18.9	13.7	14.7	0.0	100.0
	기능직	47	19.1	34.0	12.8	8.5	25.5	0.0	100.0
	자영업	41	36.6	29.3	14.6	4.9	14.6	0.0	100.0
	학생	63	19.0	27.0	17.5	27.0	9.5	0.0	100.0
	주부	70	38.6	30.0	10.0	10.0	11.4	0.0	100.0
	무직	15	20.0	33.3	13.3	33.3	0.0	0.0	100.0
	기타	5	60.0	40.0	0.0	0.0	0.0	0.0	100.0
차량소유 (14.321***)	있음	297	27.9	32.0	13.5	10.1	16.5	0.0	100.0
	없음	177	23.7	30.5	16.4	20.3	9.0	0.0	100.0

주: p* < .1, p** < .05, p*** < .01

(3)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장기적 목표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에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가 25.9%로 가장 높았고, 교통 혼잡 해소 23.4%,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강화 21.5%, 교통안전 증진 17.7%,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11.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업별($\chi^2=41.845^{**}$), 차량소유별($\chi^2=9.417^*$)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26.1%), 자영업(39.0%), 주부(31.4%)는 교통 혼잡 해소, 서비스/판매직(34.7%), 기능직(34.0%)은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 학생(각각 28.6%)은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와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강화, 무직(각각 33.3%)은 교통안전 증진과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량 소유자(24.6%)는 교통 혼잡 해소, 차량 미소유자(31.6%)는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교통의 장기적 목표 비교

구분 (x^2)	응답자수 (명)	교통 혼잡해소 (%)	교통안전 증진 (%)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 (%)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	친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 (%)	기타 (%)	계 (%)	
전체	474	23.4	17.7	25.9	11.4	21.5	0.0	100.0	
성별 (7.392)	남성	217	23.0	20.3	21.7	14.3	20.7	0.0	100.0
	여성	257	23.7	15.6	29.6	8.9	22.2	0.0	100.0
연령 (13.579)	10대	13	15.4	7.7	38.5	7.7	30.8	0.0	100.0
	20대	97	23.7	16.5	25.8	6.2	27.8	0.0	100.0
	30대	138	23.2	18.1	24.6	13.8	20.3	0.0	100.0
	40대	136	26.5	16.2	26.5	13.2	17.6	0.0	100.0
	50대	81	21.0	21.0	24.7	12.3	21.0	0.0	100.0
	60대 이상	9	11.1	33.3	33.3	0.0	22.2	0.0	100.0
거주지 (19.028)	권선구	153	17.6	16.3	30.1	12.4	23.5	0.0	100.0
	장안구	96	29.2	20.8	21.9	9.4	18.8	0.0	100.0
	팔달구	92	19.6	19.6	33.7	10.9	16.3	0.0	100.0
	영통구	115	30.4	16.5	17.4	12.2	23.5	0.0	100.0
	수원시 외	18	16.7	11.1	27.8	11.1	33.3	0.0	100.0
직업 (41.845**)	사무직	138	26.1	14.5	21.0	13.8	24.6	0.0	100.0
	서비스/판매직	95	13.7	21.1	34.7	10.5	20.0	0.0	100.0
	기능직	47	12.8	19.1	34.0	12.8	21.3	0.0	100.0
	자영업	41	39.0	24.4	14.6	12.2	9.8	0.0	100.0
직업 (41.845**)	학생	63	19.0	15.9	28.6	7.9	28.6	0.0	100.0
	주부	70	31.4	14.3	22.9	12.9	18.6	0.0	100.0
	무직	15	20.0	33.3	33.3	0.0	13.3	0.0	100.0
	기타	5	60.0	0.0	0.0	0.0	40.0	0.0	100.0
차량소유 (9.417*)	있음	297	24.6	17.8	22.6	14.1	20.9	0.0	100.0
	없음	177	21.5	17.5	31.6	6.8	22.6	0.0	100.0

주: $p < .1$, $p^{**} < .05$, $p^{***} < .01$

(4)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목표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목표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교통수단 및 기반인프라가 50.4%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통합·연계·공유 19.4%, 스마트교통 서비스 13.1%, 정책 및 제도 10.8%, 거버넌스(협치) 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업별($x^2=46.650^*$)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차량소유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 모두 44.7% 이상이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목표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교통수단 및 기반인프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직, 기능직, 자영업, 학생, 주부 6.5% 이하는 거버넌스(협치)를, 서비스/판매직 2.1%는 정책 및 제도를 무직 0.0%는 데이터 통합·연계·공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목표를 위한 추진사항 비교

구분 (χ^2)	응답자수 (명)	거버넌스 (%)	교통수단, 기반인프라 (%)	데이터 통합·연계·공유 (%)	스마트교통 서비스 (%)	정책 및 제도 (%)	기타 (%)	계 (%)	
전체	474	6.1	50.4	19.4	13.1	10.8	0.2	100.0	
성별 (3.369)	남성	217	5.5	53.0	20.3	12.4	8.8	0.0	100.0
	여성	257	6.6	48.2	18.7	13.6	12.5	0.4	100.0
연령 (33.075)	10대	13	15.4	61.5	0.0	15.4	7.7	0.0	100.0
	20대	97	4.1	45.4	18.6	19.6	11.3	1.0	100.0
	30대	138	8.0	44.9	21.0	15.2	10.9	0.0	100.0
	40대	136	2.9	57.4	19.9	12.5	7.4	0.0	100.0
	50대	81	8.6	51.9	22.2	2.5	14.8	0.0	100.0
	60대 이상	9	11.1	55.6	0.0	11.1	22.2	0.0	100.0
거주지 (27.721)	권선구	153	9.2	47.7	19.0	14.4	9.8	0.0	100.0
	장안구	96	3.1	43.8	22.9	12.5	16.7	1.0	100.0
	팔달구	92	3.3	57.6	15.2	17.4	6.5	0.0	100.0
	영통구	115	5.2	56.5	18.3	9.6	10.4	0.0	100.0
	수원시 외	18	16.7	33.3	33.3	5.6	11.1	0.0	100.0
직업 (46.650*)	사무직	138	6.5	49.3	24.6	11.6	8.0	0.0	100.0
	서비스/판매직	95	6.3	55.8	22.1	13.7	2.1	0.0	100.0
	기능직	47	6.4	44.7	27.7	12.8	8.5	0.0	100.0
	자영업	41	2.4	46.3	12.2	14.6	24.4	0.0	100.0
	학생	63	6.3	49.2	15.9	14.3	12.7	1.6	100.0
	주부	70	5.7	51.4	12.9	14.3	15.7	0.0	100.0
	무직	15	6.7	53.3	0.0	6.7	33.3	0.0	100.0
	기타	5	20.0	60.0	0.0	20.0	0.0	0.0	100.0
차량소유 (5.914)	있음	297	6.4	51.9	20.9	11.4	9.4	0.0	100.0
	없음	177	5.6	48.0	16.9	15.8	13.0	0.6	100.0

주: p* < .1, p** < .05, p*** < .01

(5)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추진사항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1,270개¹² 응답자 중 대중교통 서비스가 19.4%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주차장 16.5%, 보행자·교통약자 등 교통안전시스템 12.8%, 교통수단 공유 12.2%, 통합교통관리시스템 11.8%, 친환경 교통수단 11.5%, 자율주행시스템 9.6%, 퍼스널 모빌리티 6.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높은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분석결과 모든 응답속성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추진사항 비교

구분 (x ²)	응답자수 (명)	교통수단 공유 (%)	대중교통 서비스 (%)	보행자 교통안전 시스템 (%)	스마트 주차장 (%)	자율 주행 시스템 (%)	친환경 교통수단 (%)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 (%)	퍼스널 모빌리티 (%)	기타 (%)	계 (%)	
전체	1,270	12.2	19.4	12.8	16.5	9.6	11.5	11.8	6.1	0.1	100.0	
성별 (9.760)	남성	579	12.6	19.5	11.1	14.5	10.9	12.4	12.1	6.9	0.0	100.0
	여성	691	11.9	19.2	14.2	18.2	8.5	10.7	11.6	5.5	0.1	100.0
연령 (45.973)	10대	37	10.8	13.5	10.8	10.8	18.9	10.8	5.4	18.9	0.0	100.0
	20대	260	15.0	15.0	11.9	16.9	8.1	11.9	13.8	7.3	0.0	100.0
	30대	371	11.6	16.7	13.7	18.9	8.9	11.3	13.2	5.7	0.0	100.0
	40대	363	12.1	23.4	12.4	17.4	9.1	10.5	9.9	5.2	0.0	100.0
	50대	216	10.6	22.2	13.0	12.0	12.0	13.4	11.6	4.6	0.5	100.0
	60대 이상	23	8.7	30.4	13.0	13.0	8.7	8.7	8.7	8.7	0.0	100.0
거주지 (20.716)	권선구	415	11.8	21.2	12.3	14.9	10.4	12.0	11.6	5.8	0.0	100.0
	장안구	249	10.0	17.7	12.9	16.5	9.6	12.0	13.3	7.6	0.4	100.0
	팔달구	245	14.3	18.8	14.7	17.1	9.8	9.4	9.4	6.5	0.0	100.0
	영통구	311	13.5	19.0	10.9	18.3	9.0	11.6	13.2	4.5	0.0	100.0
	수원시 외	50	8.0	18.0	18.0	16.0	6.0	14.0	10.0	10.0	0.0	100.0

12 본 문항은 최대 3개 항목 선택 가능

구분 (x ²)	응답자수 (명)	교통수단 공유 (%)	대중교통 서비스 (%)	보행자 교통안전 시스템 (%)	스마트 주차장 (%)	자율 주행 시스템 (%)	친환경 교통수단 (%)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 (%)	퍼스널 모빌리티 (%)	기타 (%)	계 (%)	
직업 (53.785)	사무직	378	15.1	18.0	10.3	18.0	8.7	12.4	12.4	5.0	0.0	100.0
	서비스	260	8.1	23.5	13.8	16.5	10.8	10.8	10.4	6.2	0.0	100.0
	기능직	126	10.3	15.9	14.3	15.9	12.7	12.7	13.5	4.8	0.0	100.0
	자영업	103	13.6	18.4	15.5	13.6	11.7	8.7	9.7	7.8	1.0	100.0
	학생	174	14.9	15.5	10.9	17.2	10.9	12.1	9.2	9.2	0.0	100.0
	주부	179	11.7	20.7	14.5	16.2	5.6	10.1	15.6	5.6	0.0	100.0
	무직	37	8.1	29.7	16.2	10.8	8.1	10.8	8.1	8.1	0.0	100.0
	기타	13	0.0	23.1	15.4	15.4	7.7	23.1	15.4	0.0	0.0	100.0
차량소유 (6.580)	있음	791	11.6	20.0	12.3	17.7	9.2	11.6	12.1	5.3	0.1	100.0
	없음	479	13.2	18.4	13.6	14.6	10.2	11.3	11.3	7.5	0.0	100.0

주: p* < .1, p** < .05, p*** < .01

(6)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기대효과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을 통해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교통 혼잡 완화가 47.0%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19.4%, 교통안전 확보 17.1%, 시간 절약 8.9%,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7.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성별($x^2=9.788^*$), 연령별($x^2=39.505^{**}$), 거주지별($x^2=33.863^{**}$)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53.9%)과 여성(41.2%) 모두 교통 혼잡 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54.6%), 30대(42.0%), 40대(52.2%), 50대(43.2%)는 교통 혼잡 완화에 서, 10대(각각 30.8%)는 교통안전 확보와 시간 절약, 60대 이상(각각 33.3%)은 교통 혼잡 완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 관내(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 43.1% 이상이 교통 혼잡 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교통의 기대효과 비교

구분 (x ²)	응답자수 (명)	교통 안전확보 (%)	교통 혼잡완화 (%)	사회적 비용절감 (%)	시간절약 (%)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	기타 (%)	계 (%)	
전체	474	17.1	47.0	19.4	8.9	7.4	0.2	100.0	
성별 (9.788*)	남성	217	13.4	53.9	17.5	7.8	6.9	0.5	100.0
	여성	257	20.2	41.2	21.0	9.7	7.8	0.0	100.0
연령 (39.505**)	10대	13	30.8	23.1	15.4	30.8	0.0	0.0	100.0
	20대	97	14.4	54.6	15.5	8.2	7.2	0.0	100.0
	30대	138	16.7	42.0	22.5	11.6	6.5	0.7	100.0
	40대	136	19.1	52.2	11.8	7.4	9.6	0.0	100.0
	50대	81	17.3	43.2	30.9	2.5	6.2	0.0	100.0
	60대 이상	9	0.0	33.3	33.3	22.2	11.1	0.0	100.0
거주지 (33.863**)	권선구	153	15.0	43.1	24.2	5.9	11.8	0.0	100.0
	장안구	96	22.9	45.8	15.6	11.5	4.2	0.0	100.0
	팔달구	92	17.4	50.0	20.7	6.5	5.4	0.0	100.0
	영통구	115	15.7	54.8	14.8	9.6	4.3	0.9	100.0
	수원시 외	18	11.1	22.2	22.2	27.8	16.7	0.0	100.0
직업 (31.808)	사무직	138	18.1	49.3	18.1	9.4	5.1	0.0	100.0
	서비스/판매직	95	14.7	46.3	17.9	7.4	13.7	0.0	100.0
	기능직	47	10.6	51.1	21.3	8.5	8.5	0.0	100.0
	자영업	41	24.4	43.9	22.0	7.3	0.0	2.4	100.0
	학생	63	14.3	44.4	19.0	14.3	7.9	0.0	100.0
	주부	70	18.6	48.6	21.4	5.7	5.7	0.0	100.0
	무직	15	20.0	33.3	20.0	13.3	13.3	0.0	100.0
	기타	5	40.0	40.0	20.0	0.0	0.0	0.0	100.0
차량소유 (2.813)	있음	297	18.2	47.1	19.9	7.7	6.7	0.3	100.0
	없음	177	15.3	46.9	18.6	10.7	8.5	0.0	100.0

주: p* < .1, p** < .05, p*** < .01

5)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 및 활성화에 대한 분석

(1)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방법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인터넷·SNS 등이 61.6%로 가장 높았고, 공청회·간담회 등이

18.1%, 시민단체 활동 12.2%, 행정기관 방문 7.0%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령별($\chi^2=56.435^{***}$), 직업별($\chi^2=57.156^{***}$)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거주지별, 차량소유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참여 방법으로 모든 연령별에서 인터넷·SNS 등(53.1~76.9%)을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업별에서도 인터넷·SNS 등(44.7~82.5%)을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방법 비교

구분 (χ^2)		응답자수 (명)	인터넷·SNS (%)	공청회· 간담회 (%)	행정기관 방문 (%)	시민단체 활동 (%)	기타 (%)	계 (%)
전체		474	61.6	18.1	7.0	12.2	1.1	100.0
성별 (0.792)	남성	217	61.8	17.5	6.5	12.9	1.4	100.0
	여성	257	61.5	18.7	7.4	11.7	0.8	100.0
연령 (56.435 ^{***})	10대	13	76.9	7.7	0.0	0.0	15.4	100.0
	20대	97	76.3	11.3	4.1	8.2	0.0	100.0
	30대	138	54.3	23.9	8.7	12.3	0.7	100.0
	40대	136	61.8	18.4	9.6	10.3	0.0	100.0
	50대	81	53.1	17.3	4.9	22.2	2.5	100.0
	60대 이상	9	66.7	22.2	0.0	11.1	0.0	100.0
거주지 (19.708)	권선구	153	62.7	16.3	8.5	10.5	2.0	100.0
	장안구	96	53.1	29.2	3.1	14.6	0.0	100.0
	팔달구	92	60.9	17.4	6.5	13.0	2.2	100.0
	영통구	115	67.0	13.0	8.7	11.3	0.0	100.0
	수원시 외	18	66.7	11.1	5.6	16.7	0.0	100.0
직업 (57.156 ^{***})	사무직	138	68.8	15.2	4.3	10.9	0.7	100.0
	서비스/판매직	95	61.1	22.1	6.3	10.5	0.0	100.0
	기능직	47	44.7	17.0	14.9	23.4	0.0	100.0
	자영업	41	46.3	26.8	12.2	12.2	2.4	100.0
	학생	63	82.5	4.8	3.2	6.3	3.2	100.0
	주부	70	45.7	28.6	10.0	15.7	0.0	100.0
	무직	15	73.3	13.3	0.0	6.7	6.7	100.0
	기타	5	80.0	0.0	0.0	20.0	0.0	100.0
차량소유 (7.465)	있음	297	57.6	20.2	8.1	13.5	0.7	100.0
	없음	177	68.4	14.7	5.1	10.2	1.7	100.0

주: p* < .1, p** < .05, p*** < .01

(2)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향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89.0%가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1.0%가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별($\chi^2=53.031^{***}$), 직업별($\chi^2=32.624^*$)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거주지별, 차량소유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91.3% 이상이, 50대는 77.8%가, 60대 이상은 44.4%가 수원시 스마트 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학생은 91.5% 이상, 사무직과 주부는 84.3% 이상, 자영업은 78.1%, 무직은 60.0%, 기타는 100.0%가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향 비교

구분(χ^2)		응답자수(명)	매우 있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계(%)
전체		474	13.9	75.1	9.7	1.3	100.0
성별 (3.369)	남성	217	13.4	77.9	8.3	0.5	100.0
	여성	257	14.4	72.8	10.9	1.9	100.0
연령 (53.031 ^{***})	10대	13	30.8	61.5	7.7	0.0	100.0
	20대	97	19.6	73.2	7.2	0.0	100.0
	30대	138	19.6	71.7	8.0	0.7	100.0
	40대	136	8.1	85.3	5.1	1.5	100.0
	50대	81	6.2	71.6	19.8	2.5	100.0
	60대 이상	9	0.0	44.4	44.4	11.1	100.0
거주지 (13.627)	권선구	153	11.8	75.2	12.4	0.7	100.0
	장안구	96	17.7	74.0	8.3	0.0	100.0
	팔달구	92	9.8	78.3	9.8	2.2	100.0
	영통구	115	14.8	76.5	7.0	1.7	100.0
	수원시 외	18	27.8	55.6	11.1	5.6	100.0
직업 (32.624 [*])	사무직	138	13.0	76.8	9.4	0.7	100.0
	서비스/판매직	95	18.9	74.7	4.2	2.1	100.0
	기능직	47	12.8	78.7	8.5	0.0	100.0

구분(x ²)		응답자수(명)	매우 있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계(%)
직업 (32.624*)	자영업	41	9.8	68.3	19.5	2.4	100.0
	학생	63	17.5	79.4	3.2	0.0	100.0
	주부	70	10.0	74.3	14.3	1.4	100.0
	무직	15	6.7	53.3	33.3	6.7	100.0
	기타	5	20.0	80.0	0.0	0.0	100.0
차량소유 (3.082)	있음	297	11.8	77.1	9.8	1.3	100.0
	없음	177	17.5	71.8	9.6	1.1	100.0

주: p* < .1, p** < .05, p*** < .01

(3)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52명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46.2%)가 가장 높았고, 관심 없음(21.2%), 혜택 필요(17.3%), 변화가 없을 것(15.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든 응답속성별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해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 응답속성별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비교

구분 (x ²)		응답자수 (명)	개인정보 보호 (%)	혜택 필요 (%)	변화가 없을 것 (%)	관심 없음 (%)	계 (%)
전체		52	46.2	17.3	15.4	21.2	100.0
성별 (4.273)	남성	19	63.2	10.5	15.8	10.5	100.0
	여성	33	36.4	21.2	15.2	27.3	100.0
연령 (8.165)	10대	1	100.0	0.0	0.0	0.0	100.0
	20대	7	71.4	14.3	0.0	14.3	100.0
	30대	12	58.3	16.7	8.3	16.7	100.0
	40대	9	44.4	22.2	11.1	22.2	100.0
	50대	18	27.8	16.7	27.8	27.8	100.0
	60대 이상	5	40.0	20.0	20.0	20.0	100.0
거주지 (6.023)	권선구	20	55.0	10.0	20.0	15.0	100.0
	장안구	8	50.0	25.0	12.5	12.5	100.0

구분 (χ^2)		응답자수 (명)	개인정보 보호 (%)	혜택 필요 (%)	변화가 없을 것 (%)	관심 없음 (%)	계 (%)
거주지 (6.023)	팔달구	11	45.5	18.2	18.2	18.2	100.0
	영통구	10	30.0	20.0	10.0	40.0	100.0
	수원시 외	3	33.3	33.3	0.0	33.3	100.0
직업 (19.005)	사무직	14	50.0	28.6	7.1	14.3	100.0
	서비스/판매직	6	50.0	0.0	16.7	33.3	100.0
	기능직	4	50.0	0.0	50.0	0.0	100.0
	자영업	9	44.4	0.0	33.3	22.2	100.0
	학생	2	100.0	0.0	0.0	0.0	100.0
	주부	11	36.4	36.4	0.0	27.3	100.0
	무직	6	33.3	16.7	16.7	33.3	100.0
	기타	0	0.0	0.0	0.0	0.0	0.0
차량소유 (1.904)	있음	33	42.4	21.2	18.2	18.2	100.0
	없음	19	52.6	10.5	10.5	26.3	100.0

주: $p < .1$, $p^{**} < .05$, $p^{***} < .01$

(4)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의향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필요시 공개할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66.0%가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3.9%가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령별($\chi^2=47.052^{***}$), 거주지별($\chi^2=16.624^*$), 직업별($\chi^2=54.124^{***}$)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0대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100.0% 응답하였고, 20대부터 40대까지는 66.6% 이상, 50대는 45.7%, 60대 이상은 33.3%가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에서는 수원시 관내(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 60.4% 이상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원시 외 지역에서도 77.8%가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에서는 학생이 84.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서비스/판매직이 72.7%, 사무직이 68.1%, 주부 65.7%, 기능직

53.2%, 자영업 41.4%, 무직 26.7%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의향 비교

구분(x ²)	응답자수(명)	매우 있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계(%)	
전체	474	8.6	57.4	31.6	2.3	100.0	
성별 (2.498)	남성	217	7.4	59.0	32.3	1.4	100.0
	여성	257	9.7	56.0	31.1	3.1	100.0
연령 (47.052***)	10대	13	30.8	69.2	0.0	0.0	100.0
	20대	97	10.3	66.0	22.7	1.0	100.0
	30대	138	13.0	53.6	31.9	1.4	100.0
	40대	136	5.1	64.0	27.9	2.9	100.0
	50대	81	2.5	43.2	50.6	3.7	100.0
	60대 이상	9	0.0	33.3	55.6	11.1	100.0
거주지 (16.624*)	권선구	153	5.9	63.4	30.7	0.0	100.0
	장안구	96	12.5	47.9	37.5	2.1	100.0
	팔달구	92	8.7	53.3	32.6	5.4	100.0
	영통구	115	8.7	59.1	28.7	3.5	100.0
	수원시 외	18	11.1	66.7	22.2	0.0	100.0
직업 (54.124***)	사무직	138	10.9	57.2	31.2	0.7	100.0
	서비스/판매직	95	9.5	63.2	26.3	1.1	100.0
	기능직	47	4.3	48.9	46.8	0.0	100.0
	자영업	41	7.3	34.1	48.8	9.8	100.0
	학생	63	12.7	71.4	14.3	1.6	100.0
	주부	70	5.7	60.0	30.0	4.3	100.0
	무직	15	0.0	26.7	66.7	6.7	100.0
	기타	5	0.0	100.0	0.0	0.0	100.0
차량소유 (6.219)	있음	297	8.4	53.5	35.7	2.4	100.0
	없음	177	9.0	63.8	24.9	2.3	100.0

주: p* < .1, p** < .05, p*** < .01

6)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 474명의 응답자 중 공공이 39.2%로 가장 높았고, 공공+시민 15.6%, 시민 12.4%, 민간기업 12.2%, 공공+민간기업 12.0%, 민간기업+시민 4.4%, 공공+민간기업+시민 4.0%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령별($x^2=84.528^{***}$), 직업별($x^2=57.730^*$), 차량소유별($x^2=16.649^{**}$)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거주지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69.2%)는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20대(29.9%), 30대(34.8%), 40대(50.7%), 50대(40.7%), 60대 이상(77.8%)은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에서는 기타(60.0%), 공공+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직업(20.0~60.0%)에서는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차량 소유자(42.4%)와 차량 미소유자(33.9%) 모두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은 초기 단계이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원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단·중·장기의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표 16〉 응답속성별 수원시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 비교

구분(x^2)		응답자수 (명)	공공 (%)	민간기업 (%)	시민 (%)	공공+ 민간기업 (%)	공공+ 시민 (%)	민간기업+ 시민 (%)	공공+ 민간+시민 (%)	계 (%)
전체		474	39.2	12.2	12.4	12.0	15.6	4.4	4.0	100.0
성별 (4.015)	남성	217	40.1	13.4	12.9	13.4	13.8	3.7	2.8	100.0
	여성	257	38.5	11.3	12.1	10.9	17.1	5.1	5.1	100.0
연령 (84.528***)	10대	13	0.0	23.1	69.2	7.7	0.0	0.0	0.0	100.0
	20대	97	29.9	6.2	15.5	16.5	17.5	7.2	7.2	100.0
	30대	138	34.8	15.2	11.6	9.4	16.7	5.8	6.5	100.0
	40대	136	50.7	11.8	8.1	11.8	12.5	3.7	1.5	100.0
	50대	81	40.7	12.3	9.9	13.6	21.0	1.2	1.2	100.0
	60대 이상	9	77.8	22.2	0.0	0.0	0.0	0.0	0.0	100.0
거주지 (27.752)	권선구	153	43.8	13.1	9.2	11.8	12.4	5.9	3.9	100.0
	장안구	96	46.9	10.4	11.5	12.5	8.3	7.3	3.1	100.0
	팔달구	92	34.8	12.0	17.4	12.0	18.5	2.2	3.3	100.0
	영통구	115	33.0	11.3	13.0	12.2	23.5	2.6	4.3	100.0
	수원시 외	18	22.2	22.2	16.7	11.1	16.7	0.0	11.1	100.0
직업 (57.730*)	사무직	138	47.8	8.7	8.0	9.4	18.8	2.2	5.1	100.0
	서비스/판매직	95	41.1	8.4	15.8	10.5	15.8	4.2	4.2	100.0
	기능직	47	29.8	25.5	14.9	12.8	14.9	0.0	2.1	100.0

구분(x ²)		응답자수 (명)	공공 (%)	민간기업 (%)	시민 (%)	공공+ 민간기업 (%)	공공+ 시민 (%)	민간기업+ 시민 (%)	공공+ 민간+시민 (%)	계 (%)
직업 (57.730*)	자영업	41	26.8	19.5	9.8	17.1	17.1	7.3	2.4	100.0
	학생	63	27.0	7.9	22.2	17.5	12.7	7.9	4.8	100.0
	주부	70	41.4	15.7	8.6	11.4	11.4	7.1	4.3	100.0
	무직	15	60.0	13.3	13.3	6.7	0.0	6.7	0.0	100.0
	기타	5	20.0	0.0	0.0	20.0	60.0	0.0	0.0	100.0
차량소유 (16.649**)	있음	297	42.4	14.8	9.1	11.4	15.5	3.7	3.0	100.0
	없음	177	33.9	7.9	18.1	13.0	15.8	5.6	5.6	100.0

주: p* < .1, p** < .05, p*** < .01

7) 설문분석 결과의 시사점

분석결과 응답자의 75%는 스마트교통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고연령대나 직업별로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계층에서 스마트교통의 개념이 확산된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응답자(94.5%)는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도시관리(통합적 도시관리, 지능화 시설 등) 분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수원시 교통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교통 혼잡 발생(31.4%)을 꼽았으며 교통 혼잡은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 도로교통 수단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체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도입의 장기적 방향으로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우선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이 도입된다면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수단은 인터넷·SNS(61.6%)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청회·간담회, 행정기관 방문, 시민단체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연령계층에서 의견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외 다양한 수단으로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마트교통 자체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각 연령대별 75% 이상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아이디어 제안 등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수원시민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교통 혼잡문제와 교통운영·도로구조의 한계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대중교통체계 확충과 교통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 기본적인 교통운영시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장기적 목표로 이동성·접근성과 교통 혼잡해소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승용차 통행을 줄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통합된 경로 계획, 예약,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MaaS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별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결하여 수요자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통합 플랫폼으로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추진 시 젊은 층과 고연령대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병행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2016)¹³에서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정부의 협력과 민간참여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소재현 외¹⁴는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 ICT기술 기반의 서비스, 공유화·자동화·전기화 측면의 교통서비스 및 신산업모델 개발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데이터 가공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 재산(교통수단, 주차장 부지)등의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13 EU 집행위원회, 2016,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14 소재현 외 5명, 2019,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정립,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2호, 79~91쪽.

향후 서비스 구현 시 개인정보권과 개인 재산권, 서비스 구현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진 당위성이나 필요성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비스 구현 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 재산을 활용한 인프라 공유가 수반되는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개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0년 4월 28일 심사일 2020년 5월 21일 ~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2일

참고문헌

- 강연수, 2017, 「스마트시티와 교통부문 대응전략」, 『월간교통』 2017년 2월호, 21~26쪽.
- 관계부처합동,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 관계부처합동, 2018,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 관계부처합동, 2018,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청·LH, 2019,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 김규현, 2017, 「미국의 스마트시티 지원정책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 김숙희, 2019, 「수원시 스마트교통 추진전략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탁영 외 2명, 2017,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 시사점」, 『월간교통』, 32~36쪽.
- 김태형 외 4명, 2018,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대구도시공사,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도시」.
- 소재현 외 5명, 2019,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정립」, 『대한교통학회지』 제37권 제2호, 79~91쪽.
- 신희철, 2019, 「스마트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리서치 브리프』 No.3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Concep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for Smart City」.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유럽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시사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4차 산업혁명 핵심 융합사례 스마트시티 개념과 표준화 현황」.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와 현황과 미래」.
- City of Columbus, 2016, “Beyond Traffic : The smart city challenge Phase 2”.
- City of New York, 2015, “Building a smart + equitable city”.
- EC, 2014, “Mapping Smart Cities in the EU”.
- EU 집행위원회, 2016,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 IRS Global, 2017,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전망」.
- Kevin Gay, 2016, “U.S. DOT Smart City Challenge, 16th Korea-US Roads Workshop”.
- Land Transport Authority in Singapore, 2013,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13”.

스마트 콜럼버스 홈페이지(<https://www.columbus.gov/publicservice>).

세종시 스마트시티(<https://www.sejong.go.kr/smartcity>).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https://www.smartsejong5-1.kr>).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http://www.smartcity1st.com>).

Pittsburg 스마트시티(<http://smartpittsburgh.org/programs>).

Amsterdam 스마트시티(<https://amsterdamsmartcity.com>).

Singapore 스마트시티(<https://www.smartnation.s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수원시에 구축할 경우 수원시민이 요구하는 교통문제의 방향성,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 현황 및 향후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국내·외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운영사례를 폭넓게 조사 분석하였다. 이후 수원시 교통부문에 대한 인지도 및 활성화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교통의 인지도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나타났고 연령 및 직업에 따라 인지도 차이가 나타나 모든 계층에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이 확산된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교통 필요성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응답자(94.5%)는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도시관리(통합적 도시관리, 지능화 시설 등) 분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교통의 주요 불편사항은 교통 혼잡 발생인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 도로교통 수단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크게 체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민의 장기적 스마트교통의 도입에 대한 방향성의 경우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이 도입된다면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연구중인 MaaS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서비스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수단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교통의 참여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교통 자체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각 연령대별 75% 이상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아이디어 제안 등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는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의 교통부문, 수원시 스마트교통, ICT

ABSTRACT

Suwon citizens' Awareness of Smart Transportation and Strategies to Promote Smart City Transportation

Kim Suk-hee / Shim Tae-il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and conduc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ith the goals of identifying transportation issues; deriving strategies for promoting smart transportation; and setting the direction for future smart city service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Suwon citizens and compared and analyz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suggest that 75% of the respondents recognize smart transportation to some extent, however, the level of understanding varies depending on age and occupation of the respondents, which means that the concept of the smart city transportation is not recognized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However, most respondents (94.5%) believe that Suwon needs to build a smart city and shows greater interest in the construction of urban management (integrated city management, intelligent facilities, etc.). Traffic congestion is regarded as a main inconvenience as citizens experience it in everyday life through all modes of road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buses, taxis, etc.). As for the long-term directions for introducing smart transportation, citizens give priority to improving mobility and accessibility and expect the traffic congestion to be alleviated if the smart city transportation sector is introduced. This indicat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integrated MaaS platform, which is currently under national researc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are most preferred means of collecting opinions for the realization and promotion of smart transportation.

In addition, except for those in their 60s or older, who are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smart transportation, more than 75% of each age group is willing to participate, such as suggesting ideas to implement the serv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assets for Suwon in moving towards smart city transportation.

Key words : smart city, smart city transportation, smart mobility, smart transportation in Suwon, ICT

질병·의료획득이 수원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

김제선* / 한연주**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 5. 논의 및 결론

1.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삶과 생활 만족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후자처럼 노인의 삶의 질이 하락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영역은 노인의 경제와 더불어 건강이다. 노인은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우울 증은 치매와 함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노인성 정신질환 중 하나이다.¹ 2005년 ‘한국인의 질병부담 보고서’에서는 우울증을 70대 노인에게 나타나는 5대 질병으로

*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Arts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 ijeon4@bau.ac.kr, Tel : 010-8840-9753)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1 강상경·전해숙, 2006, 「Aging and the Change in Self-Perceptions : Multilevel Modeling on Its Relationships with the Changes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omains」, 『한국노년학』 26권 2호.

보고하였다.²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은 2000년대 이전에 이미 약 15% 정도로 추정되었으며,³ 2009년 전체 노인이 우울증에 걸린 숫자는 14만 7,721명으로 추산되었다.⁴ 또한, 2017년의 한 연구⁵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42.0%에 달하고 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은 전체 16.5%에 이른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⁶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 연령층의 경우 2013년 58만 4,949명에서 2018년 75만 2,211명으로 약 30%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이 1,500명 이상인 경우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3,837명 등 고령층에서 특히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유독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7%가 중증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⁷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의료보장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것에 반해서, 노인들이 겪는 우울 정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 우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또다시 노인에게 불안, 신체적 증상, 정신운동지체, 높은 자살률, 불면증, 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⁸ 여기에다가 최근 중요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인가구 유형은 비노인가구와 달리 65세 이후부터 약 90세 중반에 이르기까지 의료비를 상당히 필요로 한다.⁹ 즉,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보다 상대적으

-
- 2 남일성·염소림, 2013,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호, 111쪽에서 재인용
 - 3 정현주·윤지연·이홍수·이상화·심경원, 2001,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대한임상노인학회지』 2권 2호.
 - 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질환자 1.7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5 이성진·윤기혁·이진열, 2017, 「노인의 은퇴 이후 우울발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권 5호.
 - 6 「고령화·치매·우울증환자 증가→“가족들 고통 커”」, 『데일리미디어』, 2019년 10월 28일(<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8909>).
 - 7 Luppá, M., Sikorski, C., Luck, T., Ehreke, L., Konnopka, A., Wiese, B., et al., 2012, “Age and gender specific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st life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36.
 - 8 정현주·윤지연·이홍수·이상화·심경원, 2001,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대한임상노인학회지』 2권 2호, 81~95쪽.
 - 9 Yamamoto, D. H., 2013, *Health Care Costs—From Birth to Death*, The Health Care Cost Institute.

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더 높다.¹⁰ 따라서 노인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 유형에 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자신을 포함한 그 가구주(또는 세대주) 또는 다른 가구 원 등이 감당해야 할 전체 보건의료비는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인이 의료서 비스를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할 본인부담금 등 평균 의료비 부담 정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¹¹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의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속한 가구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비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정도 역시 현실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가구의 의료 비 부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제기되어 왔다.¹²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여 노인 우울증이 갖는 다른 양상이 있으며,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노인 우울증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틀림없 다. 따라서 인구 고령사회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제도적, 정책적 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중요하다. 지방정부도 노인의 문제에 대해 복지정책 사업으 로서 주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 노인가구(세대)에서 미납하고 있는 공적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월별 사회보험료를 지원 또는 대납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노인복지(보건)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건강 또는 의료적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된 국내 결과는 아직까지 없거나 많 지 않고, 매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¹³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독립변수)과 우울

10 양정선, 2007,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권 1호, 1~13 쪽; Yamamoto, D. H., 2013, *Health Care Costs—From Birth to Death*, The Health Care Cost Institute; Nardi, M. D., French, E. and Jones, J. B., 2009, “WHY DO THE ELDERLY SAVE? THE ROLE OF MEDICAL EXPENSES”, *Working Paper 151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1 Nardi, M. D., French, E. and Jones, J. B., 2009, “WHY DO THE ELDERLY SAVE? THE ROLE OF MEDICAL EXPENSES”, *Working Paper 151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2 Webb, A. & Zhivan, N., 2010, “WHAT IS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HEALTH CARE COSTS FROM AGE 65?”,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10-4*(https://crr.bc.edu/wp-content/uploads/2010/02/IB_10-4.pdf).

13 현외성, 2014,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제와 정책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65호.

증(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노인가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건강, 돌봄, 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 예측 또는 노인 의료비 등과 관련된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Aday & Andersen,¹⁴ Andersen¹⁵의 행동주의 모형(behavioral model)을 활용하여 ‘질병·의료 획득요인’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해 기존 노인 우울증 또는 우울 정도와 관련된 요인들 중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유무, 만성질환유무, 진료횟수, 입원횟수,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공적 보험종류 등을 일차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전체 보건의료비 중에서도 가구의 총생활비 중 건강관리를 사전적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원리인 매월 사회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정도가 노인 우울증에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노인 우울증과 노인의 질병·의료획득

우울(depression)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의 개인적 정서 또는 감정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등 인간의 광범위한 부정적 마음의 상태이다.¹⁶ Steffens & Potter¹⁷는 기분장애 한 부분으로서 슬픔, 자존감 또는 삶에 대한 흥미 상실, 혹은 수면·식욕·사고·활기 등에 대한 소실을 초래하는 부정적 감정을 우울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14 Aday, L. A. & R. M. Andersen, 1974,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9, No. 3.

15 Anderse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6, No. 1.

16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 Univ. Press.

17 Steffens, D. C. & Potter, G. G., 2008,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Psychiatric Research*, Vol. 12, No. 3.

서 우울증은 불안, 침울감, 무력함, 무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기분장애이다. Beck¹⁸의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of depression)에 의하면 생활사건, 인지적 오류, 그리고 자동적 사고 다음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우울증의 원인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와 왜곡, 역기능적인 인지도식과 신념이라는 것이다.

신체적 질환과 더불어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노인 우울증(geriatric depression)은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정신적 질환이다. 죽음, 은퇴, 노화와 같은 상실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노인은 우울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 즉, 노화로 인해 사람은 슬픈 감정이 심하고 의기소침한 상태가 높게 나타나거나 활동이 저하되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전의 연령계층보다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우울감을 겪게 되는 노인이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되며, 그로 인해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고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키우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우울 정도가 높은 이유는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¹⁹ 노인 우울증은 다른 연령 계층과는 달리 죄책감, 공격적 적개심이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 신체적 질환, 사회로부터의 감정적 고립, 가족이나 친구의 사별, 경제적인 문제, 교육수준 및 성격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이며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서 기인한다.²⁰ 정현주·윤지연·이홍수·이상화·심경원²¹은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여기는 노인일수록, 그리고 신체질환이 3개 이상 있었던 노인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증을 보였다고 하였다. 강현욱·박경민²²은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에 대한 우울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

-
- 18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 Univ. Press.
- 19 강상경·전해숙, 2006, 「Aging and the Change in Self-Perceptions : Multilevel Modeling on Its Relationships with the Changes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omains」, 『한국노년학』 26권 2호.
- 20 Wilson, I. B. & Cleary, P. D., 1995,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73.
- 21 정현주·윤지연·이홍수·이상화·심경원, 2001,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2권 2호.
- 22 강현욱·박경민, 2012,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한국노년학』 32권 1호, 129~143쪽.

는 요인임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손석준 등²³은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하였고, 김현경 등²⁴은 국내의 노인 우울 및 자살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노인 우울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약화, 사회적 고립과 더불어 장애 또는 신체적 질병 등이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최희정·유장학²⁵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증진행위와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과 만성질환의 수 등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정영미²⁶는 수도권 재가 여성노인의 경우 반대로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송진영·강영미²⁷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우울이 심각하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국형²⁸은 장기 입원한 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제선²⁹은 노인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횟수 또는 입원횟수 등에 따라 노인의 의료비와 더불어, 정신적인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제선·한연주³⁰는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현용³¹도 노년기의 건강보장 등의 사회적 개입이 노인의 우울 증상 등 정신건강에서 중요함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더구나, 이인정³²은 만성질환 정도가 심한 노인에게서 우울 수준이 높은

-
- 23 손석준·신준호·신희영·정은경·범민선·권순석, 2000, 「농촌지역 노인의 우울수준과 관련요인」, 『농촌의학 지역보건』 25권 1호, 85-98쪽.
- 24 김현경·이광자·허정·송은주, 2008, 「노인 우울 및 자살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Health & Nursing』 20권 2호.
- 25 최희정·유장학, 2011,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 호학연구지』 17권 2호.
- 26 정영미, 2007, 「여성노인의 우울에 따른 건강상태 및 우울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7권 1호.
- 27 송진영·강영미, 2014, 「장애노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권.
- 28 이국형, 2007, 「일개 의료원에 입원중인 노인 환자의 우울 성향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 29 김제선, 2011,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사회보장연구』 27권 4호.
- 30 김제선·한연주, 2017,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의료비부담과 가구 유형의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7호.
- 31 박현용, 2018, 「노인 우울 증상의 잠재적 하위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권 3호.
- 32 이인정, 2012,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과 우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반면, 공적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우울 정도를 낮추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강상경·전해숙³³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증에 대한 요인으로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등으로 개념을 분류하였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관적 인식의 건강상태, 장애유무, 만성질환유무, 진료횟수, 입원횟수, 민간의료보험 가입, 공적보험종류 등이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개별 요인들을 묶어 Aday & Andersen,³⁴ Andersen³⁵의 행동주의 모형(behavioral model)을 활용하여 질병·의료획득요인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해 지칭할 수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하는 이유는 개인과 가족이 사회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결정하는지, 다양한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한 개인의 최종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모형으로서 노인의 의료비와 관련된 연구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³⁶ 건강, 돌봄,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의료서비스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예측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이 제시되었다. 선행요인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특성 부분, 이를테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권 4호.

- 33 강상경·전해숙, 2006, 「Aging and the Change in Self-Perceptions : Multilevel Modeling on Its Relationships with the Changes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omains」, 『한국노년학』 26권 2호.
- 34 Aday, L. A. & R. M. Andersen, 1974,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9, No. 3.
- 35 Anderse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6, No. 1.
- 36 송태민, 2013, 「앤더스 행동모형을 이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권 1호; 양은진·김순은, 2019, 「노인돌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nderson 행동모형의 가능성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권 1호; 임연옥·윤현숙, 2009,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춘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권 3호; 천재영·최영, 2014, 「앤더스 행동모형을 적용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권.

필요정도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미치며, 마지막으로 가능성요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수준 등이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세 개의 요인들은 노인의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의료적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³⁷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유무, 만성질환유무, 진료횟수, 입원횟수 등을 질병욕구인으로, 민간보험가입, 공적건강보험의 종류 등을 의료획득요인으로 분류하였다.

2)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보험 원리에 따른 피보험자 즉, 보험가입자의 기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사회보험료를 통해 충당되며,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이다.³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한 해의 수입은 그 해의 지출로 소비하고, 보험급여도 질병치료 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이점 국민건강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다.

1988년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됨에 따라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가입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37 송태민, 2013, 「앤더스 행동모형을 이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권 1호; 양양은·진·김순은, 2019, 「노인돌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nderson 행동모형의 가능성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권 1호.

38 사회보험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의 명확성원칙이나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키고 있지 않다(김제선, 2019, 「의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자치법규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20권 1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부과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노인계층이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보험료 체납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의료 이용 시 취약하거나 배제 또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은 전체 22.2%에 해당하며, 28.5%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³⁹

노인가구 중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후반에 늘어나게 되었고, 3개월 이상 체납한 노인가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여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보험료 체납을 하는 노인가구에서는 의료 이용이 필요한 노인뿐만 아니라, 그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하는 가족구성원에게까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개인적 또는 가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구의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보장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보장률은 입·내원 진료 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적 또는 사적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보건의료비 또는 보험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⁰

그러한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하나가 지방정부에서 매월마다 공적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제도이다. 즉, 지방정부들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금액이 월 최저 국민건강보험료 금액 등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 등의 보험료액을 지방정부의 공적 예산으로 지원 또는 대납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대납되는

39 김제선, 2019, 「의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자치법규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20권 1호.

40 최영순·이광욱·임은실, 2011,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주관적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7권 2호.

가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노인가구이거나 전체 소득 금액 중에서 또는 전체 생활비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크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가구의 노인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대한 적절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인은 다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되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부담감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으로 정의되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에 대한 막중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그것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 우울증은 즉각적, 그리고 적절히 치료하면 가역성으로 될 수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가 발생하고 회복이 지연되고 병원의 의료이용이 늘어나게 되며,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는 큰 위험까지도 초래된다.⁴¹ 만약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 질환이나 자살 등의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가족들이나 간병을 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손실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인 우울증에 대한 위험요소나 관련 요인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회적 치료도 가능할 것이다.⁴²

그러나 현재의 노인 우울증에 대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활동, 학문적 연구들은 예방보다는 사후 처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노인 우울증이 질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의료적 치료에 초점을 둔다.⁴³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 우울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을 더

41 Kurlowicz, L. H. & Paculty, N., 1999, "Nursing standard of practice protocol depression in elderly patients", *Geriatric Nursing*, Vol. 18.

42 정현주·윤지연·이홍수·이상화·심경원, 2001,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대한임상노인학회지』 2권 2호.

43 이성진·윤기혁·이진열, 2017, 「노인의 은퇴 이후 우울발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권 5호.

겪는다⁴⁴는 것 때문이다. 즉, 사회적 도움이나 돌봄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서 우울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개입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이 우울증을 겪는다면 그 본인은 물론, 그가 속한 가구는 우울증과 그 치료 또는 돌봄 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⁴⁵

3.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은 수원시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수원시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은 수원시 노인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수원시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과 노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감은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접근법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를 가지는 변수를 조사하는 것이다.⁴⁶ Baron & Kenny⁴⁷에 의하면 매개변수(mediator)는 예측변수와 준거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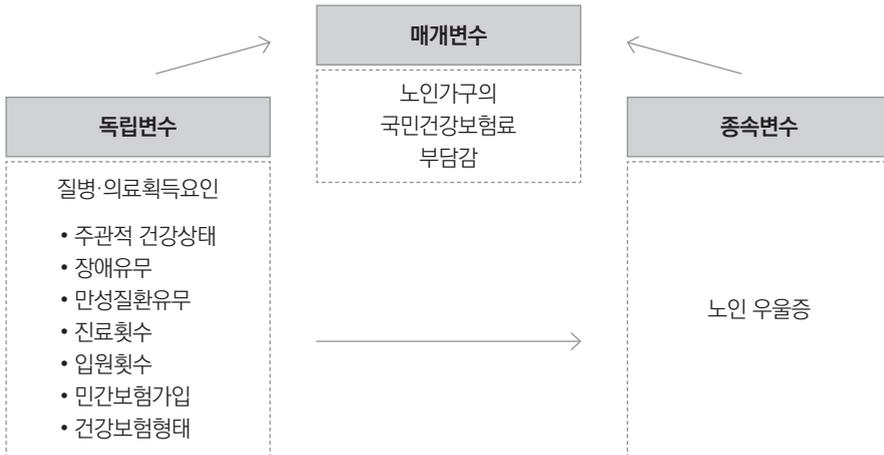
44 남일성·염소림, 2013,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호.

45 남일성·염소림, 2013,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호.

46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47 Baron, R. M.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 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단계적 인과관계 접근(Causal Steps Approach)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최근까지 매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본은 수원시 4개구의 거주 노인 인구수에 따라 노인이 속한 가구단위로 다단계 추출법(multi-stage sampling)을 통해 623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표에 미응답한 문항이 많은 경우 등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307명(세대)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평균 75.01세였다. 이를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한 연령대로 분류해 보면 연소노인

(young-old)인 74세 이하'가 145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령노인(middle-old)인 75세 이상~84세 이하'가 129명(42.0%), 그리고 초고령노인(old-old)인 85세 이상'이 33명(10.7%)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성별의 경우 '여성'은 189명(61.6%) '남성'은 118명(38.4%)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셋째, 최종학력의 경우 '초졸'은 109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69명(22.5%), '고졸'은 50명(16.3%), '대졸'은 8명(2.6%)이 응답하였으며, '무학'은 71명(23.1%)이 응답하였다. 넷째, 세대원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 2.36명(표준편차 1.373)에 해당하였다. 다섯째, 가구(세대원 구성) 유형의 경우 노인 혼자서만 사는 '노인독거가구'는 95명(30.9%)으로, 노인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96명(31.3%)으로 응답하였으며, 자녀 등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성인가구원동거세대'는 가장 많은 116명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만원, %)

구분		빈도	비율
연령	65세 이상~74세 이하	145	47.3
	75세 이상~84세 이하	129	42.0
	85세 이상	33	10.7
성별	남성	118	38.4
	여성	189	61.6
최종 학력	무학	71	23.1
	초등학교 졸업	109	35.5
	중학교 졸업	69	22.5
	고등학교 졸업	50	16.3
	대학교 졸업 이상	8	2.6
세대원 수	평균(표준편차)	2.36	1.373
가구 유형	노인독거가구	95	30.9
	노인부부가구	96	31.3
	성인가구원동거가구	116	37.8
가구 월 생활비	평균(표준편차)	131	102.081
거주 지역	장안구	75	24.4
	권선구	82	26.7
	팔달구	87	28.3
	영통구	63	20.5

(37.8%)이 응답하였다. 여섯째, 가구 월 생활비는 평균 131만 원(표준편차 102,081)에 해당하였다. 일곱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장안구’는 75명(24.4%), ‘권선구’는 82명(26.7%), ‘팔달구’는 92명(28.3%), 그리고 ‘영통구’는 63명(20.5%)으로 응답하였다.

3) 변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노인 우울증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을 위해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 Leire(1983)⁴⁸이 개발한 단축형 노인성 우울증 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검사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 문항에 대해 각각의 문항의 우울 경향성 정도에 따라 극히 드물다 = 1점부터 대부분 그랬다 = 4점까지 자가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해당 지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7$ 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으로 총 7가지의 하위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질병요인의 하위변수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장애유무, 만성질환⁴⁹유무, 진료횟수, 입원횟수이다. 다음으로, 의료획득요인의 하위변수로는 민간건강보험 가입 건수,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이다.

이러한 하위변수들 중 주관적 건강상태, 진료횟수, 입원횟수,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속변수가 아닌 명목변수에 해당하는 장애유무(유=1), 만성질환유무(유=1),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지역 건강보험

48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B.,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17.

49 만성질환의 조작적 정의는 3개월 이상 투약 및 투병으로 하였다.

=1)는 가변수화(dummy coding)하였다.

(3) 매개변수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이란 노인이 그 가구의 세대 또는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 1,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 2, 감당을 할 수 있다 = 3, 약간 부담을 준다 = 4, 매우 큰 부담을 준다 = 5 등으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이 노인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와 그 관계에서 노인가구의 매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감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의 부담감이 매개변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Baron & Kenny⁵⁰가 제안한 단계적 인과관계 접근(Causal Steps Approach)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수원시 노인의 질병 및 의료획득 특성

수원시 노인의 질병 및 의료획득에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1점, 건강이 아주 좋다는 5점)로 평가한 결과는 2.60점(표준편차 .983)으로, 비교적 '안 좋은 상태'로서

50 Baron, R. M.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 유무에 대해서는 장애 없음이 88.9%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었다. 반면, 장애 없음은 11.1%로 비교적 낮았다. 셋째, 3개월 이상의 만성질환 유무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없음이 33.6%로 있음의 6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중 약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만성질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1년 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평균 13회(표준편차 14.060)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횟수로 보면 매월 1회 정도로서 많은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노인들의 경우 100회 이상의 진료를 받고 있어 개인별 편차가 컸다. 다섯째, 1년 동안의 입원 횟수는 평균 0.27회(.579)로 나타났다. 여섯째, 의료 또는 건강에 대한 서비스 획득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 방법으로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평균 0.46건(표준편차 .741)으로 수원시 노인들은 매우 낮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국민건강보험 형태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역 건강보험은 23.5%인 반면, 직장 건강보험은 76.5%로 상대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이 많았다. 이는 본인이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가구구성원에 의해 매월 직장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체납할 가능성이 낮은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수원시 노인의 질병요인 및 의료획득요인 특성

(단위 : 점, 명, 회, %)

구분		빈도	비율
질병 요인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2.60 (.983)
	장애유무	장애 없음	273 88.9
		장애 있음	34 11.1
	만성질환유무	만성질환 없음	103 33.6
		만성질환 있음	204 66.4
	진료횟수	평균(표준편차)	13 (14.060)
입원횟수	평균(표준편차)	0.27 (.579)	
의료 획득요인 특성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평균(표준편차)	.46 (.741)
	국민건강보험 형태	지역 건강보험	72 23.5
		직장 건강보험	235 76.5

2) 수원시의 노인 우울증과 건강보험료 부담감 수준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수원시 노인의 우울증 정도는 11문항의 지표에 대해 4점 만점의 척도로 측정된 값은 전체 평균 1.83점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노인들은 매우 심각할 정도의 우울증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끔(1주일 중 2일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의 수준에서 수원시 노인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수원시 노인들은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한 결과로서 노인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이 비교적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노인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수원시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정신질환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표 3〉 수원시 노인의 우울증 수준

(기준 : 4점, 단위 : 점)

항목	사례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가.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307	1	4	1.70	0.81
나. 비교적 잘 지냈다.*		1	4	2.34	1.08
다. 상당히 우울했다.		1	4	1.56	0.78
라.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4	1.88	0.84
마.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4	1.91	0.82
바.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1	4	1.73	0.83
사.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4	2.63	0.96
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4	1.49	0.69
자. 마음이 슬펐다.		1	4	1.68	0.75
차.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4	1.51	0.69
카.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4	1.73	0.82
전체 평균		1.00	3.82	1.83	0.56

주: *역코딩한 문항임

수원시 노인가구의 의료보장 형태는 '직장 건강보험'이 76.5%를,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이 2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가구에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60% 정도의 노인가구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큰 담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25.1%이었고, ‘약간 부담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이었다. ‘감당할 수 있다’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각각 17.6%와 23.1%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에 따라 수원시의 노인가구에서는 사회보험료의 본인부담 기여에 대한 책임으로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 정도가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수원시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부담감 정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20	6.5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51	16.6
	감당할 수 있다	54	17.6
	약간 부담을 준다	105	34.2
	매우 큰 부담을 준다	77	25.1
	합계	307	100.0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동일한 독립변수인 장애유무($r=-.268, p<.01$), 만성질환유무($r=-.515, p<.01$), 진료횟수($r=-.291, p<.01$), 입원횟수($r=-.309,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민간보험가입($r=.382, p<.01$)과 건강보험형태($r=.283,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변수인 건강보험료 부담감은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r=-.446, p<.01$), 민간보험가입($r=-.251, p<.01$), 건강보험형태($r=-.161, p<.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만성질환유무($r=.271, p<.01$), 입원횟수($r=.163,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매개변수인 건강보험료 부담감과 종속변수인 노인 우울증의 관계($r=.374, p<.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노인 우울증 등 변수 간의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 주관적 건강상태	1								
2. 장애유무	-.268**	1							
3. 만성질환유무	-.515**	.185**	1						
4. 진료횟수	-.291**	.079	.427**	1					
5. 입원횟수	-.309**	.086	.129*	.074	1				
6. 민간보험가입	.382**	-.091	-.401**	-.109	.001	1			
7. 건강보험형태	.283**	.024	-.263**	-.104	-.127*	.196**	1		
8. 건강보험료 부담감	-.446**	.102	.268**	.087	.135*	-.251**	-.161**	1	
9. 노인 우울증	-.475**	.127*	.271**	.093	.163*	-.273**	-.293**	.374**	1

주: *p<.05, **p<.01

3) 질병·의료획득이 노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과 우울증의 관계에서 노인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3단계 절차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3단계의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진료횟수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 영향($t=-6.600$)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횟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역시 부적인 영향($t=-1.996$)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시 노인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안 좋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심리적 적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본인이 매우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또한 병원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가구가 부담해야 할 매월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상태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보험 형태가 노인 우

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 영향($t=-6.070$)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형태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역시 비교적 영향이 큰 부적($t=-3.138$)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시 노인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안 좋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직장 건강보험보다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형태가 더욱 더 노인 우울증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본인이 매우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또한 건강보험료를 매월 직장 또는 성인가구원 등에 의해 납부하는 직장 건강보험보다는 소득노인 본인 또는 부부에 의해 납부하는 해야 형태의 지역 가입자 가구가 오히려 노인 우울증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감이 매개변수로 투입되어 이전 단계처럼,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보험 형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으나, 투입된 매개변수의 건강보험료 부담감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 모형에서는 두 번째 단계와 같은 건강상태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 영향($t=-4.194$)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형태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역시 비교적 영향이 큰 부적($t=-3.402$)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개변수가 투입됨으로 인해 이러한 두 변수의 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건강보험의 부담감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노인 우울증에 앞의 변수들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정적($t=4.690$)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원시 노인들은 본인에 대한 건강상태가 주관적으로 안 좋게 판단할수록,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보다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노인에게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는 독립변수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변수의 영향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개변수로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 주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3단계 절차에 따른 분석결과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이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인 노인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임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⁵¹

51 다만, 1단계에서 건강보험유령과 건강보험료 부담감은 유의한 수준이 아니어서 Baron & Kenny의 1단계

〈표 6〉 질병·의료획득과 노인 우울증의 관계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

매개 효과 검증 단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표준화된 β 값	t값	p값	R제곱값
1단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보험료 부담감	-.441	-6.600	.000	.217
	장애유무		-.054	-1.012	.312	
	만성질환유무		.029	.438	.662	
	진료횟수		-.114	-1.996	.047	
	입원횟수		.024	.440	.661	
	민간보험가입		-.092	-1.586	.114	
	건강보험형태		.032	.581	.562	
2단계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 우울증	-.394	-6.070	.000	.263
	장애유무		.019	.360	.719	
	만성질환유무		.005	.071	.943	
	진료횟수		-.054	-.973	.331	
	입원횟수		.022	.423	.673	
	민간보험가입		-.092	-1.630	.104	
	건강보험형태		-.166	-3.138	.002	
3단계 (독립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 우울증	-.282	-4.194	.000	.314
	장애유무		.033	.646	.519	
	만성질환유무		-.003	-.045	.964	
	진료횟수		-.025	-.462	.645	
	입원횟수		.016	.318	.751	
	민간보험가입		-.069	-1.251	.212	
	건강보험형태		-.174	-3.402	.001	
3단계 (매개 변수)	건강보험료 부담감		.254	4.690	.000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는 주관적 건강 수준과 노인우울 간에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부분 매개효과로 볼 수도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함의는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질병·의료획득요인과 노인 우울증,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보장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독립변수 중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진료횟수, 즉 노인 스스로 건강이 안 좋다고 인식하거나 병원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 매월 공적 건강보험료액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데 영향력이 높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서는 수원시 노인 중 본인 건강에 대해 안 좋다고 인식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오히려 노인 우울 정도의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력이 컸다. 마지막 분석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감이 이전 단계 분석결과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보험 형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독립변수의 영향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개변수로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원시 노인 우울증이나 노인가구의 월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노인 본인 또는 그 가구의 기능으로 한정하거나, 비단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책 과제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보건복지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공적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정책 등이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 보건시스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⁵²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부터 이미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

52 Seddon, M. E., Marshall, M. N., Campbell, S. M. & Roland, M. O., 2001,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quality of clinical care in general practice in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Quality in Health Care*, Vol. 10.

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가구의 최저 공적 건강보험료를 매월 대납 또는 지원해 주는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본 연구가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등은 노인 중 40% 또는 50% 이상이 차질할 정도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이미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이 확충되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건강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³

수원시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우울증, 수면장애, 화병, 불안증 등 노인성 정신질환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노인정신건강종합검진을 하고 있다. 이 검진을 통해 노인성 우울, 화병,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회복탄력성, 노쇠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노인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다.⁵⁴

우울증을 겪는 노인에 대한 상담은 전문성의 문제와 복지사와 상담사간의 역할 모호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 우울에 대한 사회복지적 역할 또는 대응은 우울 예방교육과 예비 진단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보조적이며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노인 우울문제에서 사회복지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⁵⁵

중앙정부는 지금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가구에서 노인들

53 「노인의 날...우울증, 노년 건강 해치다」, 『현대건강신문』, 2019년 10월 2일(<http://hnews.kr/news/view.php?no=50101>).

54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

55 이성진·윤기혁·이진열, 2017, 「노인의 은퇴 이후 우울발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권 5호, 905-926쪽.

이 질병 등에 대한 의료적 접근과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부담과 본인부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인가구원동거가구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가구원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 부부 가구나 단독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노인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노인들이 본인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지역사회에서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틀로 활용한 행동주의 모형의 요인 중 선행요인의 변수를 분석대상 자료의 관련 변수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독립변수로 투입된 진료횟수와 입원횟수를 매개변수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본 분석결과에서 3단계 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일부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1단계에서 건강보험유형과 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한 연구가 계속 수행될 과제가 있다.

투고일 2019년 10월 30일 심사일 2019년 11월 19일 ~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4일

참고문헌

- 강상경 · 전해숙, 2006, 「Aging and the Change in Self-Perceptions : Multilevel Modeling on Its Relationships with the Changes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omains」, 『한국노년학』 26권 2호, 417~436쪽.
- 강현욱 · 박경민, 2012,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한국노년학』 32권 1호, 129~143쪽.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질환자 1.7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제선, 2011,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사회보장연구』 27권 4호, 295~325쪽.
- 김제선, 2019, 「의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자치법규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20권 1호, 203~242쪽.
- 김제선 · 한연주, 2017,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의료비부담과 가구 유형의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7호, 610~621쪽.
- 김현경 · 이광자 · 허정 · 송은주, 2008, 「노인 우울 및 자살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Health & Nursing』 20권 2호, 62~69쪽.
- 남일성 · 염소림, 2013,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2호, 109~126쪽.
- 박현용, 2018, 「노인 우울 증상의 잠재적 하위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권 3호, 64~91쪽.
- 손석준 · 신준호 · 신희영 · 정은경 · 범민선 · 권순석, 2000, 「농촌지역 노인의 우울수준과 관련요인」, 『농촌의학 · 지역보건』 25권 1호, 85~98쪽.
- 송진영 · 강영미, 2014, 「장애노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권 21~45쪽.
- 송태민, 2013, 「앤더슨 행동모형을 이용한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권 1호, 547~576쪽.
- 양은진 · 김순은, 2019, 「노인돌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nderson 행동모형의 가능성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4권 1호, 61~90쪽.
- 양정선, 2007,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권 1호, 1~13쪽.

- 이국형, 2007, 「일개 의료원에 입원중인 노인 환자의 우울 성향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 · 윤기혁 · 이진열, 2017, 「노인의 은퇴 이후 우울발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권 5호, 905~926쪽.
- 이인정, 2012,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의 우울 수준과 우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권 4호, 31~65쪽.
- 임연옥 · 윤현숙, 2009,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춘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권 3호, 1063~1085쪽.
- 정영미, 2007, 「여성노인의 우울에 따른 건강상태 및 우울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7권 1호, 71~86쪽.
- 정현주 · 윤지연 · 이홍수 · 이상화 · 심경원, 2001,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2권 2호, 81~95쪽.
- 천재영 · 최영, 2014, 「앤더스 행동모델을 적용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권 307~335쪽.
- 최영순 · 이광옥 · 임은실, 2011,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주관적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7권 2호, 147~157쪽.
- 최희정 · 유장학, 2011,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17권 2호, 149~155쪽.
- 현외성, 2014,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제와 정책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65호, 281~315쪽.
- Aday, L. A. & R. M. Andersen, 1974,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9, No. 3, pp.208~220.
- Anderse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6, No. 1, pp.1~10.
- Baron, R. M.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 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2.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 Univ.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 Kurлович, L. H. & Paculy, N., 1999, "Nursing standard of practice protocol depression in elderly patients", *Geriatric Nursing*, Vol. 18, pp.192~199.
- Luppa, M., Sikorski, C., Luck, T., Ehreke, L., Konnopka, A., Wiese, B., et al., 2012, "Age and gender specific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st life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36.
- Nardi, M. D., French, E. and Jones, J. B., 2009, "WHY DO THE ELDERLY SAVE? THE ROLE OF MEDICAL EXPENSES", *Working Paper 151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eddon, M. E., Marshall, M. N., Campbell, S. M. & Roland, M. O., 2001,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quality of clinical care in general practice in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Quality in Health Care*, Vol. 10, pp.152~158.
- Steffens, D. C. & Potter, G. G., 2008, "Mini-Mental state. :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Psychiatric Research*, Vol. 12, No. 3, pp.189~198.
- Webb, A. & Zhivan, N., 2010, "WHAT IS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HEALTH CARE COSTS FROM AGE 65?",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10-4*(https://crr.bc.edu/wp-content/uploads/2010/02/IB_10-4.pdf).
- Wilson, I. B. & Cleary, P. D., 1995,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73, pp.59~65.
- Yamamoto, D. H., 2013, *Health Care Costs—From Birth to Death*, The Health Care Cost Institute.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B.,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17, pp.37~49.
- 「고령화 · 치매 · 우울증환자 증가→'가족돌봄 고통 커」, 『데일리미디어』, 2019년 10월 28일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8909>).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노인의 질병·의료획득요인(독립변수)과 우울증(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노인가구에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수원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Baron & Kenny(1986)의 단계적 인과관계 접근(Causal Steps Approach) 방법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수원시 노인은 4점 만점의 노인 우울증 척도로 측정된 값에서 평균 1.83점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심각할 정도의 우울증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끔(1주일 중 2일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은 약 60% 정도의 노인가구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리적인 부담 정도가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원시 노인들은 본인에 대한 건강상태가 주관적으로 안 좋게 판단할수록,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보다는 지역 건강보험인 경우의 독립변수에서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독립변수의 영향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개변수로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 우울증이나 노인가구의 월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노인 본인 또는 그 가구의 기능으로 한정하거나, 비단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책 과제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보건복지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공적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술적 차원에서 수원시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사회심리적 회복력 또는 탄력성, 즉 역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우울, 노인 우울증, 국민건강보험, 공적 건강보험료 부담감, 지방정부, 수원시

ABSTRACT

A Study on the Support for the Premiu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Households in Local Government : The mediation Effect of Burden of Premium Payment on Geriatric Depression

Kim, Je-sun / Han, Yeon-ju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how psychological burden of paying the monthly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affect (as a mediation variable) the relation between disease/medical acquisition factor (dependent variable) and depression(dependent variable) for senior citizens in Suwon.

In this regard, Suwon Research Institute carried out a survey for senior citizens in Suwon in 2015 and conducte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causal steps approach of Baron and Kenny (1986).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of all,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older population in Suwon marks an average of 1.83 points on the scale of 4, which is not a very serious level but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is relatively frequent (two days a week or once in three days). Second, about 60% of the respondents feel the psychological burden of pay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which suggests that a large number of senior citizens is distressed by the monthly payment. Third, the more negatively they perceive their health, they tend to be more prone to geriatric depression, and local subscribers rather than employee subscribers are more affected by 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diation variable, or the burden of paying the monthly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significantly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disease/medical condition

factor (dependent variable) and depression(dependent variable).

The research presents that addressing the issues of geriatric depression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elderly local subscribers shall not be limited to capacity of elderly citizens or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that local municipalities need to develop health and welfare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to address physical and mental illness among elderly population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hrough local government finances, to help elderly citizens pay for the monthly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At the academic level, follow-up studies shall be conducted to develop programs that measure elderly citizens' ability of maintaining or recovering mental health in spite of adversity and help them maintain psychological and social resilience against depression.

Key words : Elderly, depression, geriatric depres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burden of premium payment, local government, Suwon City

『수원학연구』 편집 및 간행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수원학연구』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 2. 논문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 4. 기타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

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 공모)

-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5.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D	
		ABD	
		ACC	
AAA	ABB	ACD	ADD
AAB	ABC	BBD	BDD
AAC	BBB	BCC	CDD
	BBC	BCD	DDD
		CCC	
		CCD	

-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계재’관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8조(윤리규칙)

- ①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제11조(저자의 의무)**

-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자기 표절)

-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 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구성과 의결)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 ①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소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강

▣ 논문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1. 원고 접수

-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 작성

-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18mm, 머리말/꼬리말 12mm로 한다.
-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한다.

-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논문작성 세부사항

□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

-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논문제목 표기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어논문

-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 2)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3. 부제목

-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1.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데점(·)을 넣어 구분한다.
-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 복수일 경우에는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 1) 저자가 1인인 경우
 -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Urban@suwon.re.kr, Tel : 031-456-7890)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2.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본문 작성

1. 본문 작성

-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본문의 인용문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2) 왼쪽 여백만 2칼럼 둔다.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도표 및 사진

1. 표 번호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 및 사진 번호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1. 각주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 표기 순서와 원칙(√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①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1, √활빈학회, √100~101쪽.
 - ② 홍길동, √1960, √「의적연구」, √『의적학보』1 √; √1998 √『의적의 사회사』, √활빈출판사 √재수록, √100쪽.
 - ③ 홍길동, √1997,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홍길동, √1988(a), √앞의 논문, √100쪽.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 ⑤ A. √R, √Zolberg, √1972,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pp. √183~207.
 - ⑥ 조한욱 √유희김, √1996,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Robert √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고려사』 √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 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 『세종실록』 √권9, √세종 √6년 √5월 √1일(경자).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2.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사사 등 표기

1. 사사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게재일자 등

-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편집위원장

이세구 수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용 원광대학교 교수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식 영남대학교 교수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금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16

발행인 | 최병대

편집인 | 이세구

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주소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홈페이지 www.suwon.re.kr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E-mail suwonstudy@suwon.re.kr

인쇄 |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